

전승실태 조사보고서

속초 북청사자놀이

글 / 장정룡

2010. 12.

속초문화원

| 차 례 |

I. 머리말	5
II. 속초전승 북청사자놀음의 실제	9
III. 북한전승 북청사자놀음의 실제	17
IV. 북청사자놀음의 남북한 변이양상	47
V. 속초북청사자놀음 기예능전승자(단체) 현황	57
VI. 맺음말	63
[부록1] 속초북청사자놀음 현지구술조사자료(2010년)	65
[부록2]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1991)	87
[참고문헌]	106

I. 머리말

본고는 속초지역에 정착한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음의 전승상태와 존재양상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사자놀음의 전승형태 뿐 아니라 기예능 전승자의 현황파악, 분단이전과 분단이후의 남북한의 연희적 차이점을 살펴 속초전승의 원형론을 추구하고, 그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음은 북청군 산하 14개명 3개읍에 속한 마을에서 정월 대보름날에 주로 추었던 세시풍속과 관련된 동물탈놀이의 일종이다. 그 명칭은 남북한 학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탈춤, 북청사자탈놀이, 북청사자춤놀이, 북청사자탈극 등으로 다양한바, 본고에서는 지난 1967년 우리나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지정된 명칭인 ‘북청사자놀음’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이 사자탈놀음은 함남 북청·정평·영흥·홍원 등지와 함북 경성·명천·무산·중성·경원 등지에서 1950년대까지 전승되다가 중단되었는데, 1945년 8.15해방 이후 남쪽으로 피난한 함경도 실향민들이 제2고향인 속초지역에 1957년에 북청사자놀음 공연을 처음 하였고, 1958년 당시 속초읍장으로부터 부지를 임대받아 북청도청을 만들고 북청동향친목계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사자탈놀음을 전승시킨 이래 중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계속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속초지역의 북청사자놀음은 1945년 해방이전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근래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은 연행내용과 탈들의 형태가 변질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는 민속예술 가운데 탈놀이를 특히 높게 평가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것이 봉건사회 인민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그 사상 감정을 반영한 우수한 인민창작으로 낙천적이고 패기에 찬 투쟁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민속예술뿐 아니라 전통문화 전반에 있어 애국적·인민적·진보적인 것을 계승하되,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는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실적이고 발전적 계승을 주장한다.¹⁾

특히 전승탈놀이에는 봉건착취자에 대한 비행의 폭로, 행복한 근로인민들의 사상이 배어 있어서 민족의 주체사상을 드높이고, 악을 미워하고 착취와

1) 최철·전경옥, 《북한의 민속예술》 고려원, 1990, 53쪽

억압에 뿌리박고 있는 낡은 생활을 짓밟고 뒤집어엎어야 되겠다는 사상이 넘친다고 한다. 따라서 인민들의 참을 수 없이 가난한 생활의 원인과 그들의 행복과 사랑이 뜻대로 실현될 수 없는 원인이 바로 양반 통치자들의 착취와 약탈, 억압에 있음을 묘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대 사회의 모습을 뚜렷이 밝혀낸다고 극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북청사자놀음은 그 극적 줄거리가 선명하며 탈춤과 우스꽝스런 재담으로서 양반통치계급의 탐욕과 악덕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전개를 이룬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해석과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근래 북한가면극은 전승이 중단되었거나 활발하게 전승시키지 못한 채 체제축하공연으로 내용과 형식이 바뀌어 전승되는 실정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문예이론, 김일성·김정일의 현장교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무장한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당의 문화정책에 부합된 예술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면극은 계급투쟁과 저항정신을 강조하며 혁명적 본질을 수행하는 장르로서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현장교시인 ‘귀중한 가르침’이라는 즉흥적 지도가 근본적으로 북한 가면극의 변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세시풍속에 전래한 민속놀이나 민속극이 차츰 새로운 방식의 세시풍속으로 변환되어 각종 북한기념일(5.1절, 9.9절 등) 행사가 되었으며, 군사훈련·체육경기와 결부되거나 극장 또는 야외공연종목, 곡예 등으로 나아가고 있다.²⁾ 더욱이 호방하고 자유로운 춤사위로 전승된 마당극을 경연방식과 무대공연 등으로 바꾸고 탈의 모습도 시대에 맞게 한다는 명분으로 교체하여 연행하고 있어서 전승상 원형을 강조하는 우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³⁾ 이러한 여러 이유로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이 정월대보름날 세시풍속 연행놀이에서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⁴⁾

2) 주장현, <북한민속놀이의 현단계> 《조선의 민속놀이》 해제, 푸른숲, 1988, 304쪽

3) 《민족문화유산》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6~7쪽 <민속무용 봉산탈춤에 깃든 질세위인들의 숭고한 조국애> “오랜 역사를 가진 탈춤이 일제놈들에 의하여 파묻혀 있었지만 봉산지방에서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선조들이 남긴 유산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아내어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봉산탈춤을 더 훌륭한 민속무용으로 완성한데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었다. 탈춤에 나오는 춤가락들은 활달하고 독특한 맛이 있지만 야외에서 추던 춤을 무대에서 추었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야외에서 추던 춤을 무대에 올릴 때에는 거기에 맞게 추려서 해야 한다고, 탈을 쓰고 하는 녀두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고 춤을 기본으로 하여 형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시었다.……그러시면서 작품의 가면문제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전통적인 민속무용을 널리 보급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민속놀이·민속극·민속무용·인형극·민요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민속예술은 예술성보다는 문화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계급의식 반영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목표로 지배층이나 부르조아 사상이 깃든 문화, 봉건유교사상이 내재한 문화 등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모든 민속예술이 일인독재의 현장교시로 그 지속과 단절이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현대적 미감에 맞게, 사상성과 주체적인 시대정신에 맞게, 그리고 역사주의적 입장에 맞도록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민속예술의 주체화를 시도함에 따라 북청사자놀음과 봉산탈춤 역시 남북간 이질화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태이다.⁵⁾

따라서 본고는 분단이후 속초사자놀음으로 정착된 북청사자놀음의 전승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무형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고 원형성에 입각한 전승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아울러 민족고유의 문화재가 갖는 보편적이고 탈정치적 가치추구를 통해 분단한국을 뛰어넘는 통일지향의 속초사자놀음을 계승하고자 한다.

4) 이정순 외, 《열두달 민속이야기》 근로단체출판사, 2002, 70쪽에서는 음력 3월 세시풍속으로 청명 전후에 불리는 함경도 북청지방 돈돌라리 노래와 달래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대보름 북청사자놀음은 빠지고, 정월대보름 놀이로 화불놀이, 바람개비놀이, 바줄당기기, 놋다리놀이, 다리밟이, 봉죽놀이, 쥐불놀이만 다루고 있다.

5) 장정룡, <속초실향민민속놀이의 콘텐츠개발> 발표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12. 15

II. 속초전승 북청사자놀음의 실제

한반도 남쪽에서 연행된 북청사자놀음은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 월남한 함경도민들의 최초 정착, 최다 집거지역 속초에서 가장 먼저 전승되었다. 지난 1957년 정월대보름날 속초지역에서는 북청출신 김수석, 김하륜 씨 등이 북청도청을 구성하고 이들에 의해 최초로 공연이 되었으며,⁶⁾ 1961년에 이르러 전국에 알려졌다.

북한출신으로 월남한 이북도민들에 의해 재현된 민속놀이와 민속극, 인형극은 다양한데 한국민속예술축제에도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남쪽에서 재연되고 있는 북한의 민속놀이 가운데 함경남도의 돈돌라리, 단천아리랑 민요와 춤이 유명하고 민속극은 북청사자놀음이 전승된다. 특히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집거하고 있는 속초에서 시작되었으며, 전승1세대가 생존하고 있어서 고증과 완벽한 재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서는 실향민의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삼고, 실향민 민속복원의 일환으로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승현황과 그 실태를 파악하여 확고한 지역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속초읍장으로부터 북청사자놀음공연에 대해 감사장을 받는 장면

6)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전승실태조사>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198~216쪽



속초북청사자놀이 1957년 최초 공연(좌측부터 통소 김하륜, 도깨비 김효환, 꼭쇠 양계건, 양반 이종욱, 사당, 거사, 중앙 사자춤 김수석, 오동술)

함경남도의 북단인 단천은 원라선을 비롯한 철도의 본선들을 끼고 만덕과 허천, 금골 등 북관땅의 내륙지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대이다. 더욱이 단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의 도회지로서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는 뿌리가 깊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워진 노래도 그 역사가 깊기 마련인데 〈단천아리랑〉은 함남땅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민요의 하나이다. “아리요 아리요, 아리랑 띄여루 바다로 가세, 선창에서 정든 님이 손저어주네, 아리랑 띄여루 바다로 가세, 아리요 아리요 아리랑 띄여루 만선이로세, 갈매기야 너도 좋아 춤을 추느냐, 아리랑 띄여루 만선이로세”

…단천아리랑에 대한 전설은 본조아리랑의 김좌수란 지주대신에 황진선이라고 하는 선주가 등장하고 성부라는 이름대신에 곱계라고 하는 어부의 딸이 등장한다. 어부 리랑과 곱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선주놈이 곱계를 탐내어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여 나선다. 그리하여 곱계는 가슴에 피맺히는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고 리랑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종당에는 이들의 사랑이 행복으로 귀결되는데 본조아리랑에 등장하는 리랑과 성부에 대한 전설을 바다로 옮겨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북청의 〈돈돌라리〉는 민속무용곡의 하나인데 돈돌라리라는 어원은 알 수가 없고 ‘동틀날’ 즉 조국광복의 려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유래된 노래라고도 전한다. 음력 3월 한식무렵이면 녀인들이 남대천 기슭 모래밭에서 달래를 캐다가 노래를 부르며 바구니를 들고 춤을 추었는데 그것이 돈돌라리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노래와 춤은 당대시대의 생활의 반영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과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므로 1930년대 부터는 반일집회를 하다가 경찰이나 밀정놈이 온다는 신호가 오면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인 하나로 돈돌라리 춤을 추었다.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시내강변에 돈돌라리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모래산천에 돈돌라리요” 이렇듯 북청의 돈돌라리는 이 지방에서 창작된 민요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애창곡의 하나이다.⁷⁾

1961년 9월 24일~29일, 육군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때 함남 북청사자놀음이 처음 참가하여 윤영준, 마후섭 씨가 공로상을 받았다. 그리고 덕수궁에서 열린 1962년 제3회 대회에서 장려상을 차지하고 마후섭 씨가 개인상을 받았다.⁸⁾ 이후 북청사자놀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탈놀이로 인정을 받아 1967년 3월 31일 중요무형문화재 15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남북한 양쪽에서 전승되고 있는 북청사자놀음은 상호 이질화의 길로 들어 있으나, 한국전쟁이후 월남한 북청사람들에 의해 전승된 것을 분단이전의 원형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1930년대 조사 보고된 북청사자놀음 자료

7) 최창호, 〈민요기행(2) 단천아리랑과 북청의 돈돌라리〉 《금수강산》 1991년 3월호, 오늘의 조국사, 53쪽

8) 북청사자놀음이 제7회(196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당시 대통령상은 전복농악이 차지하였고, 함남북청사자놀이는 공로상을 받았다. 당시 북청출신 김수석 씨 등이 사자앞머리로 출연하였다.

와 1968년 함경남도지 수록본, 1991년 장정룡 조사본(속초정착 김수석, 김하 루 조사)을 차례로 살펴 사자놀음 원형을 정립하고자 한다.⁹⁾

獅子놀음(사지놀음이라고 發音함)은 正月十五日 저녁에 細箏, 笛, 杖鼓를 樂隊로 한 一群의 선두로 兎, 獐, 鴉, 鴉, 鴉 등 假面을 쓴 一群이 뒤에서 舞踊을 하면서 집집을 돌아다닌다. 이 一隊가 남의 집 안마당에 들어가서 亂舞를 할 즈음에 실로서 몸체를 하고 붉은 面貌를 한 사자가(속에는 前後 各 一人式 入함) 갑자기 群衆을 헤치고 안방을 열고 큰 입을 벌리면서 무엇을 잡아먹는 形容을 하고 다시 부엌(廚房)에서도 如是하게 한다. 그리하면 그 집에서는 應分の 喜捨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하여야 비로소 辟邪進慶의 目的이 達成된다고 믿는 것이다...최근까지 국내에서 獅子舞를 행하던 곳은 沙里院, 통영, 김해, 동래군, 수영등지이나 사리원을 제외한 전부는 廢止되고 말았다.¹⁰⁾

북청군 각면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자놀이의 실태를 간단히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북청읍:사자계가 있어 이를 주관한다. 죽평리의 뗏별사자가 유명하다. 이것은 다시 동리에 따라 이촌사자, 증촌사자, 넘은개사자, 동문밖사자, 북리사자, 당포사자로 나누어진다. ②가회면:학계가 있어 이를 주관한다. ③신북청면:양천리에는 영락계가 조직되어 이를 주관한다. ④신창읍:토성리에서는 음력 정월보름을 전후하여 관원놀이와 함께 행하여진다.

사자놀음은 토성에서는 舊正月 13일밤 관원놀이의 전 프로로부터,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구정월 14일부터 논다. 달이 뜬 뒤(흔히 밤 8~9시)부터 사자놀음을 시작하면 15일 새벽까지 논다. 서당이나 도처의 앞뜰에서 酒食을 갖추어 놓고 논 뒤에 해산한다. 16일 이후는 초청하는 유지의 집들을 돌며 논다. 통소, 장고, 소고, 북, 팽과리 등의 반주 하에 사자와 사령, 꼽쇠, 양반, 무동, 승무, 꼽추춤과 기타 잡패들이 일단이 되어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먼저 이 무용단이 목표하여 둔 집의 마당으로 들어가서 난무하면 사자(假獅子 속에 2명이 들어감)가 맹렬한 자세로 안뜰을 거쳐 안방 문을 열고 큰 입을 벌리고 무엇을 잡아먹는 시늉을 한다. 다음에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전과 같이 한 후에 다시 안뜰 한 복판에 나와서 활발하고 기교적인 무용을 한 후에 단원보다 먼저 退去한다. 때에 따라서는 주인의 요청에 따라 부엌의 조왕과 시령 앞에 엎드려 祖靈에게 절한다. 이때 어린이들을 사자에게 태워주면 수명이 길다고 하며, 사자털(형견)을 몰래 베어다두면 장수한다고 하여 그렇게 한다. 이제 오늘날의 사자놀이의 연기의 전모를 차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입장:통소, 북의 반주음악과 함께 애원성을 부르며 노래와 음악에 맞춰 ‘애원성춤’을 춘다. 춤추는 사람은 여인으로 분홍치마, 색동저고리에 남색배자를 걸치고 고깔을 쓴다. 악사들은 흰바지 저고리에 분홍띠를 어깨에 가로 질러매고 고깔을 쓴다. 음악은 이때에 ‘늦은 곳거리’ ‘잡은 곳거리’등을 연주하고 승무의 일종인 애원성춤을 춘다.

9) 宋錫夏, 《韓國民俗大觀》《新東亞》1935년 12월~1936년 8월 연재, 《韓國民俗考》日新社, 1960, 75~79쪽 재수록 ‘北靑의 獅子놀음 及 官員놀음’

10) 宋錫夏, 《韓國民俗考》日新社, 1960, 76~77쪽

사자놀이에 쓰이는 음악은 길군악과 재율리는 음악, 애원성, 무곡(연풍대)이다. 그리고 춤은 경북궁춤, 애원성춤, 성주풀이춤, 사당춤으로 구분한다. ②사자놀이:양반과 그 하인(꼭쇠)이 등장한다. 꼭쇠는 양반의 허리끈을 매고 이끌어 들인다. 양반은 부채를 흔들며 거드름을 피운다. (음악은 길군악) 장내를 한바퀴 돈 다음 꼭쇠가 허리끈을 놓으면 양반은 혼자 말로 지껄인다.(대사 중략) 사자가 퇴장한 다음 악사들과 동리 사람들이 원형을 그리면서 신고산타령 등 함경도 민요를 부르면서 군무로써 끝낸다. 사용되는 도구와 인원수:①사자가면(2개) ②양반가면(1개) ③꼭쇠가면 (1개) ④꼭추가면(1개) ⑤사령가면(1개) ⑥무동(2명) ⑦사당(1명) ⑧중(1명) ⑨의사(중국인1명) ⑩거사(2명) ⑪반주악기¹¹⁾

1950년대 후반 북청출신들이 속초에 정착하여 최초 공연한 북청사자놀음 내용과 사자탈의 크기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연희시기:정월대보름 전후 2~3일간
- (ㄴ) 연희장소:도청마당(각 가가호호 방문 후)
- (ㄷ) 등장인물: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춤 2인, 거사춤 2, 사당춤2, 칼춤2, 무동춤4, 꼭새춤2인
- (ㄹ) 가면:양반, 꼭쇠, 사자탈(모두 종이탈)
- (ㄴ) 악기:통소 3~4개, 팽과리, 장고, 북, 징
- (ㅎ) 소요시간:40~50분(전체), 사자춤은 5~10분 정도
- (ㄱ) 연희내용:벽사진경
- (ㅇ) 연희마당:[아홉굿거리(곡)] ①입장곡 ②애원성곡 ③에구내말 봉섬이 ④연풍대 ⑤칼춤 ⑥사자춤초장 ⑦중장 ⑧말장 ⑨자유곡 [열두마당(내용)] ①양반꼭쇠의 해학 마당정리 ②애원성노래 ③사당춤 ④무동춤 ⑤꼭새춤 ⑥칼춤 ⑦사자춤 초장 ⑧중장 ⑨말장 ⑩승무 ⑪풍자 ⑫군무
- (ㄷ) 사자탈의 크기:1958년 남한에서 최초로 만든 사자탈은 크기가 사자전면 가로 70cm, 세로 62cm, 이마에서 눈썹까지 15cm, 눈썹의 길이 20cm, 한쪽 눈의 크기 14cm, 코길이 22cm, 입의 길이 21cm, 입높이 3cm이다, 원래는 피나무로 깎고 색칠을 했으나 종이로 만들었으며 사자탈은 페그물을 색칠함.¹²⁾



1958년 김수석옹이 제작한 사자탈

11) 《咸鏡南道誌》 함경남도지편찬위원회, 1968, 44~47쪽

12)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214쪽



왼쪽부터 사자탈을 들고 있는 김수석옹, 필자와 김수석옹, 통소부는 김하륜옹

이와 같이 북한에서 월남하여 자신들의 고향과 가까운 속초에 정착하여 함경도민들과 함께 살다가 타계한 북청사자놀음 앞사자 김수석 기능보유자¹³⁾ 뿐 아니라, 통소의 명인 고 김하륜 옹의 구술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김수석, 김하륜 두 분을 만나 비교적 자세하게 북청사자놀음에 대해 조사하였고, 동시에 김하륜 옹이 속초에서 최초로 제작한 사자탈을 찾아내어 소개하고 이것을 속초문화원에 보관하다가 근래 속초시립박물관에 이관하여 영구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분들과 함께 최근 속초로 이주한 사자놀음 이수자 김덕례 여사¹⁴⁾ 동선본 씨, 속초시립박물관 소속의 갯마당 풍물단원 등은 북청사자놀음의 전승과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속초시에서는 설악문화제 기간 중 서울의 북청사자놀음보존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사자놀음을 공연하였으며, 속초동우대학에서도 북청사자놀음전수반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이와 함께 속초사자놀음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속초문화원

13) 崔琳圭, 〈北靑獅子놀음〉 《江原民俗學》 창간호, 1983, 113~114쪽 “제보자 金壽石 씨는 현재 속초시 영랑동 41통 1반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금년 76세의 고령이시다. 1907년 함경남도 북청군 주평리에서 출생하여 1·4후퇴 때 월남하신 분이다. 학력은 보통학교를 졸업했으며 북청 사자놀음을 배우게 된 때는 우연히 정월대보름날 사자놀음을 구경하다가 흥미를 느껴 13세 때 배우게 되었다 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혼자서 흥내도 내고 연습하여 그 다음해 사자탈을 쓰고 연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북청사자놀음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라 한다.”

14) 〈설악신문〉 2006.8.28, 사람·사람들 ‘고향 속초 정착한 북청사자놀음 이수자 김덕례씨’ -사라져가는 이북 춤 전수 힘을 터- “우리나라 전통춤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북청사자놀음 이수자인 김덕례씨(56,중앙동)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66년 고 김수석 씨 등이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뒤 중요무형문화제 제15호로 지정된 북청사자놀음의 명맥을 이어온 그는 ‘무형문화제 이수자로 기력이 쇠하기 전, 북청사자놀음 뿐 아니라 이북 전통춤을 고향에 전수하기 위해 내려오기로 결심하게 됐다.’ 고 말했다.”

과 속초시립박물관에서는 북청사자놀음보존회와 전수활동반을 만들어 지속적인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화된 월남북청군민의 고증과 지도 등으로 체계적 보호와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단상황 하에서 북청사자놀음의 변질을 막고 그 원형을 유지하여 월남한 전승인들에 의해 원형을 전승하고 있는 속초지역이 남쪽 사자놀음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함경남도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가 고향이에요. 1.4후퇴 때 피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서 경상도에서 한 삼년나마 살다가 아군들이 북진한다하니까 이내 따라 올라와서 어디 갔나 하니까 주문진에 와서 한 이태 있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이기 모두 백사장이고, 술이 모두 낭구 요막씩 한 게 있을텐데 실향민들이 들어와서는 '아군들이 올라 간다'구 해서 뒤쫓아 와서 빨리 간다구 여기와서 정착한 기 어전은 40여년이요. 고향에서 배타고 모두 내려왔어요. 집이가 한 70호 됐는데 한 집이가 인민군대 간 아들이가 둘이 있으니까 고 하나만 아니 나오고 70호가 몽땅 다 나왔어. 처음에는 신포 마을에 살았어요. 지금은 청호동 사무소 바로 옆에 사는데, 첫 번째는 저 신포마을에 살다가 축향이 좁으니까 넓게 하여 배가 들어오게 하느라고 1차, 2차, 3차까지 하니까, 다 혈어서 나도 여기 나와서 집을 네 번 옮겼어요. 나도 집을 많이 옮겼어요. 저기서 한 3년 살다보니 여기 또 혈린다네. 그거 알았으면 객지 어디 멀리라도 갔을텐데. 모르니까. 여기는 또 '아바이동네'라고 함경도서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데 가기 싫으 해니까, 모두 사투리가 그만 딱 똑같고, 경상도 사투리하고 우리 함경도 사투리하고 들 으면 다르니.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틀리니까 여기 와서 살으니까 '아바이동네'라고 하지요. 우리가 아이들 때 보름날, 설쉬고 대보름날 사자놀음을 하거든요. 북청사자놀음 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지요.(필자조사:김태수, 남.79, 속초시 청호동, 1998.11.20)



1970년대 북청동향친목계원들 사진

속초시 청호동은 사실상 북청사자놀음의 남쪽 고향이다. 남쪽의 고향을 지켜온 북청사자놀음의 원형전승을 위한 과제 또한 분단한국의 실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북청사자놀음의 남북한 이질화를 차단하고, 그 원형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기 위해서 고령화되고 있는 기능인의 보존과 보호 그리고 지속적인 전승활동이 보장되는 도무형문화재지정과 전용놀이마당, 전수회관 건립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함경도 출신은 스스로 ‘지루바’(힘하게 생활했다는 방언)라고 할 정도로 외롭고 힘든 피난생활을 했고 남쪽에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 수산업, 노점상, 구두딱이, 지게쟁이 등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북출신들이 모이는 도민회에서는 사자놀음도 하고, 통소도 불고 돈돌라리춤을 추고 신고산타령도 불렀다. 그리고 이들은 고향을 가지 못한 한을 품은 채 망향의 동산에 함께 묻힌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남쪽에 정착하고도 이들은 북한의 음식과 놀이를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

고향음식이라고 하면, 함경도 음식이 돼지순대라고 있습니다. 이북식하고 여기식하고 틀리지요. 여기서 동네 시장 솜씨라는 게 이렇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잔치, 음식 자랑 이래서 한번 했어요. 동네 시장이 바로 이게 솜씨라는 거야. 솜씨가 좀 그렇게 있습니다. 자랑이지만, 이북에는 민요로서 돈돌라리 라는 게 유명합니다. 노래 중에 실항민 정착촌에 내 아직 기록이 남아 있지만 민요로서 ‘돈돌라 돈돌라’ 하는 게 아주 유명합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할마이들이 잘 합니다. 지금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바가지 장단이라고 있어요. 물장단. 그 두드리면서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이런 식으로 앉아서 하지요.(필자조사:박임학,남·78, 속초시 청호동, 2007. 3. 31)

최근 동해의 수호신인 신라장군 이사부축제가 삼척과 강릉에서 개최되어 사자탈깎기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울릉도)정복에 사자탈을 사용했던 하슬라군주 김이사부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재현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자놀이가치의 재창조를 통해 한민족의 문화적 통합과 화해협력발전 등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

Ⅲ. 북한전승 북청사자놀음의 실제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지역을 본거지로 한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사자탈놀음이다. 우리나라 동해안일대에서 발생·발전한 탈춤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북청사자놀음이다. 이외에 북강원도 통천탈춤, 강릉관노가면극 등이 있는데 북청사자놀음은 사자탈춤이 위주로 진행되며, 통천탈춤은 봉산탈춤과 비슷한 양상을 지니고 있으나 동해안남단의 탈춤과는 다르다.¹⁵⁾ 강릉관노가면극은 안동하회탈춤과 같이 17세기부터 행해진 한국토착적 가면극의 전형으로 마을서낭제때 행해졌으며, 현재도 강릉단오제 연희로 진행되고 있다.¹⁶⁾

북한에서는 북청지방에서 정월보름에 놀던 사자놀음을 짐승탈놀이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데, 탈춤과 재담이 혼합된 형식으로 지배층의 탐욕과 착취적 본성을 폭로하는 것이 기본내용이라 말한다. 또한 밝은 달빛을 받으면서 넓은 놀이장을 마음껏 뛰노는 용맹한 사자의 모습은 이 춤을 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고 한다. 씩씩하고 힘차며 활발하고 격동적인 사자탈놀이는 조선인민의 힘있고 용맹스런 기개를 잘 표현한다고 평가한다.¹⁷⁾

이는 북청지방에서 발족되어 점차 단천, 이원, 신포, 함흥을 비롯한 여러 지방으로 퍼져서 성행되었던 놀이로서 북청사자놀음 분포는 이외에도 죽상리, 후평, 서리, 마산리, 장항리, 랑가리, 정충리, 부동리 신상리, 안곡리, 양천 서리 등에서도 행해졌다. 함경도 지역 가운데 함남 북청, 정평, 영흥, 홍원 등지와 함북의 경성, 명청, 무산, 종선, 경원 등에서도 놀았는데 이 가운데 북청의 사자놀음이 가장 유명했다. 북청군에서도 북청읍 사자계(獅子契), 가희면 학계(學契), 구 양천면 영락계(英樂契)가 특출났으며, 북청읍사자는 땃벌사자인 죽평리 사자가 유명했다. 죽평리에는 이촌사자, 중촌사자, 넘은개 사자가 속했다. 이외에 동문밖사자, 후평사자, 북리사자, 당포사자들이 있었고 마을마다 대보름날이면 사자놀음을 했으나 1930년경 청해면 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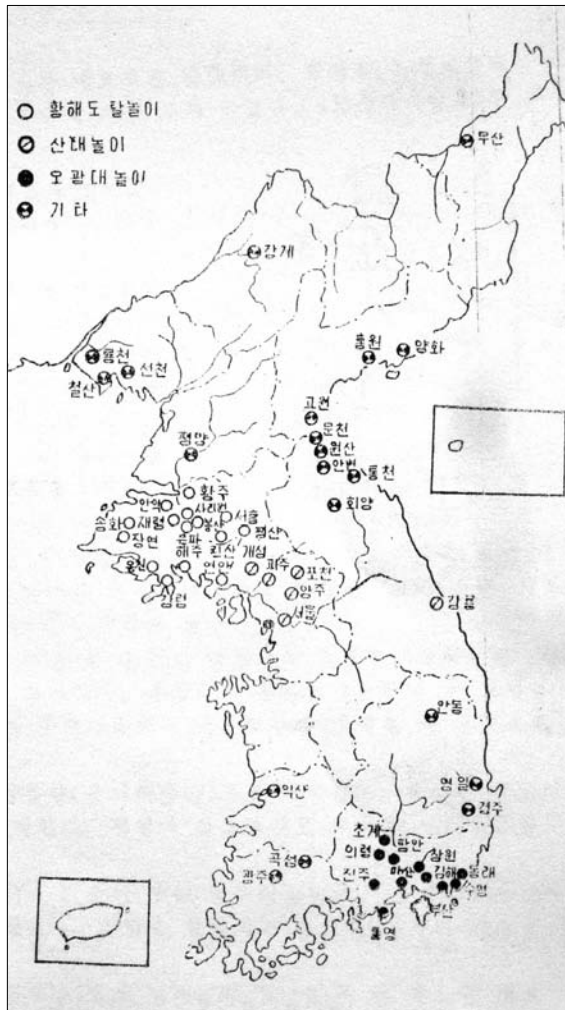
15) 《조선의 민속전통》 6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328쪽

16) 張正龍, 《江陵官奴假面劇研究》集文堂, 1989년 참조
장정룡, 《강릉단오제 현장론 탐구》국학자료원, 2007년 참조

17) 김내창선희창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91, 2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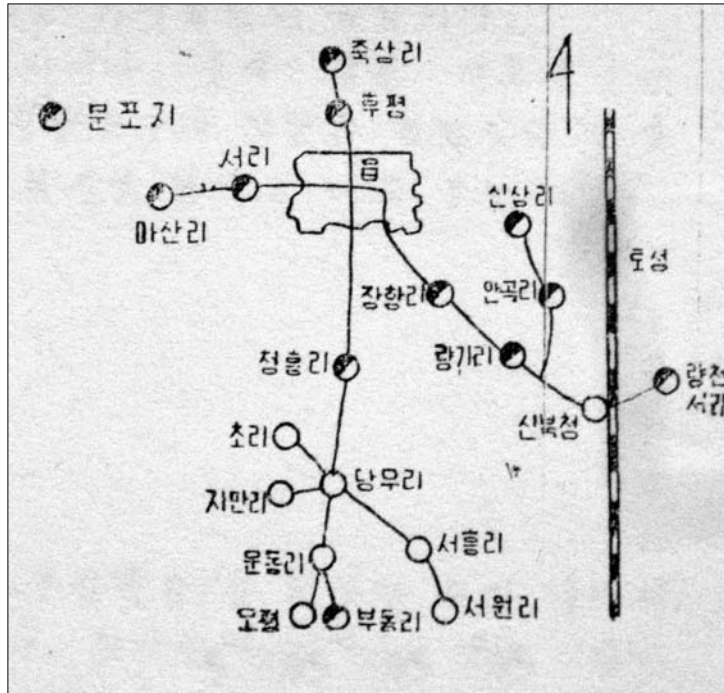
리 사자놀음을 제외하고 점차 쇠퇴하였다. 북청사자놀음에 관련된 전설은 ‘범잡은 삼사리 마을의 젊은이이야기’나 ‘왜장에게 살해된 놀이꾼이야기’ 등이 전한다.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은 초기에는 잡귀신들을 몰아내는 미신적인 외피를 쓰고 시작되었으나 예술적 내용이 점차 다듬어지면서 결국 미신숭배를 반대하는 문화계몽을 위한 놀이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바로 북청사자놀음이 이러한 예술적 특성들과 내용들로 하여 가치있는 민속예술유산의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⁸⁾



민간탈춤 분포도

18) 최창호, 《민속을 통해보는 시와 노래》 평양출판사, 1996, 45쪽



북청사자탈춤 분포도

현재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은 사자춤과 놀이를 기본으로 구성되며 사자춤 동작은 매우 특색이 있다. 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동작, 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 엎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짚는 동작,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며 소리가 날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 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작 등 사자의 행동을 그대로 형상하면서도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 모습들은 장쾌하고도 신명나는 것이다.¹⁹⁾ 함경도지방은 일반적으로 활달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것은 억양이 강한 굴신과 손동작에 의하여 표현된다고 본다.²⁰⁾

이처럼 대사가 없는 극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큰 짐승인 사자를 무대에 내세운 것은 경기도의 양주소놀이굿과 비슷하지만 대사와 노래가 있는 소놀이굿과 달리 대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가면극에는 사자탈이 등장하는 것으로 봉산탈춤 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자를 기본으로 전개되는 것은 북청사자놀음이 유일하다.

19) 《조선의 민속전통》 6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338쪽

20) 박영현, <민속무용의 계승발전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예술》 10월호, 문학예술출판사, 2009, 56쪽

우리나라 탈의 발생연원은 원시수렵생활 풍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호랑이, 곰, 기타 짐승들의 탈을 쓰고 사냥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또한 원시동물신앙적인 것에서 탈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의하면 예국 사람들은 호랑이를 신으로 숭배하여 ‘제호위신’(祭虎爲神)하는 동물신앙으로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으며, 4세기경 고구려의 안악 제3호 고분벽화에는 탈춤을 형상한 그림이 전한다.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하여 탈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은 백수의 왕과 같이 무서운 동물이 민속신앙과 결부되면서 잡귀를 위압하며 내쫓는 기능을 보여준 것으로서, 무서운 사자탈을 만들어 쓰고 춤을 춘 것도 이러한 신앙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탈놀이의 공통적 특징은 노래, 춤, 극이 결합된 가무극이고 다음은 인물, 사건, 구성에서 지방마다 다양한 양상의 놀이되었으나 주제실현에서는 공통성을 가지며, 생활내용 그리고 과장구성에서도 공통성을 보인다고 한다.²¹⁾

우리나라에서 사자탈이 처음 등장한 것은 9세기 신라시대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시기 다섯 종류의 탈놀이가 있었는데, 최치원의 시집 〈향악잡영(鄉樂雜詠)〉에 금환(金丸), 월전(月顛), 대면(大面), 속독(束毒), 산예(狻猊) 등 다섯 편이 그것이다. 이를 신라에서는 오기(五伎)라 하였으며, 산예라는 제목의 시는 예로부터 신라에 전해오는 사자탈놀이 장면을 노래한 것이다. 오기는 다섯 가지 특기를 가진 놀음으로 ‘금환’은 장대를 돌아가면서 두 손과 발로 금빛공을 받고 차는 곡예의 일종이고, ‘월전’은 어깨가 으쓱하고 몸이 짧고 머리가 더부룩한 난쟁이들이 술잔을 들고 나와서 서로 다투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며 관중을 웃기는 일종의 어릿광대놀이이다. 월전은 풍자희극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극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속독은 산발한 남색가면을 쓴 여러 사람들이 열을 지어 춤추는 가면군무의 하나이고, 대면은 황금빛 가면을 쓴 탈꾼이 손에 구슬로 장식한 채찍을 들고 귀신을 놀리는 동작을 하면서 마치나 붉은 봉황이 넘노는 듯한 춤을 추는 탈춤의 하나다. 이처럼 오기는 단순한 탈춤놀이만이 아니라 일정한 생활적 내용을 지니고 춤마당이 이뤄지고 사건적으로 행동성이 전개되어 나가는 생활극적인 놀이로 평가한다.²²⁾

신라 지증왕 때인 512년 6월 하슬라 군주였던 김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면서 우산국(현재 울릉도)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므로 나무로 목우사

21) 《구전문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9, 154쪽

22) 위의 책, 148쪽

자(木偶獅子)를 만들어 배에 싣고 130km에 달하는 우산국에 이르러, 주민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동물들을 풀어 놓아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이들을 굴복시켰다는 기록이 전한다.²³⁾

신라시대 사자의 모습은 통일신라에 제작된 국보5호 법주사 쌍사자석등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쌍사자 모습은 북청사자놀음과 연원이 맞닿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안압지에서 발굴된 8~9세기경 사자형 향로뚜껑이나 태안앞바다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사자향로뚜껑이나 국보 제60호로 지정된 고려청자 사자유개향로, 18세기 조선시대 백자사자모양연적도 사자놀음의 국내정착과 사자가 갖는 조형예술적 의미전파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주사 쌍사자석등 모습

23) 金富軾, 《三國史記》 권 제32, 지 제1 음악



고려시대 왕실훈수품으로 태안군 대섬 앞바다 침몰 선박에서 나온 청자사자향로뚜껑



사자형 향로 뚜껑. 경주 안압지 출토. 8-9세기.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

신라시대 실질적인 전쟁 상황 하에 사자탈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김이사부는 강릉지역에서 지역신인 12신 가운데 한명으로 대성황사에 모시는 등 민속신앙 신격으로 숭앙받기도 하여 지역에 자리매김하였다. 이사부가 사자탈을 전쟁에 이용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로서 목우희(木偶戲)와 연관성을 갖는다. 목우는 용(甬)이나 방상(方相)이 변화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고대 순장제도 가운데 초기에는 노복이나 노비를 순장하였으나 후에 이것 대신 목용(木甬)이나 도용(陶甬)으로 대체한 것이 후대 목우희의 발원으로도 보기도 한다.²⁴⁾

이처럼 탈이 갖는 심미적 예술성이나 벽사적 신앙성 이외에도 실제 전투에 사용된 것은 백수의 왕인 사자의 용맹성을 전술 심리적으로 응용한 것이며,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우산국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동물을 이용한 것으로 이는 후대 민속예술 사자탈놀음의 시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자놀음은 중국을 통해서 수입되었으므로 중국사자무의 기원과 민속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사자무는 1700년 전부터 ‘농사자(弄獅子)’ 활동이 있었으며, 당나라 때는 궁중연악무로 성대하게 행해졌는데 백거이(白居易)는 〈서량기(西涼伎)〉에서 당대 사자무의 정경을 시로써 표현하였다.²⁵⁾ 오방사자(五方獅子)는 당대 교장동물희(喬裝動物戲)의 대표로서 웅장한 기세와 화려 비범함을 보여주었으며, 《구당서(舊唐書)》 음악지에는 태평악(太平樂)을 오방사자무라 불렀다고 하였다. 당대 시기의 중요한 동물변장무에 대한 자료가 수록된 《당무회(唐舞繪)》에는 신라 사자무인 ‘신라박(新羅狛)’이라고 쓴 글씨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온 몸을 사자로 분장하고 춤을 추는 모습으로, 머리에는 털이 달린 큰 사자탈을 썼을 뿐만 아니라 양 손과 양 발에 작은 형태의 사자머리탈을 달고 춤을 추는 모습이다.²⁶⁾ 일본 악서의 하나인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는 ‘시라기고마’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 명 또는 두 명이 직립한 모습으로 일본에서는 기악(伎樂)사자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중국 남조 오나라에서 배워 일본에 전했다는 불교선전극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자탈 가장모습을 통해서 신라 때 행해진 사자탈놀음인 산예의 외형적 모습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4) 張紫晨, 《中國民間小戲》浙江教育出版社, 1989, 172쪽

25) 郭泮溪, 《民間遊戲與競技》中國社會出版社, 2006, 78쪽 “西涼伎 西涼伎, 假面胡人假獅子, 刻木爲頭絲作尾, 金鍍眼睛銀貼齒, 奮迅毛衣擺雙耳, 如從流沙來萬里”

26) 傅起鳳·傅騰龍, 《中國雜技史》上海人民出版社, 2004, 142쪽



唐舞繪 之新羅狗

중국의 사자무는 송대에 특히 유행하였는데 소한신(蘇漢臣)이 그린 '백자희춘도'(百子嬉春圖)에는 사자탈을 쓰고 노는 아동들의 사자무가 그려져 있으며 불교활동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자무가 추어졌다. 송나라 때 이러한 사자탈놀음은 기교가 특히 강조되었던 바, 당대의 오방사자무를 본받았을 뿐 아니라

태평무악의 반주 하에 무예적인 점이 중시된다. 1977년 10월 산서성에서 발견된 송나라 때 사자무는 모두 격렬하고 용감하며 무기를 잡은 사람과 서로 겨루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훨씬 용맹스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중국사자무는 사자의 특성과 습성을 관찰하여 다른 환경과 시기에서 각종의 다양한 표현양식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8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사자가 먹거리를 찾아 기뻐하는 모습의 희태(喜態), 둘째는 사자가 다리를 건널 때 물속에 거꾸로 비친 모습을 보고 초조하고 분노하여 몸을 치켜세우는 노태(怒態), 셋째는 사자가 좌절하고 무력감에 애상적 모습을 보이는 애태(哀態), 넷째는 사자가 말뚝위에서 놀며 물을 치며 희롱하는 낙태(樂態), 다섯째는 사자가 몸을 세우고 덩굴며 머리와 꼬리를 움직였다 멈췄다하는 동태(動態), 여섯째는 사자가 곤란에 처하여 장애로 피곤하므로 휴식을 취하는 정태(靜態), 일곱째는 사자가 놀라움에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태(驚態), 여덟째는 사자가 의심이 많아 먹거리를 보고 의심하는 모습의 의태(疑態)등이 있다.²⁷⁾

중국의 민간전승 연화(年畵)로 수놓은 공을 갖고 노는 사구(獅球)그림은 ‘獅’가 ‘師’ ‘球’가 ‘求’와 같은 음가를 지녀 높은 관직과 고귀하라는 뜻 그리고 자손번창, 가족번성 등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사자무가 길상과 길조를 상징하는 민속활동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²⁸⁾

또한 민간에서는 푸른 사자를 탄 동자부적을 붙이는데 부적은 오른손에 깃발, 왼손에 창을 들고 있는 늙은이 모습이다. 화제(畵題)에는 3월 곡우날 사자가 천궁에서 내려와 오독(五毒)의 정령만을 먹어치운다 하여 백수의 왕 사자가 민간에서는 독기를 제거하고 재앙을 소멸해주기를 바라는 민속신앙화 되었다.²⁹⁾



27) 羅斌朱梅, 《舞龍·舞獅》中國文聯出版社, 2009, 82쪽

28) 藍先琳 編著, 《民間年畵》中國輕工業出版社, 2005, 112쪽

29) 위의 책 79쪽



최초의 당나라 유학생인 고운 최치원이 만년에 신라에 환국하여 보고 쓴 사자춤 산예(狻猊)와 백거이의 시는 상호 유사한 점이 보인다.

산예(사자춤)

사막을 건너서 몇 만리를 왔느냐	遠涉流砂萬里來
털은 다 빠지고 먼지 투성이구나	毛衣破盡着塵埃
머리흔들고 꼬리치며 말잘 듣지만	搖頭掉尾馴仁德
억센 그 기운은 짐승 중 왕이로다	雄氣寧同百獸才

삼국시대의 짐승탈놀이에는 사자탈놀이와 소탈놀이가 전하고 있다. 6세기 무덤인 고구려 집안의 다섯 무덤의 제4호, 제5호 무덤 벽화가운데 소의 탈을 쓰고 춤추는 그림이 있는데 손에 낱알 묶음을 쥐고 있다. 이것은 농업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고구려 사람들이 명절 행사 특히 풍작을 기원하거나 축하하여 진행되는 가무놀이에서 소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탈춤을 추었을 것이다. 이러한 염원을 반영하여 삼국시대에 소탈놀이가 창작되었을 것이다. 신라의 사자탈과 사자탈놀이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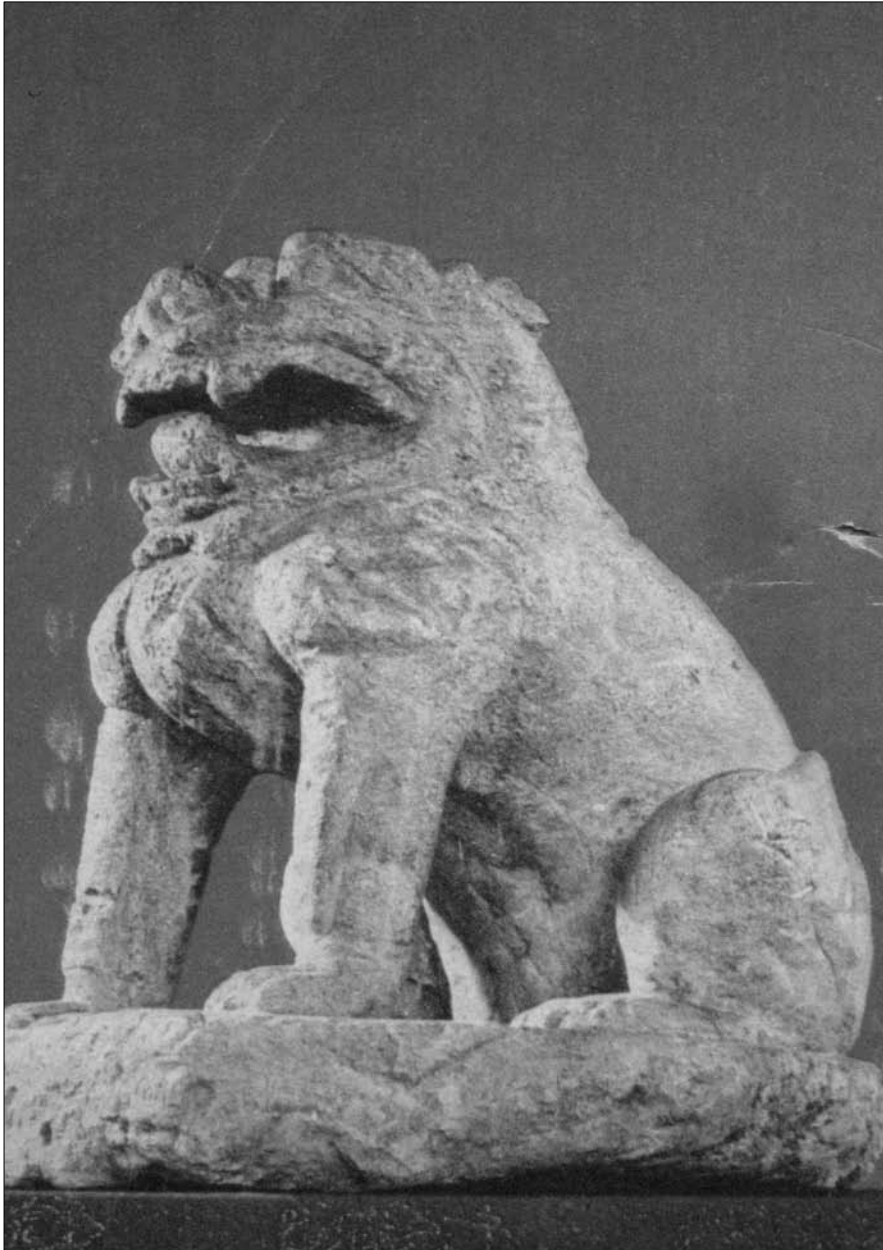
사자탈놀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박이종, 이사부 등이 513년(지증왕 13년)에 각각 우산국(울릉도)을 공격하기 위하여 허수아비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위협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었다.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제2 지철로왕, 삼국사기 권제44 열전 제4 이사부) 이 두 자료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의 이름이 잘못 윤색된 것이다. 시기로 보아도 같은 왕인 지증왕대이고 벼슬도 같은 이찬 벼슬의 인물인데, 성과 이름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우산국을 공격한 것으로 되었다. 같은 시기에 두 번씩이나 우산국을 공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며, 설사 두 번 공격을 하였다 하여도 같은 왕대에 같은 방법을 같은 대상에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사들은 같은 사실을 전한 것인데 사람의 이름이 와전되어 두 사건으로 된 것이다. 이 자료는 당시 사람들이 용감성과 무서운 것의 상징으로 사자탈을 많이 이용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사자는 전투용 위장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놀이에도 이용되어 그것이 사자탈놀이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후기 신라말기의 문인 최치원의 시집 《향악잡영》에 산예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것은 사자탈놀이 장면을 노래한 것이다.³⁰⁾

고구려를 계승한 주권국가인 발해(698~926)의 돈화 육정산 발해3대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 무덤에서 돌을 깎아서 조각해 만든 사자상 2기가 발견되어 지금도 남아 있다. 발해의 석사자는 북한지역에서 발견된 것을 포함하여 전체 3기가 발견되었다. 2기는 정혜공주고분안 입구에 있는데 이것은 1949년 돈화 육정산에서 발견한 것으로 웅장하게 앉아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모습을 화강암으로 조각한 것으로 웅장하고 힘이 넘치는 예술형상을 보여준다.³¹⁾ 정혜공주고분의 돌사자상은 높이 60~64m이며 천록(天祿)과 벽사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발해고분에 사자상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³²⁾ 발해 석사자는 3대 문왕 대흙무의 차녀인 정혜공주(貞惠公主)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공주의 묘비각은 780년에 새겼다.³³⁾

30) 한효, 《조선연극사개요》 국립출판사, 1956, 153~154쪽

31) 王承禮, 《渤海簡史》黑龍江人民出版社, 1984, 204쪽

32) 李殿福孫玉良, 《渤海國》北京文物出版社, 1987, 130쪽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사자탈은 남북국시대인 통일신라와 발해국에서 사자무용이나 ‘상서지수(祥瑞之獸)’인 사자관련 민속문화가 계속 전승되었다고 하겠다. 사자무는 희곡사적 측면에서 연극의 범주에 들어가며 전래의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3) 程里, 〈渤海石獅〉《社會科學戰線》創刊號, 吉林人民出版社, 1978, 214쪽

과거 우리조상들에게 있어서 연극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벌써 삼국시대 이전에 사자무(獅子舞)가 있었고, 신라시대에는 오기(五伎)라는 일종의 가면극이 있었다는 것을 문헌들이 전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과거 조선의 연극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보통 민속극으로 불리는 가면극과 인형극 그리고 창극 등을 들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리조의 희곡도 이 같은 민속극이나 창극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가면극이란 일종의 무극(舞劇)이며 창극이란 문자 그대로 악극(樂劇)이란 점에서 결코 연극으로서 높은 단계에 속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형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다채로운 인민예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민속극과 창극은 더욱 귀중한 것이며 실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³⁴⁾

현행의 북한지역 북청사자놀음은 1950년대 후반 중단되었다가 복원된 것으로 설날을 계기로 정월대보름날 각 고을에서 모인 출연자들이 경연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색이다. 명절분위기에 어울리게 밝고 약동적인 사자춤으로 흥겨운 명절맞이를 하는데, 이와 같이 사자춤을 힘찬 동작이 중심인 즐거운 공연물로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이 지역민들의 남성적 성격과 어울려 인기가 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자탈춤에서 사용되는 사자닐리리 반주음악의 첫장은 심산유곡에서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하였고, 중간장에는 성난 사자의 으르렁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인 선율을 연주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부정을 타승한 승리자의 위업을 그윽한 선율로 훌륭히 형상한다고 한다.³⁵⁾

북한에서는 북청사자놀음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로 인정하는데, 봉건통치배들의 부패상과 무능력, 착취상을 폭로하고 조소하는 내용 등 인민의 감정을 반영하는 등 줄거리가 선명하다고 평가한다. 그것은 탈춤과 우스꽝스런 재담으로 양반 통치계급의 탐욕과 악덕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극적 줄거리 때문이며, 또한 풍년에 대한 인민들의 염원도 깃들여 있다고 한다.³⁶⁾ 그러나 춤이 중심인 탓에 극적 형상은 약하다고 지적한다. 전체적으로 대사가 전승되지 않고 구성줄거리만 기록되어 구전되나 내용은 계급의식을 반영하고 투쟁의식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34) 윤세평, 《리조문학의 사적발전과정과 체장르에 대한 고찰》 국립출판사, 1954, 126~127쪽

35) 《조선의 민속놀이》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민속학연구실, 1964, 32쪽

36) 《조선민속학》 종합대학출판사, 1989, 176쪽

북청사자놀이는 실로 우리나라 근로 농민대중이 장구한 봉건적 억압착취와 또 후에는 일제의 혹심한 억압 착취 하에서 신음하면서도 일 년에 한 차례씩 정월 보름날 밤을 기하여 자기들의 우렁찬 기세를 시위하는 행사였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그 해 년사의 풍작을 빌고 병마와 사귀를 물리칠 것을 기대하는 행사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자놀이는 우리나라 피압박 농민계급의 건전한 계급의식의 반영이었으며, 민속행사를 통한 투쟁의식의 집중적 표현이었다.³⁷⁾

이렇게 북한에서 전승되는 북청사자놀음은 북한체제를 위한 민속놀이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사상은 조국에 대한 사랑,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 사회적 모순의 묘사 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에는 순수한 토착적 현지의 사자놀음은 전승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현존 남북한의 북청사자놀음 대본을 중심으로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약 40년간의 전승양상을 발표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³⁸⁾

1. 북청군지,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70
2. 민속예술사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3.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 평양출판사, 1990
4. 리순신 외, 조선의 민속전통 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5. 최창호, 민속을 통해보는 시와 노래, 평양출판사, 1996
6. 조대일 외, 조선민속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7.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8. 한태일, 조선예술 10호, 문학예술출판사, 2009

1. 《북청군지》 수록본³⁹⁾

北靑獅子놀음의 構成은 아래와 같다.

- (1) 演技者: 獅子2(名), 꺾쇠, 양반, 무등, 곱사, 한의사, 대사
- (2) 樂士: 통소, 장고, 소고, 북, 팽과리 새납
- (3) 脚本: 獅子춤을 中心으로 만듦
- (4) 舞踊: 獅子춤

37)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 과학원출판사, 1958, 80쪽

38) 본고의 작성을 위해 북한출판 북청사자놀음자료를 열람토록 배려해준 연변대 허휘훈 교수와 연변대 도서관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39) 《北靑郡誌》北靑郡誌編纂委員會, 1970, 261~266쪽.

- (5) 衣裳: 연기자에 따라 다름
- (6) 假面: 獅子가 주동적임
- (7) 伴奏: 팽과리, 북, 소고, 장고
- (8) 樂器: 통소, 장고, 소고, 북, 팽과리

獅子假面 속에 前後 2명의 연기자가 들어가 춤과 동작으로 놀음의 主役이 되어 伴奏에 맞춰 춤을 춘다. 主役은 獅子가 되고, 其他 助演者로는 社會的 (李朝를 中心으로 한) 階級으로 나누어 兩班, 꺾쇠, (戲弄的인 役의 當者), 무동, 곱사춤으로 主要人物을 이루며, 기타 잡패(端役)들이 일단이 되어 음악 반주에 맞춰 춤을 춘다.

演技順序: 먼저 무용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무용하고 있으면, 갑자기 큰 獅子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 들어와, 마당을 빙빙 돌며 기세를 보이다가 안 방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큰 입을 벌리고, 邪鬼를 잡아먹는 시늉을 하면서 부엌을 거쳐 안마당으로 다시 돌아 나오면 무용사들이 음악 반주를 하며 한바탕 獅子놀이가 퍼진다.

演技者들은 各各 제 몫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꺾쇠는 兩班을 조롱하고, 兩班은 威勢를 부리다가 꺾쇠와 和合하여 함께 춤을 춘다. 이때에도 獅子는 한가운데의 위치에서 흥겹게 춤을 추고, 절을 하고(집 主人들에게) 있는 동안에 演技者를 남기고 어느덧 樂隊와 춤추는 잡패들은 벌써 다음집 안마당에 들어가 序曲의 춤을 추는 것이다.

臺詞는 鬼神을 위로하며 禍를 털어버리는 말과 時勢風俗에 대한 諧謔의 거의 全部가 된다.

이날 밤 行事로는 演技가 끝나면, 書堂이나 마을 廣場에 主食을 갖춰놓고 밤샘하며 즐긴다. 연출시간은 대체로 14일(陰) 밤 8시나 9시, 달이 뜬 뒤로부터 새벽까지 놀고는 會食과 酒宴이 퍼진 자리에서 興樂속에 밤을 샌다.

2. 《民俗藝術事典》 수록본⁴⁰⁾

咸鏡南道 北靑郡 일대에 전승되어 온 民俗놀이. 특히 그곳의 북청읍 가회면·양천면 등의 사자놀이가 유명했다고 한다. 청해면 토성리의 사자놀음은 관원놀음과 합쳐진 놀이로서 또한 유명했다고 한다. 정월 보름 전후에 놀았던

40) 《民俗藝術事典》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79, 143~144쪽.

토성관원놀음은 그 해의 안태와 행운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면과 부락의 단결과 협동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능, 그밖에 민중들을 즐겁게 하는 오락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놀이의 순서는 가장행렬에 이어 죄인에 대한 모의재판을 열었으며, 뒤이어 劍舞·舞童춤·탈놀음·사자춤·햇불놀이 등이 벌어진다. 북청사자놀음은 옛날 삼국시대의 伎樂·舞樂 이래 민속놀이로 정착된 가면극으로서, 주로 대륙계(중국)나 북방계에서 연희되던 사자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일본의 사자춤은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북방계 사자춤, 우리나라의 사자춤, 그리고 일본의 그것이 모두가 흡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놀이는 아직 가면극으로서 충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종의 민속놀이적 성격이 짙다. 북청 일대에서는 음력 정월 14일에 남자들의 치열한 편싸움이 벌어지곤 하였으며, 달이 뜬 후부터 이 사자놀음이 시작되었다. 놀이는 15일 새벽까지 계속되다가 끝이 났으며, 16일부터는 초청을 받은 가정을 순회하면서 놀았다. 기록에 의하면, 놀이때는 초청을 받은 집에 들어가 먼저 마당에서 춤을 추고, 그 후에 사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큰 입을 벌리고 무엇인가를 잡아먹는 시늉을 하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같은 행동을 하고 전원이 퇴장하였다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잡귀신을 물리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종교적인 기원과도 상응되는 성격을 지닌다. 아이를 사자에 태우면 명이 길다고 하여 등에 태워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순회공연에서 얻은 돈이나 쌀은 마을의 공공복지시설이나 탈놀이의 경비로 충당되었다.

북청사자놀음은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이 놀이에 쓰이는 가면은 사자(2개)·양반·꼭쇠·곱추·사령(2개) 등인데 무동·사당·중·한의사·거사 등은 가면이 없이 의상만 입는다. 봉산탈춤·강령탈춤·은율탈춤·통영오광대·수영야류 등에도 사자춤이 보이기는 하나 그 역할이 다른 인물에 종속되는 특징을 갖는데 반해, 북청의 경우는 사자가 놀이의 주축을 이룬다. 북청 사자는 머리 쪽에 한 사람, 뒤통수에 한 사람, 보통 두 사람이 추는데(세 사람이 들어가는 수도 있다), 앞채 사람이 뒤통수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높이 솟기도 하고(直立), 앞채 사람이 먹이인 토끼(전에는 아이였다고 한다)를 어르다가 잡아먹는 시늉도 한다. 여느 사자춤에 비하여 활달하고 힘찬 연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놀이의 내용은 애원성·마당놀이·사자춤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통소와 북에 의한 반주와 애원성에 맞춰 애원성춤을 춘다. 통소 소리는 독특한 멜로디와 음색으로 옛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마당돌이에는 양반과 그 하인 꼭쇠가 나오고 악사가 뒤따른다. 양반은 사당·무동·곱추 등을 불러들여 한참 어울려 놀다가 사자를 불러들인다. 사자춤에서는 상좌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자와 함께 춤을 춘다. 사자는 한참 동안 재주를 부리다가 지쳐 쓰러지고 대사는 사자를 살리기 위해 반야심경을 외운다. 사자가 움직일 줄 모르자 의원을 초청하여 몸에 침을 놓게 한다. 사자는 다시 일어난다. 사자춤과 사당춤, 상좌의 승무가 한데 어울린다. 사자가 퇴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린다.

[北靑獅子놀음의 탈복 및 소도구]

등장인물	특징 및 탈탈복·소도구
사자 2개	갓가지 물감으로 채색함.(사자의 머리와 사자 몸에 두 사람이 들어감)
양 반	분홍색 바탕, 수염, 정자관, 옥색 도포, 부채, 장죽
꼭(꺼)쇠	분홍색 바탕, 수염, 흰 바지, 짝옷(한쪽 빨강, 한쪽 남색), 방울과 술이 달린 모자
곱 추	분홍색 바탕, 남-흰 바지·저고리, 행전, 여-흰 저고리, 흰 치마
사 령	분홍색 바탕 흰 바지·저고리, 남색 전복(괘자), 병거지, 행전, 곤장
무 동	남-빨강 저고리, 초록 바지, 남색 괘자, 여-노랑 색동 저고리, 빨강 치마
소 무	흰 바지·저고리, 남색 조끼, 남색, 빨강, 노랑색 띠, 고깔
중	흰색 바지·저고리, 붉은 반우장
의 사	흰 바지·행전, 회색 두루마기, 흰 저고리
악 사 들	흰 바지·저고리, 남색, 빨강, 노랑색 띠, 흰 행전, 고깔

3. 《조선구전문학개요》 수록본⁴¹⁾

우리나라 동물탈놀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함경도 북청지방에 전하는 ‘사자탈놀이’이다. 사자탈놀이는 그 기원이 오래며 분포전승지역이 넓다. 사자탈놀이는 독자적인 형태로써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봉산탈놀이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탈놀이 구성 속에 들어가 한 부분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사자탈놀이는 그 기본이 탈춤으로 되어 있으며 극적 요소는 극히 미약하다.

북청사자놀이는 함경도 북청읍을 둘러싼 여러 마을에서 놀았다. 여기에는

41) 장권표, <함경도지방탈놀이, 북청사자놀이> 《조선구전문학개요》 평양출판사 1990, 257~259쪽

사자(두 사람이 앞뒤에 서서 사자탈을 쓴다)외에 꼭쇠(또는 꼭새), 양반, 중점바치, 의생, 굴종(상모)을 돌리는 사람, 소고를 든 거사(2명), 무동 등이 놀이에 출연하는데, 이들의 가무반주를 위하여 피리, 통소, 팽과리, 새납, 소고, 큰 북 등을 든 일정한 수의 제비꾼들이 따른다. 북청지방에서 사자놀이는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날밤에 관례적으로 돌아왔다. 해마다 정월 보름날밤이 되면 놀이에 나올 모든 사람들이 동리사람들과 함께 자기 마을의 도청에 모여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하고 춤을 추면서 마당놀이를 시작한다. 자기 마을 도청에 모여서 노는 이 놀이는 서막에 해당한다. 일정한 시간이 흘러 분위기를 돋군 다음 햇불(또는 등불)들을 앞세우고 길군악을 부르며 자기 마을을 떠나 북청읍 북청남병영앞 광장에 모여든다. 여기에서 각 마을에서 온 사자놀이꾼들의 일대 경연이 벌어진다. 그들은 ‘사자닐리리’의 신명나는 악곡 반주에 맞추어 장엄하고 활달하며 기운차고 용맹스러운 동작의 사자춤을 오래 계속하여 추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구경꾼들도 함께 춤을 추면서 도도한 흥취와 충천하는 기세를 밝은 달빛 아래에서 돋구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사자놀이는 각기 흩어졌던 행렬(사자행렬)을 수습해가지고 집집을 방문하러 간다. 꼭쇠가 사자를 앞세우고 방문하는 집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한바퀴 돈 후 거기서 각종 장단(마당장단, 닐리리장단, 검모리장단, 도도리미 등)에 맞추어 사자춤(넘놀이춤, 넉두리춤, 검모리춤)을 추었다.

검모리춤을 추는 과정에서 사자놀이는 일정한 극적요소도 보여준다. 이때 사자는 날래고 재빠른 동작의 환희에 찬 춤을 추는데 그 앞에 아이 하나가 나타난다. 그러면 사자는 그 아이에게 달려들어 그를 잡아먹는다.(병영뜰 앞에서 놀 때에는 관가에서 기생을 내어주었는데 사자는 그를 잡아 삼키는 동작을 했다고 한다.) 희생물을 받은 사자는 즐거워 날뛰다 곧 체기를 일으켜 병들어 쓰러진다. 그리하여 점쟁이가 병점을 치고 꼭쇠는 달려가서 의생을 업고 들어온다. 이때 의생은 긴 막대기로 사자에게 침을 놓는 시늉을 한다. 그 결과 사자는 다시 소생하며 춤을 추게 된다. 집마당에서 검모리춤이 끝나면 사자는 부엌문으로부터 부엌칸에 들어갔다가 방안을 거쳐 중문으로 나오는데 이때 사자는 춤을 추며 돌아가면서 마치 악귀를 몰아내는 듯한 시늉을 한다. 이러한 동작은 그 집에 숨어 있는 나쁜 귀신들을 몽땅 쫓아냄으로써 그해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자놀이는 북청지방 농민들의 가장 즐거운 연중행사의 하나로써 그해의 풍작과 복을 비는 의미에서 진행되었으며 봉건통치 밑에서 억눌리

고 천대받는 자기들의 힘과 기세, 항거정신을 시위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또한 그것은 인민예술이 전승 발전되어가는 하나의 형태였으며 인민들의 가장 흥겹고 즐거운 오락과 예술적 경연이었다.

4. 《조선의 민속전통》 수록대본⁴²⁾

북청사자탈춤은 동해안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탈춤이나 함경도 북청지방에서 사자탈춤을 많이 추었는데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에 가장 크게 놀았다. 북청사자놀은 신창, 신포일대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지방에서 놀았던 사자탈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자탈춤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청에 모인다. 초저녁에는 도청에 모인 사람들과 놀이꾼들이 피리, 통소 각각 4명, 팽매기, 징, 새납, 소고, 큰북 각각 1명의 재비들이 치는 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춤을 춘다.

이때 놀이꾼은 주로 사자탈이외에 꼭쇠(꽉쇠), 양반, 중, 의생, 상모꾼, 소고를 든 거사 2명, 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꼭쇠는 협상곳은 가면에 남루한 푸른 두루마기를 걸치고 그 위에 띠 각띠에 방울을 달았으며 머리에 종이수술을 얹은 차림을 한다. 그는 긴 수염을 날리며 부채를 들고 장죽(통소)을 분다. 거사도 가면을 쓰고 고깔을 쓴다. 이러한 사자놀이패들이 도청에 모여 흥에 겨워 자유자재로 노는데 여기까지는 사자탈춤놀이의 서막에 해당된다. 뒤이어 사자놀이패들이 등불(혹은 햇불)을 선두로 길군악에 맞추어 북청읍에 다다른다. 여러 마을에서 이처럼 북청읍으로 모여든다. 북청읍에 사자놀이꾼들이 다 모이면 경연이 벌어진다. 북청사자놀음은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시작되는데 대체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1) 첫장

첫부분은 널리 알려진 초장격인 ‘마상장단’(굿거리장단)으로 시작된다. 사자는 장단에 맞추어 동작이 느린 ‘닐리리춤’을 추기 시작한다. 위엄이 있으면서도 무엇을 노리는 듯한 기상을 안고 있다,

42) 리순신·리금산 편집, 《조선의 민속전통》 6, 민속음악과 무용,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337~338쪽

2) 중간장

둘째부분은 날리리장단(타령장단)에 맞추어 추는 ‘넉두리춤’이다.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은 이 넉두리춤에서 남김없이 표현된다. 밀림을 돌아치는 용맹한 사자의 기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3) 마지막장

셋째부분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으로 넘어가면서 음악은 더 속도를 내고 북소리는 매우 격동적이다. 사자는 재빠른 동작을 환희에 넘치는 춤을 춘다. 이때 아이 하나가 마당에 나온다. 사자는 달려들어 아이를 삼켜버리는데 이번에는 또 관가에서 기생이 나오는 것도 삼킨다. 사자는 춤을 추다가 체기를 만나 쓰러진다. 점쟁이가 점을 치고 꼭쇠가 달려가서 의생을 업고 나온다. 의생이 긴 막대기로 사자에게 침을 놓자 사자는 다시 소생하여 기쁨의 춤을 춘다. 이렇게 되면 놀이꾼 모두가 뛰어나와 본격적인 춤판을 벌린다.

이것이 북청사자탈춤의 흐름이다. 놀이가 끝나자 사자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집집을 돌아다니는데 부엌문을 거쳐 방안에 들어간다. 사자는 거기서 양푼이나 그릇을 입에 물고 바깥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는 데는 전해 집안에 끼였던 부정한 것을 쫓아버리고 그 집 사람들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있다. 주인은 사자가 들고 나온 그릇에 먹을 것을 담아놓고 주안상을 차린다. 사자는 한바탕 흥겨운 춤을 추고 나서 음식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사자놀이는 이렇게 마을과 그 주변으로 춤추며 돌아다니는 것으로 끝난다. 북청사자탈춤은 봉산탈춤에 나오는 사자춤과는 달리 자기의 독자적인 구성체계와 이야기 줄거리를 가진 큰 사자탈춤이었다. 북청사자탈춤의 동작은 매우 특색이 있다.

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동작, 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 앞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짚는 동작,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며 소리가 날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 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작 등 사자의 행동을 그대로 형상하면서도 장단에 맞추어 춤추는 모습들은 장쾌하고도 신명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청사자놀음은 하나의 독립된 탈춤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자탈춤이 적지 않으나 그것들은 모두 독자적으로 추어지는

탈춤이 아니라 다른 탈놀이의 하나의 장면으로 들어 있었다. 그러나 북청사자놀음은 봉산탈춤, 양주산대놀이, 오광대놀이와 같은 큰 규모의 탈춤과 맞먹는 자랑할 만한 탈춤이다. 북청사자놀음은 근로인민들의 염원을 잘 반영한 놀이이다. 매해 정월대보름날을 계기로 크게 판을 벌리곤 한 북청사자놀음은 인민들의 생활풍습과 잇닿은 인민적인 탈춤으로서 이 지방 인민들은 사자탈춤을 통하여 온갖 재앙이 없기를 바라고 새해 풍년이 들기를 바라고 하였다.

5. 《민속을 통해보는 시와 노래》 수록본⁴³⁾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춤추기를 즐겨하였다. 일하다가 쉴 참은 물론이요 명절날에도 모여서 춤판을 벌리곤 하였는데 정월보름날에 추었던 민속무용을 더듬어보면 지방별로 특색이 있었다. 여기에 북청지방의 사자춤놀이를 더듬어본다.

북청의 사자춤은 역사가 매우 깊다고 한다. 세 나라 시기 우리나라의 민족악기 가야금을 만들어낸 우륵의 가야금 12곡중에는 ‘사자기’가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 시기의 시인 최치원의 ‘향악잡영(鄉樂雜詠)’의 오기(五技) 중에는 산예(狻猊)라는 시가 전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자춤놀이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북청지방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에서 사자놀이춤을 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춤은 처음에 타령장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춤이 고조됨에 따라 각이한 장단이 곁들리는데 농악장단들도 인입된다. 악기들은 장고와 북, 팽과리, 징, 바라 등의 타악기들이고 선율악기들은 피리, 젓대, 새납 등이다.

이 사자춤은 판놀음에서 한마당, 두 마당으로 구분하는 그러한 형식이 취해지는데 양반마당, 무동마당, 애원성마당, 사자놀이마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자놀이마당에서는 초장, 중장, 말장으로 이어진다. 아래에 사자춤마당만을 언급해본다.

- ① 먼저 악대들이 등장하면서 새납이 적당한 곡을 부는데 이 놀이를 주관하는 집사의 계획에 따라 타령장단으로부터 시작하는 때도 있고 굿거리로부터 시작하는 때도 있다. 새납수가 부는 곡조에 따라 타악기들이 이

43) 최창호, <정월보름날 북청지방의 사자춤놀이> 《민속을 통해보는 시와 노래》 평양출판사, 1996, 40~45쪽

에 장단을 맞춘다. 장단이 점점 고조되면서 사자춤에 등장할 인물들이 나와서 한바탕 춤을 춘다. 이것은 서막의 한 형태인데 춤이 시작되면 부락의 아이들과 노인들, 여인들도 뛰어들어 자연스럽게 춤을 춘다. 그러다가 춤이 잦은모리의 장단으로 고조될 때에 징이 땡, 땡, 땡 하고 세 번 울리면 춤을 추던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다.

- ② 사람들이 퇴장한 다음 땡과리가 등장하라는 신호를 따당, 따당하고 울리면 알락달락하게 무동차림을 한 꼭쇠 두 명과 붉은 띠를 띤 놀이꾼이 사자를 끌고 나온다. 사자의 탈은 품을 들여서 만들 것인데, 머리 부분은 제작기술이 높아야 하였다. 이 사자의 탈은 주력이 좋고 춤을 잘 추는 두 춤꾼이 쓰는데 한 사람은 앞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뒷부분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 두 춤꾼의 안삼불이 맞아야 하였다. 그래서 음력 정월보름 무렵이면 고수들과 악사, 춤꾼들이 모여서 미리 연습을 해둔다. 1988년 5월 북청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박길산 노인의 구술에 의하면 사자춤은 처음에 잡귀신들을 쫓아버린다는 데서 생겨났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미신을 반대하는 놀이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 ③ 타령장단에 맞추어 사자가 위엄있게 발과 머리를 놀리는가 하면 뒷발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기도 하면서 신명이 나게 춤을 춘다. 이때에 장단은 여러 가지 장단으로 흥이 나게 이어지고 사자는 이에 맞추어 춤을 춘다.
- ④ 이렇게 사자가 춤을 출 때에 다시 징이 세 번 울리고 땡과리가 울리면 사자는 아파서 죽어가는 동작을 한다. 그러자 무동 차림을 한 꼭쇠가 무당을 데리고 나오고 그 맞은편에서 다른 꼭쇠가 의사를 데리고 나온다. 무당이 죽어가는 사자를 보고나서 방울을 흔들며 굿을하자고 한다. 그러면 고수들이 굿거리장단을 친다. 무당은 춤을 추다가 “오호네야 오호네야 하늘나라에 많고많은 염제제신 오호네야”하고 무가(巫歌)를 부를 때에 이 광경을 바라보던 의사가 사자에게 진찰을 하려고 한다. 그러자 무당은 성이 나서 의사를 나가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에 사자가 쓰러진다. 이것을 본 꼭쇠가 겁에 질려 사자가 죽었다고 고함을 지른다. 무당은 사자가 죽은 것을 보고 어쩔 줄 모르다가 사자가 죽었으니 인제는 굿을 해야 된다고 한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고 나서 무가를 부르며 굿을 한다.

많고많은 짐승중에/용맹함을 뉘 당하리
그 용맹출중하야/신령님이 정하신 칭수
메산자에 짐승수자/임금왕자를 모셔다가
산수왕이라 하였도다/오호네야 오호네야

오늘상원 달밝은 밤에/산수왕님 가신 것은
신령님이 내리신 엄벌(무당을 안내한 꼭쇠가 받아 넘긴다)
산수왕님 가신 것은/신령님이 내리신 엄벌

(무당)

오호네야 오호네야/산수왕님 가는 길에
이동네 저동네 잡귀신들/모두모두 데리고 가소
(꼭쇠 받아넘긴다)
이동네 저동네 잡귀신들/모두모두 데리고 가소

(무당)

오호네야 오호네야/가자하니 억울하오
돼지를 잡았으며/앞다리 뒷다리 선각후각
모두모두 내오너라
(꼭쇠 받아넘긴다)
앞다리 뒷다리 선각후각/모두모두 내오너라

이때에 사자의 맥을 보고 있던 의사가 “꼭쇠야, 침통을 가져오너라.”하고 고함을 지른다. 이윽고 의사를 데리고 들어왔던 꼭쇠가 침통을 가져온다. 의사는 긴 막대꼬챙이로 침을 놓는다. 그러자 사자는 푸들푸들 움직인다. 의사가 또 한 대의 침을 놓자 드디어 사자는 살아난다. 사자가 살아난 것을 본 무당이 그만 바빠맞아 퇴장하면 구경꾼들 속에서 폭소가 터진다. 대체로 여기까지가 초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중장

사자가 자기 병을 고쳐준 의사에게 절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패기있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말장으로 넘어간다.

⑥ 말장

사자춤의 종장인 말장에서는 서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등장하였던 사람들과 구경꾼들이 떨어져 나와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추다가 끝을 맺는다. 북청의 사자춤은 북청지방에서 발족되어 점차 단천, 이원, 신포, 함흥을 비롯한 여러 지방으로 퍼져서 성행되었던 놀이의 하나이다. 이 놀이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잡귀신들을 몰아내는 미신적인 외피를 쓰고 시작되었으나 예술적 내용이 점차 다듬어지면서 결국 미신숭배를 반대하는 문화계몽을 위한 놀이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북청의 사자춤 놀이는 이러한 예술적 특성들과 내용들로 하여 가치있는 민속예술유산의 하나로 되고 있다.

6. 《조선민속사전》 수록대본⁴⁴⁾

북청사자탈춤은 우리나라 동부지방 대표적인 탈춤으로 함경도 북청읍의 도청에서 정월대보름날에 성황리에 진행되던 사자탈놀이 때 추어진 춤이다. 북청사자탈놀이에는 피리, 통소, 새납, 팽과리, 징, 소고, 북으로 편성된 재비들과 꼭쇠, 양반, 중, 의생(의원), 상모군, 소고를 든 거사, 무동 등으로 구성된 놀이꾼들과 춤꾼들, 읍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 모인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북청사자탈춤은 개별적인 집들을 찾아다니며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사자탈놀이를 하면 묵은해의 온갖 부정한 것이 다 물러간다는 이 고장의 옛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시기 북청지방 사람들은 자기고장의 풍습과 잇닿은 인민적인 사자탈춤을 통하여 재앙을 없애고 새해 풍년들기를 한껏 바라곤 하였다. 사자탈놀이는 모두 6개 마당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 사자놀이마당은 초장, 중장, 말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놀이가 진행되었다.

1) 사자놀이 초장

사자가 춤판을 한 바퀴 위엄 있게 돌고 이에 재비들이 연주하는 마상장단(널리리장단의 초장격인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오른발, 왼발 또는 앞 뒤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위엄이 있으면서도 무엇을 노리는 듯한 기상을 보여주는 사자춤이 진행된다.

44) 조대일 외, 《조선민속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181~182쪽

2) 사자놀이 중장

좀 빠른 널리리장단(타령장단)에 맞추어 밀림을 돌아치는 용맹스러운 사자의 기상을 형상한 사자춤을 춘다.

3) 사자놀이 말장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에 맞추어 사자가 탈놀이판에 나타나는 아이와 기생을 삼켜버리고 체기를 만나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자춤이다. 이때 탈놀이판에 점쟁이가 나와 점을 치고 꼭쇠가 엮고 나온 의생이 긴 막대기로 사자에게 침을 놓자 사자는 소생되어 기쁨의 춤을 춘다. 말장이 끝나면 처음 탈놀이판에 등장하였던 놀이꾼들이 뛰어나와 본격적인 춤판을 벌린다.

7. 《조선중세민간극문학》 수록 대본⁴⁵⁾

권택무에 의해 정리된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은 ‘북청사자탈극’이라 부르며 북상리(대별)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대본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과장은 제1 도청과장, 제2 길군악과장, 제3 경연과장, 제4 마을돌이과장, 제5 마감과장으로 나누었으며, 나오는 탈은 사자탈, 꼭쇠(또는 꼭쇠), 양반, 중, 점바치, 의원, 굴중(상모)돌리는 사람, 소고든 거사(2명)⁴⁶⁾, 무동,⁴⁷⁾ 아이(또는 기생) 등이다. 이 내용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⁴⁸⁾

1) 도청과장

정월대보름달 달 밝은 밤이다. 사자탈극 출연자들이 마을사람(관중)과 함께 도청⁴⁹⁾에 모인다. 초저녁이다. 도청 안에서 장단을 잡고 소리와 춤으로

45)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86~91쪽

46) 거사(乞士, 居士)는 유랑예술인집단인 사당패 가운데 남자를 이르는 말.

47) 무동(舞童)은 걸립패라는 유랑예술인들의 집단에서 다른 출연자의 어깨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아이.

48) 원문은 1차 자료의 가치를 살려 북한의 용어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단어만 한글맞춤법에 맞게 고쳤다.

49) 도청(都廳)은 마을에서 도감(일거리를 맡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탈극을 시작한다. 반주를 맡은 ‘장단재비’는 피리 4명, 통소 4명, 팽매기 1명, 증(징) 1명, 새납 1명, 소고 1명, 큰북 1명이다. 통소, 피리 그리고 피리에 장단을 맞추는 큰북이 주동이 되고 기타 재비들이 장단을 맞추면서 심 없이 ‘사자닐리리’곡을 반주한다. ‘사자닐리리’곡은 단조로운 애상적 색조를 띠고 있으나 신명나게 울리는 북소리와 어울려 흥겨운 춤을 자아내는데 알맞는다

음악이 울려 이윽고 출연자들이 도청마당 앞에 나온다. 꼭쇠는 험상궂게 생겼다. 남루한 푸른 두루마기를 걸치고 그 위에 각피를 띠고 방울을 달았다. 머리에는 종이수술을 얹는다. 양반은 수염이 길고 관을 썼으며 도포를 입었다. 손에 부채를 들고 긴 담뱃대를 문다. 거사는 탈을 쓴 머리에 고깔을 얹었다. 출연자들은 도청마당을 무대로 하여 장단에 맞추어 한마당 춤을 벌인다. 마을사람들(관중)도 흥이 나면 자유롭게 춤판에 끼어들 수 있다. 이 과정은 서막과 같다.

2) 길군악⁵⁰⁾과장

출연자들과 마을사람들(관중)은 달이 밝지만(정월대보름이 아닌 날, 비록 달이 뜨지 않은 때라 하여도 같지만) 여러 개의 횃불(또는 등불)을 켜서 선두에 들고 마을을 떠나 행렬을 짓고 길군악에 맞추어 북청읍으로 간다. 기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간다. 여러 마을에서 출발한 출연자들과 군중은 북청읍 남병영⁵¹⁾ 앞마당에 모여든다.

3) 경연과장

출연자들이 모여들 때까지 먼저 온 집단들이 장내의 분위기를 돋군다. 다 모이면 저마끔 승벽내기로 사자놀이를 벌인다. 통소, 해금, 피리의 조화된 사자닐리리에 팽매기와 큰북이 우렁차게 장단을 맞춘다. 무대에는 웅장하고 흥겨운 분위기가 가득찬다. 마을사람들도 사자가 춤을 추는데 어울려 마음껏 즐긴다.

4) 마을돌이과장

남병영 앞마당에서 승벽내기로 사자놀이를 한 뒤에 마을단위의 출연자들

50) 길군악은 길을 행진하면서 울리는 음악의 한 가지. 길-군악(軍樂)

51) 남병영(南兵營)은 북청에 있었던 병마절도사(지방주둔군 사령관)가 주둔하는 군영.

과 군중은 이어서 각기 호별 방문을 한다. 그리하여 마을돌이가 벌어진다. 앞장 선 꼭쇠가 찾아간 집의 어른을 만나 인사한다. 사자를 이끌고 마당 안을 신명나게 한바퀴 돈다. 장단은 사자닐리리의 초장인 ‘마당장단’에서 시작된다. 사자는 마당장단에 맞추어 동작이 느린 ‘넘놀이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윽고 반주는 사자닐리리의 중장인 ‘닐리리장단’(또는 승모장단)으로 넘어간다. 사자는 동작이 한층 빠른 ‘짚은넉두리춤’(또는 승모춤)을 춘다. 이 장면에서 용맹한 사자의 기상이 아주 뚜렷이 표현된다. 사자닐리리는 말장인 ‘건모리장단’(또는 영풍장단이든가 도드라미)으로 넘어간다. 음률은 한층 더 급해지고 북소리는 숨실 사이도 없을 만큼 격동한다. 사자는 날래고 재빠른 급한 동작인 환희에 넘치는 ‘건모리춤’을 춘다.

아이 하나가 마당 가운데 나온다. 사자가 달려들어 아이를 잡아 삼킨다. (남병영 앞뜰에서 놀 때는 관가에서 기생을 내여준다. 사자는 그때 기생도 삼킨다.) 희생자를 삼킨 사자는 곧 체기를 받고 병들어 쓰러진다. 점쟁이가 나타나서 사자가 무슨 병을 앓는지 점을 친다. 한편 꼭쇠가 달려가서 의원을 업고 들어온다. 의원이 긴 막대기침을 사자에게 놓는다. 사자가 소생하여 다시 흥겨운 춤을 춘다. ‘건모리춤’이 끝난다.

5) 마감과장

집주인의 요청으로 사자가 ‘바당문’(부엌문)으로 해서 ‘조양간’(부엌)으로 들어간다. 사자가 ‘조양’을 향해 세 번 절한다. ‘조양’에는 흔히 ‘성조’(집수호신)를 위하는 단지(쌀과 엽전이 들어 있다)가 있고 ‘조왕’을 표시한 ‘베 현 것’을 매어둔다. 사자는 거기서 눈에 뜨인 양푼이나 그릇을 입에 물고 밖으로 나온다. 집주인이 사자가 물고 나온 그릇에 음식물을 가져다놓고 술과 안주를 차린다. 사자는 한바탕 흥겨운 춤을 춘다. 이것으로 탈극이 끝난다.

8. 《조선예술》 수록대본⁵²⁾

북청사자탈춤은 이 지방에서 정월대보름을 계기로 추어졌다. 북청읍을 비롯한 이 지방의 거의 모든 마을들에서는 해마다 이 날이 오면 자기 팀의 사자를 앞세우고 읍내로 모여 사자탈춤 경연을 크게 벌리면서 근로인민대중의

52) 한태일, <사자탈춤> 《조선예술》 제10호, 문학예술출판사, 2009, 64~65쪽

충천한 기세와 집단력을 시위하였다.

3개의 춤마당 즉 초장, 중장, 말장으로 구성된 북청사자탈춤은 처음에 사자닐리리의 초장인 마당장단(긋거리장단)에 맞추는 넘놀이춤(느린 동작의 춤)을, 다음은 중장인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에 맞추는 빠르고 격동적인 춤으로 사자의 웅장한 모습과 위엄을 보여준다. 계속하여 말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자가 기생을 삼키는 장면, 기생을 삼키고 체기받은 사자를 의원이 막대기침을 놓아 소생시키는 장면 등 극적이야기를 보여준다.

북청사자탈춤은 이렇게 세 개의 춤마당으로 일단 끝나게 된다. 그러나 완전한 결속을 보는 것이 아니다. 기본춤마당에서의 사자탈춤이 끝나면 다음날에 개별적 사람들의 요청으로 집집을 다니며 그해의 풍작과 무병장수를 바래서 또다시 사자탈춤을 춘다. 결국 북청사자탈춤은 하나의 독립된 사자탈춤으로서 뿐 아니라 연 2일간에 걸치는 민속행사로서 성대히 추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자탈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독립된 형태의 사자탈춤이다. 북청사자탈춤을 위시하여 함주사자탈춤을 비롯한 함경도의 많은 사자탈춤과 경상도의 경주, 밀양지방의 사자탈춤(주지놀이라고도 한다)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가운데 오랜 기간 원형을 보존하면서 많이 추어졌을뿐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이 잘 짜여진 것은 북청사자탈춤이다...사자탈춤은 말 그대로 사자로 가장하고 춤추며 노는 탈춤인 것만큼 사자탈과 그 춤동작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한다. 사자탈은 대체로 두 사람이 쓴다. 지방에 따라 세 사람이 사자로 가장하여 거대한 사자를 형상하였다고 한다. 사자탈춤에서 주역을 노는 것은 언제나 사자대가리를 맡은 앞에 선 사람이다. 뒤에 선 사람은 앞에 선 사람이 주도하는데 따르며 그의 발자욱과 움직임을 보고 느끼면서 동작과 호흡을 맞추어간다. 사자탈춤은 오랜 역사로 보나 그의 인민적 성격과 춤놀이의 특색으로 보나 민속학적으로 의의가 큰 귀중한 무용유산으로 된다.

IV. 북청사자놀음의 남북한 변이양상

예로부터 한민족은 민속놀이로서 탈춤판을 만들어 놀았는데 인물탈춤, 귀면탈춤, 동물탈춤 그리고 그것이 혼합된 탈춤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사자탈춤은 동물탈춤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동물탈춤에는 호랑이탈, 소, 거북이, 학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사자탈춤이 가장 널리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사자탈춤의 역사와 유래는 여러 기록이 전한다.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 일본에 전파된 기악무에도 사자와 아이들이 어울려 추는 사자탈춤이 주요장면으로 등장한다. 신라 때 대표적인 향토오락을 창작한 고운 최치원의 향악잡영 5수에도 산예라는 사자탈춤이 나오며,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도 목우사자가 등장하고 있다. 고려 때 송만재의 관우희에서 사자춤을 본 기록이나 조선시대 수원화성 낙성식이나 김홍도의 평양감사환영도에도 사자탈춤이 등장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 지역마다 발생한 북청사자놀음, 해서탈춤, 산대놀이, 야류오광대 등 각종 지방탈춤에도 사자가 주요한 역할로 등장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자탈춤이 삼국시대에 성행하여 근대에 이르기 까지 오랜 기간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것을 보여준다. 같은 황해도 지역 탈춤이라고 해도 봉산탈춤과 강령탈춤의 놀이절차는 다르나 같은 해서탈춤의 큰 범주에 넣을 수 있다.⁵³⁾

함주사자탈춤을 비롯한 함경도의 다른 사자탈춤과 경주, 밀양지방의 사자탈춤도 그것이 추어지는 시기나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북청사자탈춤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탈춤으로서 그 자체가 완결성을 띠고 있다. 사자탈춤의 다른 한 유형은 극적줄거리를 가진 다른 탈춤의 한 장면으로 추어지는 형식이다. 그러한 사자탈춤에는 봉산, 강령, 서흥, 황주 등 탈춤고장으로 알려진 황해도의 탈춤들과 마산, 통영, 김해, 수영 등 경상도 오광대와 들놀음과 같은 봉건량반과 인민간의 대립감정, 승려의 부패타락을 주제로 한 많은 탈춤들에 나오는 사자탈춤이 있다. 봉산탈춤, 통영오광대, 수영들놀음의 사자탈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봉산탈춤에서 사자탈은 3과장 혹은 8과장에 나온다. 먼저 마부가 사자를 끌고 나와 춤춘다. 마부역을 때로는 목중(낮은 급의 중, 절간에서 화구를 맡아 보는 중)이 대신하기도 한다. 마부가 채찍을 휘두르면 사자가 성이 나서 날뛰기 시작한다. 사자의 기상에 겁을 먹은 마부가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나중에는 사

53) 김연희, <봉산탈춤과 강령탈춤의 놀이절차> 《조선예술》 제10호(루계 제634호), 조선문학예술총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 2009, 69~70쪽

자에게 먹히우고 만다. 통영오광대에서 사자탈춤장면은 4과장에 나온다. 포수가 먼저 등장하고 다음 담보와 사자가 등장한다. 담보와 사자가 싸우던 중 사자가 담보를 먹어 치운다. 이것을 본 포수가 총을 쏘아 사자를 넘어뜨린다. 포수가 기뻐서 춤을 추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자가 다시 일어나 춤추다가 퇴장한다. 수영들놀이에서는 사자탈춤이 3과장에서 추어진다. 말뚝이가 거대한 사자를 들고 나와 춤춘다. 여기에 범이 끼여들어 함께 춤춘다. 말뚝이가 자리를 내주자 사자와 범이 싸우다가 범이 사자에게 먹히운다. 이처럼 사자탈춤은 완결성을 띤 독립적인 사자탈춤과 일정한 극적줄거리를 가진 다른 탈춤의 한 장면으로 추어지는 것으로 그 유형이 갈라진다.⁵⁴⁾



1970년대 북청사자놀이 시연

필자는 1991년 7월 16일 북청출신으로 속초에 거주하고 있던 북청사자놀이 연희자로 앞서자인 김수석, 통소연주자인 김하륜 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김수석 용은 동명동 작은 판잣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김하륜 용은 금학동 산등성이 쪽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김수석 용은 필자에게 직접 앞서자탈의 동작을 시연해 보일 정도로 열의가 있었고, 속초동우대학 학생들도 지도한

54) 한태일, 위의 글 65쪽

다고 하였다. 김하륜 옹은 기억력이 좋고 놀이마당을 상세하게 구연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만든 통소를 불고 내게 녹음을 하도록 해주었으며, 통소 하나를 내게 주었다. 또한 과거 북청도청당시 사진과 김수석 옹과 함께 페그물로 몸을 만들고 종이를 붙이고 색을 칠한 사자탈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자탈은 마당의 향아리 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는 매우 나빠서 조속한 수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함남 출신인 속초문화원 지일권 원장과 최재도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하여 이 사자탈을 일부 손질하여 보관이 용이한 속초문화원 전시장에 옮겨놓도록 하였다. 이렇게 다시 세상에 햇빛을 보게 된 사자탈은 속초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문화재급사자탈로서 현재 속초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가 조사 당시 1957년부터 속초에서 행해진 북청사자놀음은 9곳거리 12마당이라고 하였다. 9곳거리는 ① 입장곡 ② 애원성곡 ③ 예구내딸봉섬이 ④ 연풍대 ⑤ 칼춤 ⑥ 사자춤초장 ⑦ 중장 ⑧ 말장 ⑨ 자유곡이다. 12마당은 ① 양반꼭쇠의 해학마당정리 ② 애원성노래 ③ 사당춤 ④ 무동춤 ⑤ 꼽새춤 ⑥ 칼춤 ⑦ 사자춤초장 ⑧ 중장 ⑨ 말장 ⑩ 승무 ⑪ 풍자 ⑫ 군무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른 이본에는 2마당 9거리로도 나뉘는데 첫째 애원성마당에는 ① 해학 ② 애원성(노래와 춤) ③ 사당춤 ④ 칼춤 ⑤ 무동춤 ⑥ 꼽새춤이 들어가고, 둘째 사자놀이마당은 ⑦ 사자춤과 승무 ⑧ 풍자 ⑨ 군무(넙두리춤)로 나뉜다.⁵⁵⁾

현재의 연희내용은 두 과장으로 나뉘는데 첫째 마당놀이과장에서 ① 마당돌이과장 ② 애원성춤과장 ③ 사당·거사춤과장 ④ 무동춤과장 ⑤ 넙두리춤과장 ⑥ 꼽추춤과장 ⑦ 칼춤과장, 둘째 사자놀이과장은 ① 사자춤 초장 ② 사자춤 중장 ③ 사자춤 말장으로 구성된다.⁵⁶⁾

본고에서 북청사자놀음의 변이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1950년대 자료는 참고로 활용하고 놀이마당, 등장인물, 춤사위, 장단 등은 근래에 북한에서 나온 《조선중세민간극문학》(2005), 《조선민속사전》(2004), 《조선의 민속전통》(1995) 등 비교적 차이가 많은 수록대본 세 가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55) (사)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대본》 확정판, 1979년 9월 3일

56) 전경옥, 《북청사자놀음 전수교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1996, 130~137쪽

속초 북청사자놀이

대 본 내 용	조선중세민간극문학 수록대본(2006)	조선민속사전 수록대본(2004)	조선의 민속전통 수록대본(1995)
놀이마당 (과장)	북청사자탈극 5과장 ①도청과장②길군악과장 ③경연과장④마을돌이과 장⑤마감과장	북청사자탈춤 6마당 (사자놀이3장) ①사자놀이초장②사자놀 이중장③사자놀이말장	북청사자탈춤 3장 ①첫장②중간장③마지막 장
등장인물 (가면)	나오는 탈 11명 ①사자탈②꼭쇠(꼭쇠:힘 상긱게 생김, 푸른두루마 기, 각띠, 방울달음, 머 리에 종이수술엮음)③양 반(수염길고 관을 쓰고 도포입음, 부채, 담뱃대) ④중⑤점바치⑥의원⑦굴 중(상모)돌리는사람⑧소 고든거사(2명:고깔쌈)⑨ 무동⑩아이(기생)	놀이군·춤군 7명 ①사자탈②꼭쇠③중④의 생(의원)⑤상모군⑥소고 든거사⑦무동	놀이꾼 8명 ①사자탈②꼭쇠(꼭쇠)③ 양반④중⑤의생⑥상모군 ⑦소고를 든 거사2명⑧ 무동
춤사위	①넘놀이춤②짚은넉두리 춤(승모춤)③건모리춤	사자춤	사자춤 ①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②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하 는 동작③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 는 동작④엎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찌는 동작⑤ 입을 크게 벌렸다다물며 소리가 날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⑥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 작

<p>반주음악</p>	<p>①사자닐리리곡②마당장단③닐리리장단(승모장단)④건모리장단(영풍장단, 도드라미)</p>	<p>①마당장단(굿거리장단) ②닐리리장단(타령장단) ③검모리장단(빠른타령장단)</p>	<p>①마당장단(굿거리장단) ②닐리리장단(타령장단) ③검모리장단(빠른타령장단) ①첫장:심산유곡에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②중간장:성년사자의 으르릉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 선율③마지막장:부정을 타승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형상</p>
<p>반주악기</p>	<p>장단재비 14명 ①피리4명 ②통소4명 ③팽매기1명④증(징)1명 ⑤새납1명⑥소고1명⑦큰북1명⑧해금</p>	<p>재비 7명 ①피리②통소③새납④팽과리⑤징⑥소고⑦북</p>	<p>재비 13명 ①피리4명②통소4명③팽매기④징⑤새납⑥소고⑦큰북 각각1명</p>



1980년초 설악동에서의 공연장면



1985년 10월 10일 속초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0회 설악제 공연장면



1988년 정월대보름 공연장면

북한에서 발간된 근래 민속예술 자료들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누락된 것이 많거나 각색되었다. 예를 들면 선정된 내용은 집체성이 있고, 노동과 직결된 것, 공산주의 주체사상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고, 신앙성이 강한 것, 미신이 라고 하는 속신적 내용이 많은 것은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전승에서 제외하였다.⁵⁷⁾

위의 도표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여도 사자놀음 중심의 북청사자놀음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5과장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전체 6과장으로도 행했으며 이 가운데 사자춤이 3과장 들어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행 북한의 북청사자놀음은 전체 5과장 가운데 경연과장에서 북청사자춤 3장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은 변화가 없으나 춤사위와 반주음악은 사자닐리리, 넘놀이춤, 검모리장단(건모리춤) 등의 용어처럼 남쪽과 다른 독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남쪽의 북청사자놀음은 마당놀이과장 7개 과장, 사자놀이과장 3개 과장으로 전체 10과장으로 놀이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지역은 5과장으로 축소되었고 사자놀음은 초중말 3개 춤마당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용어상으로도 일부에서는 ‘사자탈극’이라 하여 연극적·공연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자탈은 마당극 등을 포함한 탈극이라는 명칭과 달리 탈춤으로 한정하여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자탈극 대부분은 대사를 가능한 삭제하고 춤과 동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남쪽과 차이가 난다. 따라서 북한전승의 북청사자탈춤은 차춤 무대극으로 바뀌고 있으며 실제로 마당보다는 무대에서 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을 다녀온 중국연변지구의 학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홍수, 식량난 등 각종 재난으로 생활 조차 어려운 상태이므로 함경남도 각 마을에서 북청사자놀음의 실제적 공연은 행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2009년 10월에 발표한 한태일의 ‘사자탈춤’에 실린 내용은 초장, 중장, 말장 등 3개의 춤마당으로 되어 있다. 초장은 사자닐리리로 마당장단(굿거리장단)에 맞추는 넘놀이춤(느린 동작의 춤), 중장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에 맞추는 빠르고 격동적인 춤으로 사자의 웅장한 모습과 위엄을 보여주고, 말장은 사자가 기생을 삼키는 장면, 기생을 삼키고 체기받은 사자를 의원이 막대기침을 놓아 소생시키는 장면 등 극적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한다.⁵⁸⁾

북한전승의 함경도 지방 탈춤과 황해도지방 탈춤은 지역적 풍습이 반영되

57) 최인학, 《북한의 민속》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6, 40쪽

58) 한태일, 〈사자탈춤〉 《조선예술》 10월호, 문학예술출판사, 2009, 64~65쪽

고 있는데 고유한 춤가락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⁵⁹⁾ 즉 황해도 지방의 민속무용들은 느리고 서정적이며 흥취있는 성격을 가지며 그것은 어깨를 으쓱으쓱하거나 팔을 너울너울하는 상체동작에 의하여 표현되지만, 함경도지방은 일반적으로 활달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것은 역량이 강한 굴신과 손동작에 의하여 표현된다고 본다.⁶⁰⁾

사실상 북한전승과 속초전승의 북청사자놀음은 동일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분단이후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전쟁이후 함경남도 월남민들이 원형전승을 지속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남한에 반해 북한은 북한정권 등장이후 교시민속으로 무대화과 이질화, 소멸화의 길을 걷고 있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남한에 전승되고 있는 북청사자놀음이 분단이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전승상 원형이 남쪽 속초지역에 있음을 적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함경남도 실향민의 제2고향이며 분단이후 남쪽에서 북경도청 설치 후 북청사자놀음의 최초 전승지인 속초지역이 전승중심지로 부각되어야 할 명분이 뚜렷하다고 하겠다. 현재 속초에는 피난민 1세대로서 1957년 북청사자놀음을 최초 공연했던 김수석, 김하륜 두 분은 작고했으며 신겸, 변경일, 김철섭 씨 등은 생존하여 북청사자놀음 원형을 고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분들의 고증을 중심으로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승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발전전략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59) 황해도 해서지역의 봉산탈춤과 강령탈춤 사이에도 가면이나 차림에 의해 차이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김연희, <봉산탈춤과 강령탈춤의 가면, 차림> 《조선예술》 11월호, 문학예술출판사, 2009, 73쪽

60) 박영현, <민속무용의 계승발전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예술》 10월호, 문학예술출판사, 2009, 56쪽

V. 속초북청사자놀음의 기예능전승자(단체) 현황

1. 김수석(金壽石, 1907.7.19~1997.10.10)



김수석 옹은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실질적 전파자요 기예능보유자다. 김수석 옹은 북청군 죽평리 태생으로 13세부터 사자놀음에 참가하였으며, 남북한에서 공히 사자 앞사자 역할을 맡았다. 월남이후 속초에서 거주하면서, 북청사자놀음이 함경남도 북청출신이 가장 많이 거주한 속초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분이다. 1957년 당시 50세로 속초에서 최초 북청사자놀음 공연을 주도했고, 1966년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북청사자놀음의 연기로 개인상을 받았으며 1967년 북청사자놀음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1971년 김수석 옹은 기예능보유자 제84호로 지정된 이후에도 줄곧 속초 땅을 떠나지 않고 서울의 공연을 다니거나 제자들을 육성하였다. 필자가 1991년 영랑동에서 몇 차례 만났을 당시 작은 키지만 넘치는 활력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북청사자놀음의 전승과 정착에 많은 애를 쓰고 있었다. 설악문화제에도 참여하여 공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본인이 만든 사자탈을 직접 보여주는 등 복장과 연희내용 등을 상세하게 고증을 해 주었다. 속초지역에서는 실향의 상징으로 갯배, 수복기념탑, 공원묘지를 꼽고, 실향의 형상화로서 명태, 오징어, 북청사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북청사자놀음 기예능보유자 앞 사자역의 김수석 옹이 통일의 염원과 분단의 한을 품고 90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자놀음은 여전히 필자의 뇌리 속에서 오랫동안 울고 있다.⁶¹⁾ 청호동, 그리고 북청사자는 실향과 분단의 한국

61) <북청사자 아바이김수석> (1998. 4. 19, 장정룡 작시) “무스그 고향? 함경남도 북청읍 죽평리, 열 댓살 때 앞사자 하다가 서리 피난 나왔지비/ 1997년 10월 10일/오늘 그는/유난히 기침이 심해/손때 묻은 갯배 머리에 사자 등을 대고 말았다/오십년간 앞사자 마냥 오통하게 건너던 갯배/지독한 현기증에/초중중장 사자놀이도 끝났다/청호동 아바이 그는/날머리 백사장에 판자로 벽을 붙이고/고향 이바구로 도배하고 살았다/안방 문밖 바로 큰 길가/언제든 맨발로 고향 달려갈 꿈길에서/떠나올 때

적 상징물이다.⁶²⁾ 북청사자놀음의 속초정착에 애착을 갖고 부단하게 노력했던 김수석 옹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나 그 분의 유지는 계속 후세들의 과제가 되고 있다. 김 옹이 지난 1991년 필자에게 들려준 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수석:내가 지금 애원하는 거는 내가 하여튼 여생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고, 하여튼 나는 언제든지 속초에다가 이 사자를 좀 후배를 맡겨 놓자 하는 이런 기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나오는 학생들만 모조리 해주면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말ियो, 아즉까지는 건드러지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가르칠 수 있다이.

2. 김하륜(金河倫, 1914~2008, 작고)



김하륜 옹은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의 정착을 이끌어온 실질적 지도자다. 그러나 기예능보유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한평생을 마쳤다. 큰 체격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사자놀음에서는 통소를 불었고, 돈돌라리 민요를 잘 불렀다. 변경일 씨의 부친으로부터 통소를 지도받았다고 전한다. 1959년 속초의 북청동향친목계원명단에 보면 당시 김하륜(45세, 신북청면 양가리)로 기록되어 있다. 김수석(52세, 죽평리)보다 연세는 7세 적으나 당시에 북청동향친목회 회장을 맡고 있었고 북청도청의 건립과 북청사자놀이 속초복원과 정착에 노력해왔다. 필자는 1991년 금호동 야산 아래 거주하고 있던 김하륜 옹의 자택을 방문하여 녹음조사를 할 당시 76세의 고령임에도 기억력이 뚜렷하였고 직접 통소를 시범적으로 불었으며 전승의지가 확고하였다. 자택에는 김수석 옹이 만든 사자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직

묻어온 흙 내음/한 몸 뺏가루 바다에 뿌릴 때 쉬어주시게/애원성 소리 끝자락/통소구멍 속에 멍하게 흠어지는 아픔을/돈돌라리 돈돌라리/동틀날 다시 돌아와 살아날 때, 불러주시게/나는 북청사자다/그는 포효도 없이/어디서도 제대로 사자 놀리지 못한 채/떠나올 때처럼 그렇게 혼자/우리 곁을 떠났다 /1907년 7월 19일생, 중요무형문화재 15호/북청사자놀이예능보유자”

62)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이 전승실태조사> 1991년 7월 16일,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198~216쪽, 장정룡·김무림,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장정룡, <북한 지역 북청사자놀이> 《속초문화》 23호, 속초문화원, 2007, 141~154쪽

집 여러 개의 통소를 제작하였다. 필자에게 주셨던 손수 만든 통소는 현재 속초시립박물관에 전시보관하고 있다. 김용은 고향을 가보시지 못하고 속초에서 노환으로 타계하셨지만 북청사자놀음 전승에 끼친 열정과 노력은 제2의 고향 속초에서 그 빛을 계속 발할 것이다. 참고로 2007년 5월 18일 속초문화원의 홈페이지 문화소식에 실린 김하륜 옹의 소식을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12일(토요일) 저녁, 도리원 농악 연습이 끝나가던 6시경에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하륜옹께서 북청사자놀음에 관련된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속초문화원은 지난해부터 북청사자놀음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김하륜 옹은 북청도청회장을 지낸 분으로 지난 1957년부터 재현된 북청사자놀음의 원형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북청사자놀음에서는 통소잡이를 하신분이기에 누구보다 만나고 싶었지만, 올해 연세가 아흔 둘인만큼 워낙 고령이어서 마음만 졸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초문화원 직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김하륜옹의 덕에 들어서니 흥겨운 통소가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알고 보니 30년 전에 녹음한 북청사자놀음으로 그동안 몇 번에 걸쳐 재녹음한 테이프였습니다. 물론 이 테이프도 저희들을 위해 준비하셨더군요. 김하륜 옹은 연세보다 훨씬 정정한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끝나고, 저희는 준비한 녹음기로 김하륜 옹의 말씀을 녹취했습니다. 김하륜 옹께서 저희들에게 전달한 자료는 직접 만드신 통소 2개, 1980년대의 팸플렛 2부와 녹음테이프였습니다. 통소를 건네시면서는 꼭 갈대청을 다시 붙이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실 만큼 애정과 아쉬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밖에 속초에서 펼친 북청사자놀음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앨범 한권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앨범에는 초창기의 사자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어서 '원형복원'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하륜 옹의 한마디가 저희를 숙연케 했습니다. 당신께서 끝내 북청사자놀음을 전파하지 못하신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잘못했어, 정말이지 그때 잘못했어”를 힘들게 말씀하시는 옹의 안타까움이 저희들에겐 질책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해오고 있는 '북청사자놀음전수' 사업도 이런 일의 연속입니다. 시립풍물단이나 신천무용단같은 프로예술가들과 문화학교의 수강생이신 어머님들, 직장을 따로 두고 있는 평범한 생활인까지.....화요일 밤마다 서울의 선생님들에게 북청사자놀음을 전수받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생활 속에서 예술을 실천하고 문화를 만드는 '생활예술인'입니다. 이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청사자놀음'을 전수하게 된다면, 우리 속초의 문화 토양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희를 직접 불러 당신의 삶과 함께 해왔던 소중한 물건을 전해주시는 김하륜 옹의 안타까움이 지워질 것입니다.

3. 신겸(申謙, 남.87세, 1933~)



신겸 옹은 현재 생존자로서는 최고령으로 북청사자놀이 속초전승의 유일한 1세대다. 1957년 초창기 속초북청사자놀이에 연희자로 참가했던 연희자로 사자:김수석(앞채, 애원성)·(뒷채 ·오동술) 양반:이종욱, 꼭쇠:양계건, 사당춤:박씨, 의원:장남우, 승무:김봉수, 총각:김원사, 곱추:마유득, 도깨비:김효환, 중국인:이종호, 악사:변무성(통소), 박진환(통소), 이재섭(통소), 김하륜(통소), 마방섭(북), 이종준(징), 신겸(장구) 이 외에도 길잡이 놀이패 수 명 참가하였다. 신옹은 당시에 장구를 쳤으며 양반역도 맡았으며 양반복색과 당시 연희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구술하였다. 현재 속초북청사자놀이의 유일한 생존 1세대이며 최고령이므로 시급히 기예능보호자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변경일(남.78세)



북청출신 1세대 부친 변무성으로부터 통소와 양반놀이 등을 배웠다. 북청출신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지에 나가 있으므로 1982년에는 전문대학 학생들을 김수석 보유자가 지도하여 대학축제에 공연하였으나 북청도청에서 주관하여 공연한 것은 1981년 9월 가을맞이 새마을대예술제 참가를 끝으로 전승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당시 연희자로, 사자에는 김수석(앞채), 김덕용(뒷채), 양반에 변경일, 꼭쇠 황남극, 총각 김원삼, 사당 박씨(여성), 의원 장남우, 승무 김봉수, 중국인 이종호가 맡았다. 악사는 통소에 이재섭, 김하륜, 북은 백하규, 징은 유춘산 등이 담당하였다. 변옹은 1981년도 설악문화제 때 북청사자놀이를 중앙초등학교운동장 공연하면서 양반역을 맡았다. 변옹의 고증에 의하면 1980년대에 들어서 속초에서는 새끼사자 만들자고 해서 두 마리

로 공연을 시작했다고 한다. 북청사자놀음 속초전승 2세대로서 1980년대 전승자로 부친인 1세대와 연계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존하는 중요한 연희자의 한분이다.

5. 김철섭(남.73세)



김철섭 옹은 함경남도 도민회장 등을 맡아 활발하게 지역봉사와 도민화합에 앞장서온 분으로 북한에서 연희된 북청사자놀음을 보았고, 이후 속초에서 공연할 당시 그 전승에도 기여하였다. 연세에 비해 정확하고 뚜렷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어서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승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보자이다. 속초사자탈제작과 놀이마당, 속초북청도청 상황 등을 구술하였으며, 북한의 북청사자탈 제작과정과 속초북청사자탈 제작당시 상황과 놀음을 고증해 주었다. 재속초 함경남도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폭넓은 지역 활동으로 북청사자놀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동선본(남, 52세), 동선백(남, 54세)



북청사자놀음을 오랫동안 전승해온 대표적 계승자들로서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2005년부터 속초지역의 사자놀음 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동선본 씨는 지난 1973년대 초등학교 5학년부턴 당시 월남한 북청출신 1세로부터 전승받았다.

1982년 이후 김수석 기예능보유자로부터 속초사자놀이를 자세히 알게 되었

고, 1986년도부터 속초 현지에 함경도 민요조사차 왕래를 하면서 김하륜, 김창섭(단천)씨 등을 만나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수석 기예능보유자와 서울공연을 하는 등 북청사자놀음의 전승에 노력하였다. 1990중반부터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이의 복원의지가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 동선본 씨를 중심으로 문화원에서 전승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동선본, 동선백 씨는 북청사자놀음의 등장인물, 복장, 연희내용 등의 변화현상 등에 대해서 고증을 해주었으며, 열정적으로 북청사자놀음의 정착을 위해 전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북청사자놀음의 사자와 통소연주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연희자로서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승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7. 속초문화원, 속초시립박물관 풍물단

속초문화원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속초북청사자놀이보존회를 결성하여 전수에 노력하고 있다. 이 보존회는 속초시립풍물단원, 함경남도 청년회원, 시민들은 매주 북청사자놀음을 배우고 있다. 속초에서는 속초문화원이 2005년 속초 고유의 민속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갯마당, 함경남도 청년회,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속초북청사자놀이 보존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은 사자놀음을 비롯해 녀두리춤, 꼬추춤, 사당 거사춤, 칼춤 등으로 구성됐다. 전수단 지도는 북청사자놀이 전수조교인 동선본·동선백씨가 맡으며, 통소반(5명), 연희반(5명), 사자춤반(5명)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문화사랑방에서 진행된다. 전수단은 2005년 결성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회 공연을 가졌다. 이와 같이 속초문화원에서는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속초시립풍물단원들은 정기적으로 사자탈춤 배우기, 통소불기, 돈돌라리 민요를 배우고 있으며, 지역민속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향후 속초문화원과 속초시립박물관에서는 모두가 기대하는 주말 상설공연무대를 만들어 실향민문화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지역관광자원화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⁶³⁾

63) <설악신문> 2010년 10월 26일 엄경선 투어설악닷컴 대표 '북청사자놀이 상설공연을 기대하며' (기고)

VI. 맺음말

함경도의 대표적인 탈춤인 북청사자놀음은 남북분단이후 50년 넘게 속초로 옮겨 정착하였다. 황해도 은륜탈춤이 연희자의 월남이후 본거지를 인천으로 삼고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듯이, 북청사자놀음의 속초정착 이후 월남 실향민들에 의해 새롭게 전승발전하고 있음은 통일한국의 전도에 있어 희망적인 일이다. 또한 속초시에 조성된 북한 실향민문화촌과 속초문화원을 중심으로 실향민 후세대들에 의해 사자놀음이 전승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수회를 열고 발표회를 갖는 등 함경남도 실향민의 집거지역인 속초지역이 사자탈춤 본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민족 스스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하면서 사상적 대립과 문화적 괴리는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고, 고유한 민족문화는 이질화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의 함경도 지역은 1930년대까지 사자놀음의 발상지였으나 1950년대 이후 북한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놀이적 고유성과 전승적 원형이 훼손되었고, 현재는 교시적 주체민속예술이 되고 말았다.

앞에서 우리나라에 전승된 북청사자놀음 자료를 1930년대부터 필자가 속초에서 조사한 1991년도 자료에서 파악하였듯이 북한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 그 원형성을 유지하고 있음에 알 수 있다, 반면 북한지역의 북청사자놀음은 1990년대부터 마을단위로 자발적이고 원형에 입각한 토착적 형태의 사자놀음은 사라지고, 북한의 교시적 민속놀이화하여 변질된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45년 이래 남쪽은 북청사자놀음 탈과 놀이, 춤사위에 있어서 분단이전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북쪽지역의 북청사자탈놀음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함경남도 출신들이 집거하고 있는 속초청호동 아바이마을은 분단이후 함경도지역 민속문화의 보고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함흥냉면, 명태순대, 젓갈 등 함경도 음식문화와 함께 그들의 방언이 사용되고 어로요가 불리며, 그들의 사자탈놀음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므로 속초청호동은 이른바 남쪽의 함경도라고 불릴 만하고, 함경도 민속의 보고라 하겠다.

이번 현지전승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망한 김수석 기예능보유자

와 통소명인 김하륜 옹 이외에 전승 1세대인 신겸(남.87세), 변경일(남.78세), 김철섭(남.73세) 씨 등을 찾아냈으며, 이들로부터 속초북청사자놀이의 전승과 정착 등에 관하여 자세한 조사를 하였으며 전승계보와 전승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북청사자놀이의 최초국내 정착지인 속초지역에서도 동선본 씨를 중심으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속초문화원과 속초시립박물관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최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교시적 사자탈극 또는 경연식 무대극으로 변화된 북청사자놀이의 원형복원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나, 함경도민과 이북5도민의 제2고향인 속초지역에서는 전승 사자춤 원형을 견지하여 기예능보유자의 육성과 보존회 구성, 상설공연장 설치와 아시아권 사자놀이비교연구 등을 통해 분단이전의 사자탈놀이 원형전승과 국제화에 매진해야 하겠다. 따라서 속초북청사자놀이의 전승 1세대인 김수석, 김하륜 옹의 구술을 바탕으로 현존 연희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승과 문화재지정 및 원형복원작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단의 일변지인 강원도에서 함경남도 실향민의 제2의 고향인 속초지역이 한반도 사자놀이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명분은 충분하다. 이는 실향민의 한을 풀어주는 민족사적 과제인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실향 1세대의 한이 담긴 사자춤의 포효와 호방한 춤사위를 통해 민족분단의 한을 뛰어넘어 통일한국을 지향해야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실향민의 한이 서린 망향의 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통일한국을 평화통합 발전을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도시로 속초지역이 거듭나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북청사자탈춤의 원형을 전승복원하고, 그 전승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당위성과 역사문화적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속초사자탈춤의 정착과 그 전승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계획이 수립되어 함경도에서 월남한 실향민 최다집거지역인 속초지역의 실향민문화 전승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부록1] 속초북청사자놀이 현지구술조사자료(2010년)

[구술자료 1]

- 조사일시: 2010.12.17(금) 오후 13: 20~14:00
- 조사장소: 속초시 중앙동 1통 5반 북청천막사
- 제 보 자: 신겸(남, 87세, 1933년생)
- 조 사 자: 장정룡, 송성진, 김은경

조사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 겸: 신겸, 33년생. 고향은 북청이지.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주평리

조사자: 예전에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북청사자놀이?

신 겸: 사자 아니야? 이거 우리가 올렸을거야. 원래 이거 우리가 만든건데
사람은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네.

조사자: 예전엔 아는 분들이 누구누구 계셨어요?



신겸: 예전엔 많았어요. 이십 한 칠팔 명 됐었어요. 그런데 이름 잘 몰라요. 김수석이, 김하륜, 변경일, 오동술이... 일일이 다 못 외워. 다 돌아가고. 난리가 끝나고 여기 나와서도 한 10년 있었어. 여기 사자가 우리가 만든 거여. 우리가 올려 보냈어. 나는 양반질 했어. 북청사람들이 기부받았지, 도청 땅을. 도청에 사자도 보관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간지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서. 그 사람들도 없고. 사자는 서울 올라가고. 통소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

조사자: 사자놀음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신 겸: 속초에서 시작했지. 사자놀이라 해가지고. 명절날, 설날에 보름날이 있거든. 원래 이북에서 보름에 유래했어요, 사자놀이는. 설날보다 보름이 더 귀했어. 왜 그러냐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하니까 사자 만들어 놀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지.

조사자: 걸립굿도 하셨어요?

신 겸: 아니. 청호동에서 몇 집 오라해서 갔고. 고향사람들 많거든. 신창 이런 사람들. 몇 집만 다닌 거네요. 걸립은 안하시고.

김철섭: 그때 당시 공연하러 서울 올라가지 않았어? 그 사람들 더러 속초 내려와서 놀았지.

신 겸: 몇 번 우리 노는 거 봤지. 그 서울 사람들이 북청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울로 가져갔어요. 우리도 줬고. 서울 사람들이 가지지 모임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자를 올려 보냈지.

김철섭: 가지라는 말은 금방이라는 말이야. 함경도 사투리로.

조사자: 정월 보름날 말고도 통소 불고 많이 놀고 그러셨어요? 사진도 봤는데요.

김철섭: 그런 보름에 밤에 추우니까 집안서 놀기도 하고 마당서 놀기도 하고. 청호동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조사자: 몇 년까지 놀고 그러셨어요?

신 겸: 가만있자 우리가 몇 년도에 나왔더라? 내가 서울 군에 있다가 제대 했어요. 속초에 와서 한 칠팔 년 했어요. 하다가 지지부진해지니까. 사람도 죽고 헤어지고 하니까 서울도 올라가고. 나머지 악기들은 다 친구들은 서울 가져갔어. 여기서 노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조사자: 그 후에 여기서는 안 했어요?

신 겸: 그 후에 속초에서 몇이서 모아가지고 했지.

조사자: 이 사진에 여기 이 사자 얼굴 좀 보세요. 그때 만들어 놀던 사자 얼굴은 아니죠?

신 곁: 이건 좀 달라요. 우리 거는 더 무수웠어(무서웠어). 만든 사람이 수석이라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웠어. 이거는 서울사람들이 다시 만든거야.

조사자: 속초 하실 때 양반이 있었고, 껍쇠가 있었고...

신 곁: 껍쇠도 있고, 춤추는 여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전부 북청 여자들인데 많이 했어요.

조사자: 칼춤은 추셨어요?

신 곁: 없었어.

조사자: 사당춤, 넛두리춤은 했어요?

신 곁: 그런 건 했는데 다 잊어버렸지요.

조사자: 의원이 있었어요?

신 곁: 의원이라는 거는 노는 마당 좀 나아놓고 북청사자 데리고 오고 이래시켰지요. 정해진 건 아니고.

조사자: 중국인도 나온다는데...

신 곁: 중국 사람들도 나왔지요. 이래 땡기면서 어디 논다 하면 정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북에는 없었어. 이거 만들어서 어떨라 그래요? 배경 알라 그래요?

조사자: 네.

신 곁: 북청도청에서 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 그 사람들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조사자: 정월달 빼고는 언제 노셨어요?

신 곁: 정월달 빼고는 논 거 없어.

조사자: 양반 하실 때 역할 좀 알려주세요.

신 곁: 양반이라는 거는 그저 총 지휘하는 거야. 오늘 아무 부락에 가 놀자, 이려고. 인원이 서너 너댓밖에 안됐어요. 장기 치고 춤 치고 그런 거지요. 고향 사람들을 많이 모았지요. 통소, 여꼬에가 있고. 주로 통소가 좌우를 했어요.

조사자: 혹시 하다가 통소만 부를 때만 없어요? 춤추는 사람 없이 통소만 하는...

신 곁: 김하륜 그분이 통소를 아주... 여꼬에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갔고.

조사자: 양반탈은 있었어요?

신 곁: 우리가 만들었지요. 이북에서 없어. 만들었어. 토지, 문종이로 만들었어. 수염도 붙이고 빨난 모자도 다 만들었지. 토지로 뺏뺏하게 만

들었지. 모자는 흰 색이었어. 흰 색인데 그림은 지원해서 그렸어. 통소 부는 사람은 고깔모자. 옷은 두루마기를 만들었어요. 도청에서 만들었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흰색.

김철섭: 아주 흰색은 아니야. 삼베, 아이보리색이야.

조사자: 색띠는 안 매셨어요?

신 곁: 안 맺어. 이북에서도 없었고.

[구술자료 2]

- 조사일시: 2010. 12.8(수) 16:30~18:00
- 조사장소: 강원 속초시 청학동 483-32 용지물포
- 제 보 자: 변경일(남, 78세)
- 조 사 자: 장정룡, 송성진, 김은경

조사자: 언제 속초로 오셨어요?

변경일: 북에서 열여덟에 나왔어요. 지금 78세예요. 그때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왔어요. 속초 있으면서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자랑 같이 한 분이 살아계신데 치매 걸려서. 그때 사자놀이하는 2세를 양성했어요. 돈을 쥐서 키웠지요. 15명밖에 안 됐어요. 2세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유, 작은 아버지가 수고하셨지요. 캄캄하지요. 바다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북청군민회가 속초에서 제일 잘 됐는데. 다른 군민회보다 잘 됐는데. 사람들 기질이 잘 되니까 이것저것 있어서. 뭐 알아야 생활하지 않아요? 북청군민회 고문 됐다가... 2세들은 부모들은 아니니까 고향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고문도 그만두고 이렇게 했지요. 지금 현재 와보니까 나이가 금방 들었지 싶은 거예요. 통소, 장구, 북, 징, 팽과리, 소고. 우리가 한때는 고향에서는 했지만.

조사자: 고향에서는 언제 사자놀음을 하셨어요?

변경일: 1958년인가 57년도에 사자놀음을 했어요. 아버지가 통소를 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연습하고. 통소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웬만해서는 소리가 안 나요. 나는 변경일이고 아버지는 변무성(변문수)예요. 김수석

씨 살아계시면 102세쯤 될 거예요. 닭띠. 여기 나오면 띠를 찾는데 돌아가신 분이 닭띠예요. 그 분 아들이 먼저 나왔는데 찾지 못하고.

조사자: 사자놀음은 주로 언제 합니까?

변경일: 경연대회는 할 수 없이 낮에 하지만 원래 사자놀음은 밤에 해요. 아이들도 사자가 짹-짹-하면 도망가고요. 온 집안이 다 편하다 그래서 해요. 그때 제가 군대 갔다 휴가를 오는데 속초 어업장 근처예요. 부둣가에서 사자놀이를 하는데 아버지가 알면서도 아는 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봐도 판을 깰까봐 아버지는 그냥 놀음하고. 신아홉에 돌아가셨는데 김수석 씨만 처음 등록되었어요.

조사자: 서울에 사자놀음이 있잖아요?

변경일: 원래 속초에서 하던 것이 서울에 가게 된 거예요. 서울로 자꾸 올라가고 올라 가고 그랬는데. 여기서 자꾸 올라갈 수 없어서 서울에 넘겨준 거예요. 그게 함남대표로도 나가고 여기에서도 그 후에도 하고. 엑스포 때에도 99년에도 하고.

조사자: 속초에서 사자놀음은 언제까지 했나요?

변경일: 고향 사람들은 다 알지만. 시숙되는 사람도 있었고 다 돌아가시고 이사 가고. 동우전문대에서 한다고 했는데 2년제니까 안되더라고요. 경동대는 4년제라서 될 텐데. 그거 몇 번 배운다고 되나요? 여기서 놀음은 58년도에서 82년도인가 그때 완전히 끝났을 거예요. 새마을 협의회장할 땐데 제일극장에서 81년, 82년 그 사이에 시 협의회장에서 공연했어요. 하고나서 그 다음에 자꾸 세상 뜨니까.

조사자: 사자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변경일: 사자무리 두 개가 있었어요. 풀로 붙여서. 뒤는 원채 만들어 그물 저인망 그거 색깔 들여서 했지요. 이게 지나니까 좀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 소각했어요. 그때가 82년도 됐을 거예요.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놀음이 바뀌고 해요. 경연대회 때 자꾸 수상할라고 사자 모양을 자꾸 바꾼다고. 놀음하는 것도 좀 바뀌고 사자 모양도 바뀌고. 도깨비는 없었어요. 언제 생긴 지 몰라요. 이걸 (사진을 보시면서) 81년도인가 83년도인가 사진인데 내가 그때 양반역을 했어요. 중앙초등학교예요. 여기가. 80년대에 들어서 새끼사자 만들자고 해서 두 마리로 공연 시작했지요. 모형 만드는데 소질이 있어요. 김효환이라고. 생존했으면 90이 거진 다 될 건데 작고하고 없지요. 사자탈은 그물에 물들인 거예요. 현 옷 같은 거를 짜게(찢어) 가지고 붙여서 물들여가지고 탈처럼 만들고.

조사자: 사자놀이 하실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변경일: 북에서 학교 다닐 때에도 딱 음력 초아흐렛날 열흘날에서 일주일, 길게는 열흘 해요. 정월에 모든 액원을 물러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게 하는 거지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통소 불면 우리 집에 오라고 돈 놓고 쌀 놓고 상에다 차려놓고 무당이 온 것처럼 그래요. 아이들은 미리 치워야 돼요. 비키라 해야 돼요. 애들이 무서워서 깜짝 그런단 말이야. 밤에 얼마나 무서워 사자가. 그래서 그러지. 방울 달고 사자가 세가(혀가) 빨긴 게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 승무는 여자가 하는데 참 춤을 잘 추는 부인인데 이제 80이 넘고 치매가 와서 참 아깝지. 그 사람 춤 났다하면 기가 맥히지. 박삼손이라고, 승무하던 여자가. 여기서 아야진, 간성, 대진까지 갔어요. 차로 중간 중간 가면서 술도 좀 마셨어요. 그래야 잘한다고. 거진서 대진 갈 때 “야, 한잔 하고 가자.”하기도 했어요. 노인들이 많이 한 것은 5,60년도 70년도 가까이까지는 많이 했지요. 살아계셨으니까. 저는 운영관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나도 사자 앞을 몇 번 써보기도 했는데 힘들어요. 양반도 하고. 신창은 같은 북청군인데 왜정 때 18개 읍면이었고 지금은 줄었지요. 여자들은 고기 때기는 노래도 하고. 사자 원뿌리는 농촌에서 발기된 거예요. 신창은 바닷가라서.

조사자: 사자놀이 의상은 어땠나요?

변경일: 옷이 옛날에는 양반은 회색인데 고깔 이런 거 쓰고 허리띠 검은 거 매고, 신은 짚신 신고. 그러다가 멀리 나가면, 신랑 결혼할 때 검은 거 신잖아요? 그거 신고 멀리 나가서 공연하고. 도청 앞 시립문화원에서, 옛날 김희갑이 살아있을 때 개관식하고 3일 밤 동안 공연했어요. 춘고 학생들이 밤에 양쪽에 횃불 들고 짝, 다 여기 사람들이 2,30명 올라가가지고. 이후에 서울에서 공연 내려오면, 이근화선씨가 여기 오면 꼭 만나지요.

조사자: 고향은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변경일: (노래부르며) “모래청산에 돈돌날이 돈돌날이” 모래산이 우리집에서 200미터 거리예요. 함남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 해변이 모래청산이에요. 왜정 때 일문화 퇴치시키기 위해 부른 겁니다. 여기 남대천처럼 강이 흘러요. 왜정 투쟁을 많이 했어요. 거긴 모래가 많았어요. 통소는 냇두리, 애원성, 초장, 중장, 말장 순서가 다 있어요. 김하룬

그 분도 저희 아버지에게 통소 배우고, 옆으로 부는 통소보다 아래로 부는 통소가 소리가 좋아요. 갈대, 가을에 갈대 있지요, 그 속에서 빼내는 청이가 제1번이에요. 재 있지요? 불 땔 때 재. 재를 문혀 비벼서 이러이러하면 모양이 생겨요. 그걸 붙이면 소리가 아주 좋아요. 나는 딸이 서이고 아들은 하나예요. 이남에서 나와서 군 생활도 많이 했고. 연대 계장으로 36개월 앉아 있으니까 그래 힘든 건 안하고. 8240부대. (사진첩 표지를 보며) 그때 동문성 속초시장이었지요. 동문성 속초시장은 단천출신이에요. 거기 사람이예요. 북청사자놀음은 다 북청 사람들이 해요. 북청 사람들 자손들이예요. 서울서 하는 것도.

[구술자료 3]

- 조사일시: 2010.12.17. 금. 10:00~12:40
- 조사장소: 속초문화원
- 제 보 자: 김철섭(남, 73세, 1937년생) 속초시 중앙동 468-32
노광복(남, 67세, 1943년생) 속초시 중앙동 468-142
- 조 사 자: 장정룡, 송성진, 김은경

조사자: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철섭: 김철섭. 1937년생. 주민등록상 40년생으로 돼있어.

조사자: 이북에서 어디 사셨어요?

김철섭: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읍 만춘리 2구 513번지.

조사자: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는 북청사자놀음이 예전에 사자놀음하고 어떤 지?

김철섭: 시대적으로 봐서 많이 바뀌었어. 내가 봐도 한 땀까지는 바뀌었어. 예전에 속초에서 하던 것과 비교하면 한 세 가지 정도 바뀌었고 내 고향 어릴 적 본래 적 본 것과 한 땀 가지 바뀌었어. 내가 사자놀음은 여섯 살부터 알았어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북청사자놀음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몽고에서 들어왔어요. 몽고에서 중국으로 해서 만주로 해서 요동반도 그쪽에서 북청이란 곳으로

들어왔다고. 북청에서 하다가 우린 피란 나왔고. 1950년도 12월 7일 날 피란 나왔고. 나와서 저희들과 참으로 그야말로 우리 부친도 북청사자놀이에서 통소를 불렀다고. 다 돌아가셨지만. 정월초하룻날에 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요. 동네서. 돼지를 잡아요, 한 중돼지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많이 따라 댕겼어, 어렸을 때부터. 동네마다 해비는 데가 있잖아, 서낭당 그런데서. 어렸을 때 쫓아 댕기면서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정성들여 고사를 지내. 집집마다 마음이 좁 그런 사람은 못 오게 맨들고 우물에도 못 가게 그렇게 엄하게 했다고.

우리 동네가 한 300곳 되는데 50프로는 어민이고 50프로는 농민이래요. 저희는 농사짓다가 나왔기 때문에 바다내막은 깊은 잘 몰라요. 그래서 고사를 지낸 다음에 정월 초하루날에 정월 보름 고사에 하는데 리가 1구 2구 3구인데 우리 동네는 2구고. 우리 동네는 만춘, 대만춘이야. 형이 거 살다가 동생을 분가시켜준 게 소만춘이야. 그래서 거기는 만춘리 1구고 우리는 만춘리 2군데 옛날에는 대만춘 소만춘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대만춘 거기는 20호 돼요. 거기가 동생들하고 살림하다 커지니까 고개 너머는 소만춘. 소만춘이 커지니까 국민학교가 거기서 생긴거요. 3구가 석진인데 바닷가인데 청정해역이지 말하자면.

그때 당시 하면서 때에 따라 보름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사방 돌아 댕기다 보니까 마이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길어지고 적으면 보름 전에 끝나고. 근데 그때 하시는 분이 20명 전후 됐었어요. 여자 분들도 더러 있고. 우리는 그때 쫓아다니면 따라 댕기면서 보기도 많이 보고. 사자에 사람을 태우면 명이 길다고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집 오니까 한 4년 탔어요, 나도. 기억이 나기를 한 아홉 살 때까지 탄 거 같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우리는 거기는 발농사가 많았어. 조이, 수수, 콩 이런 거를 몇 되씩 준다고요. 그러면 사자가 마당에서 놀다가 총 지휘가 있어요, 머리에 쓰고 한 그 영감이 대통으로 턱 집 방마다 돌아다니며 턱 하면 귀신을 몰아낸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액을 면한다 그래가지고 상 갖다놓고 냉수 떠놓고.

냉수 뜨는 것도 우리 그전에 어머니 보니까 밤중에, 정성이야, 돈이 아니면 정성이야. 그래서 주면 또, 총무라는 양반이 다른 집으로 가고 당시 동네가 300호니까, 대부분이 농사짓는 분들 집에 갔지. 어

민들은 그 당시 큰 부자는 없었어. 요즘 말로 하면 부자 아니지 뭐. 그거 하면서리 그 당시에 만일 그 해에 액운을 잘 물리쳐서 농사가 잘 됐다, 동네 탈이 없이 죽은 사람이 없이 그랬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들었어요. 그래 거기 정성껏 하더라고요.

만드는 거는 대략 가난한 사람이 만들던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발도 얼마 없고 고기잡이도 잘 못하는 양반들 그 사람들. 왜정 말엽에는 도청이랍는데 그 후로는 공회당이라 그랬어. 거기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사자를 만드는데. 내 기억으로 행사하는데 한 마리 할 때도 있었고 두 마리 할 때도 있었어요. 통소는 두 사람이 불렀어요. 그 당시에 할 직에 8,9살직에 심부름을 많이 다녔어요. 원래 사자털이 명태 그물이며. 옛날에는 면이 아니요? 요즘은 나이롱이지마는. 그래 무척 무거웠어. 명태 많이 나는 고장이니까 그거를 구할려면 어디로 가야하느냐? 배선원집에 가야하거든. 쓰는 그물은 안돼요. 다 찢기고 거의 버릴 정도가 되는 그물을 그 명태 그물에다가 물감칠해요. 진했다, 연했다, 그 전에는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보니까 어른들이. 이거 왜 많이 넣느냐, 그래가지고 서너 번씩 버리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염색을, 염색물이 물감이야.

노광복: 그물을 갖다가 바다에 던졌을 때에 바다에 들어가면 안 보이게 염색을 했어요. 물을 들여서 썼고 그물이 못쓰게 되며는 자투리가 나오면 사자놀음의 털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에요.

조사자: 사자 털 갈기는 그러면 그물을 엮어서 만든 건가요?

김철섭: 엮지 않았지. 그물 자체를 털 식으로 군데군데 모양을 해가지고. 눈은 고지 있지요? 달바가지, 그걸로 눈을 맨들고 입은, 함경도는 대나무가 없었어요. 대나무가 없는 데는 다래넝쿨 있지요? 다래넝쿨을 좋은 걸로 쪽 짜개면 타원이 돼요.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말려가지고 입을 맨드는 거예요. 입술을 맨그는 거예요. 내가 처음하는 이야긴데, 거 자작나무있지요? 함경도에 삼수갑산 가면 자작나무 있어요, 두 아름씩 돼요. 그 나무 우에서 여섯 사람이 점심을 먹었대요.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아버지 이야기. 그래 거기 삼수군하고 갑산군인데, 삼수갑산 거기는 순 감자 이런 거 먹고 살거든. 산간지역이라 하늘이 안 보인대요. 나무가 하도 커서. 나는 못 보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 그 자작나무 꺾테기 있지요? 그 꺾테기가 불에 잘 타요. 함경도에서 명태배 그물에 '보태'라 그러는데 그거를 요만큼씩

잘라서 명태 그물에...

노광복: 요새는 그걸 투비라 그러지. 부의 식으로 물에 뜨게 하기 위해서. 그물에다 달아매게 해서. 우리도 여기서도 그물에 투비를 했다니까.

김철섭: 그거가 아무리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잘 불에 타요.

노광복: 그거 너와집 있지요? 너와집 지붕 모양으로 그 자작나무 껍질을 가지고 지붕을 만들었어요.

김철섭: 그걸 넓고 좋은 걸 사자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주문한다고, 저기 삼수갑산에다가. 그걸 물물교환한다고. 바닷가는 감자 이런 거로. 그걸 어디다 쓰느냐? 사자 입이 있지요? 딱딱 소리나지요? 그걸 갖다 붙이면 소리 잘나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소는 안에 충이 있어요. 그게 어느 게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요즘엔 나이롱 붙이고 이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헛바닥 안에도 청이 들어가는 게 있다고.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갈대나무에 청이 있어요. 그걸 찾느라고 고생한다고. 바닷가는 없으니까 저 산에 호수나 늪이나 가야 갈대나무가 있지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걸 구하는데 애먹더라고요. 그 통소를 붙다가 망가지고 또 연습하다가 망가지고. 그래서 옛 말에 대목장이 황금뚱이 줄이 끊어진다고 하는 격으로.(웃음) 그래 청을 구해서 아주 여유로 갖다놓고 그러더라고. 그걸 붙여서 부르면 이게 탁 울린다고. 소리가 멀리 간다고. 멀리 가기위한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리고 신발은 짚으로 짚신식으로 거기다 자기 발에 맞추어 버선신고 하듯이 가죽을 그대로 씌운다고. 그걸 북신이라고 하는데. 발바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등도. 위에 발이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는 두고. 그걸 만드는 것도 보통 기술이 아니더라고. 워낙 추운 지대니까 엄동설한에 놀기 하다보면 발이 얼 수도 있고.

노광복: 영화보면 저 몽골에서 신던 신발같이, 몽골족에서 유래된.

김철섭: 거 맞아, 모양이 같애. 지금도 내가 그려보라면 그릴 수 있겠어. 그래서 그걸 뱃사람들이 신고 바다 가고. 이거 갖고 사자하는 사람은 안 되고, 통소하는 사람, 바깥에서 춤추고 하는 분들, 다 여럿이 신었더라고. 발이 시리고 하니까. 동네에서 사자를 만드는데 사자를 만드는 사람은, 토성, 원래 토성이라는 동네가 제일 창시 지역이야. 우리 같은 지역은 제2창시지역이야. 거기서 만드는 분을 모셔다가...

조사자: 그것을 만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김철섭: 아, 있지요. 아 그걸 아무나 막 맨드나요? 그렇게 안돼요. 동네서 집집마다 여유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오늘은 이집에서 밥을 하고 내일은 이 집에서 밥을 하고 이래 빙빙 돌아가면서. 그 사람은 대접 받으면서. 옛날에는 혼자 만드니까 좀 시간이 걸려? 보통 7, 8개월 걸렸다 그러잖아. 하나 만드는데. 다 손으로 만드니까.

조사자: 그럼 그 분은 일을 전혀 못하시겠네요?

김철섭: 그럼,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손재주를 가지고 벌어먹고. 7,8개월 음력설 두어 달 남겨놓고 연습을 해. 바닷가 모래밭에서 한 두어 달 해요. 그거 할 직에는 아침부터 하며는 해가 짙라 놓으니까 점심을 또 집집마다 땡기면서 해가지고 나와. 인원에 따라서. 거기서 또 먹고 하고. 요즘 말하면 협동정신이 참 강한 동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북청사자놀이 예전에는 그저 액운 때우는 줄만 알았지 여기나와 머리 크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하지. 그 어렸을 때는 진짜 귀신이 있구나 그런 정도만 느꼈지. 사자 타니까 아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정도만 알았지. 그랬고, 사자 만들 때 재료가 많이 들어갑디다. 애교도 들어가요, 아교도 들어간다고. 그리고 사자가 제일 중요한 게 눈언저리를. 몇 번 고치고 그러더라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그분들이 와서 검사 맡아. 땀어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여기는 요리요리...눈만 푹그렇게 만들면 뭐하느냐, 바가지를 맨 들면서리 눈언저리를, 아 여기를 뭐라고 그러더라 여기를 제대로 맨들라 이거야. 왜 이렇게 푹 잘라진 게 있느냐 이거야. 아 자연스럽게 만들라 이거야. 그리고 코도. 내가 그걸 기억하는데 코를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하나하나 그거 아주 대단했어요. 동네에서 좀 흥사있는 사람들은 다니지 못했어요. 얼씬도 못하고. 요즘 말하면 금줄 친 거, 그거 쳤어요. 황토도 뿌리고 새끼를 갖다가 숯도 고추도 솔잎도 쫓고. 문 앞에다 해 놓고. 그러면 다들 글로 안 들어가. 길 옆이지만.

조사자: 그럼 서낭당에는?

김철섭: 지금은 서낭당이지만 예전엔 뭐라고 했더라? 있어. 그건 서낭당 거기가 아니라 공회당에다 한 거야. 종도 매달고 철봉도 있고. 그네도 있고. 철봉은 해방되고 생겼고. 그래가지고 행사 다 마치고 나면 총무가 결산을 봐. 돈 아니고 쌀이잖아. 많이 들어와요. 읍으로 한참

신고 가는 거 봤어요. 옛날에는 짚으로 만든 가마니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 팔아서 자금을 맨드는 거예요. 결산 볼 때 동네사람 다 모여요, 공회당에. 한 40평 돼요. 아궁이 두 군데 됐어요. 사람 많으면 다 피우고 사람 적으면 하나만 피우고. 그래서 그걸 어디다 보관하느냐 하면 창고에 보관해요. 사자탈하고 거 재료 다. 통소 이런 건 개인이 집에 갖다 놓고 사자 이런 거는 크니까 공회당 창고에 다 놔두고. 옛날에는 자물쇠는 없고 철사를 퐁글퐁글해가지고 걸었어. 우리는 옛날에 숨바꼭질할 때 거기 기들어 갔다고. 뒤집어쓰면 얼굴이 시커매. 얼마나 문혔으면. 그러면 어른들이 “이놈아, 거기 들어가면 안된다”고. 안그런다 해놓고 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쌀 팔아가지고 뭐 하느냐, 그런 의논도 하더라고.

조사자: 참여하는 스무 분한테 따로 나가는 건 없고요? 하고나면 일부는 고생했다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김철섭: 돈 주는 거 없었어. 진짜 행사장에서 봉사하는 거야. 지금은 돈 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 진짜 잘 되고 명태도 잘 잡히고 농사도 잘 된 그런 해는, 한 중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동네사람들이 모두 맛있게 지냈어. 한 해 잔치지 뭐. 근데 하면 또 그냥 안 와요. 누룩을 맨들어 가지고 집에서 누룩을 맨들어 가지고 청주를 떠요. 그걸로 제에 써요. 촌장이 누집에 누구는 누구를 누구를 하라고 다 지시를 해요. 누 집은 문어를 장만해라, 누 집은 명태를 최고 큰 거 구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아니예요.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서낭제를 따로 지내고?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각자 준비해가지고 촌장이 말하면 하나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당시는 늦그릇 많이 쓰지. 그걸 다 재료 닦아요. 아침까지 싹 닦아서 놓는다고. 닦는 거는 여자가 닦고 갖다놓기만 하고 가지, 여자는. 그 당시는 잘 그런 거를 못했어요.

조사자: 저기 남쪽에서는 늦그릇 여자는 손도 못대게 했어요.

김철섭: 우리 이북에서는 여자들이 깨끗하게 다 닦아요.

노광복: 여기서도 여자들은 다 닦아. 그때는 광만드는 약이 없으니까 재료 다 닦아.

김철섭: 그걸 닦는데 어머니들 고생 많이 했어요. 벧짚으로 태우면 벧짚에서 잿물이 나와요. 양잿물이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다 그걸

가지고 빨래 빨았어요. 지금도 내가 내동생 만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쓴다고.

조사자: 통소불고 하는 분들은 아까 그렇게 신발을 신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자는 신발을 따로?

김철섭: 사자는 거기 사람이 둘 들어가니까 거기 아주 제일 고생해. 통버선을 아예 맨들어요. 여기까지 오는 걸로 맨들어요. 장화식으로. 새달들 신는 버선은 끝이 뽀족하잖아요? 이걸 안 뽀족해요. 편안하게 신고는 그걸 신고한다고.

조사자: 하얀 거 그냥 신는 건 아니겠지요?

김철섭: 물론 아니지.

노광복: 염색해서 신고.

김철섭: 그렇게 하면 참 사자는 땀을 많이 흘려요. 그렇게 놀고 다른 동네 갈 때는 벗거든요. 그럼 땀을 부루룩 하고.

조사자: 옷은 어떻게 입으셨어요?

김철섭: 요즘 하는 게 있지요? 작년에 하는 거 가 봤는데 비슷하대. 옷은 비슷한데 거기 애원성 부르는 옷은 조금 다르더라고. 그건 여자가 불렀어. 그래 내가 서울에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다가. 이능화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돈돌날이도 북청군에서 했어요. 신창읍면에서 했어요. 거기서 주로 많이 했어요.

조사자: 고깔을 쓰고 양쪽에 꽃을 붙이잖아요?

김철섭: 그때 당시 꽃은 안 붙였어요. 옛날에 양반들이 쓰던 거 있잖아요, 건을 썼다고. 바지저고리 입고 도포 입고 길다란 거 그거 허리에 매고. 이북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지. 지금 거기는 개화되어서 그렇지. 담뱃대를 후르고 휘휘. 그 양반이 총 지휘자였어. 모두 그 양반 말을 듣는 거야. 오야붕이지. 여 물러나라 그래, 건 쓰고. 집에 오면 명석 깔아놓고 상 갖다 놓고 냉수 갖다 놓고 아주 정성들여 놓고 술잔도 놓고 촛불도 켜 놓고 그런다고. 그러면 총무라는 사람이 사전에 와서 지시하고 뭐이 없다, 뭐이 없다 그런다고. 장난의 소리가 지금 보니까. 이 집으는 금년에 농사 잘 되겠구나, 재물 채린 거 보니까 아주 단단히 채렸구나. 그 영감이가, 처음에 들어와서 놀음하기 전에 대문에 들어와서 나중에 “들어와라” 해야 들어온다고. 예의범절이 아주 엄했어, 지금 보니까. “무시기 뭐 이따우로 채렸느냐”하고 욕하는 집도 있더라고. 잘 못 채렸다는 뜻이야.

조사자: 예전의 북청사자놀음과 현재 놀음을 보면 좀 달라진 게 어떤 것이라 그러셨지요?

김철섭: 춤추는 사람, 애원성 부를 때 모자, 고깔에 꽃 다는 거 이북에도 없었고 여기서도 없었지. 저 올라가서 맨들었어.

노광복: 춤추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붙었지.

김철섭: 실지로는 없었지. 그리고 신발, 복신하고 사자가 신는 신발 통버선이라 그랬지, 그거 다르고.

노광복: 요새는 버선도 신고 운동화도 신고 그러더라고.

김철섭: 그리고 옷이 좀 달라요. 애원성 부르는 여자분 있잖아요? 또 통소 소리가 여섯 대목이 있는데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 대목에서 빠르다고. 흥겹게 마지막에 가서 하이라이트, 음악이 빠르다고. 여섯 장단이 있었다고. 장단은 비슷하고. 악기는 통소, 대개 통소. 장구는 없었어. 요꼬에라고 있었어. 옆으로 부는 요꼬에. 옆으로 부는 피리같은 거.

노광복: 날라리.

김철섭: 날라리는 이렇게 앞으로 불지. 그게 아니고. 요꼬에 그거 있었지, 요꼬에라는 말은 일본만 같애.

조사자: 날라리도 있었나요?

김철섭: 날라리도 있었고. 북, 장구는 기억이 안나요. 통소가 상당히 힘들어요.

노광복: 북이 이제 첨가가 됐지요. 그리고 템포가 많이 빨라졌어요. 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빨리, 흥겹게 하자니까.

김철섭: 처음엔 천천히 해요. 여섯 번째 대목이 하이라이트야. 양반, 꺾새, 이외에 의사가 있었어. 사자가 병들어 드러눕고 쓰러진다고. 그러면 의사가 침 놓고 이래가지고는 살려주고. 배가 고프면 때에 따라서 토끼도 갖다 주고 잡다 주고 그런 게 있었다고.

조사자: 순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김철섭: 순서는 내가 백프로 말하기 어렵지. 총무가 미리 다 말해놓고. “상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면, 양반이 먼저 가서 들어와라 그러면 짝악 통소 불고 들어오고 사자도 따라 들어온다고. 사자가 잘못하면 말이야 양반이 꾸지람을 준다고. 꾸지람을 주면 사자가 잘못했다고 꼬리를 탁탁 치며 잘못했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대목이 있다고. 힘을 너무 쓴다고 뭐를 먹었길래 힘을 쓰냐고 하면 힘을 낮추는 장면도 더

러 나오고. 하다가 동네 사람 우리집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액운 물리친다고 하고, 한참 마당에서 놀다가 쌀 거둬 오잖아요. 처음에 서 되를 갖다 놓기로 했는데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며느리보고 쌀 더 퍼와, 시아버지 그런다고. “야, 쌀 더 가져 와라” 그러면 바가지로 퍼 가지고 와서 갖다 놓으면 기분이 좋으면 “야들아, 방안에 액운을 귀신을 몰아라”하면 사자가 다 따라 들어간다고. 사자가 들어가고 집이 흘러 북고 난리치지. 막 떠나가는 거 같아. 나와 가지고 마지 막에 춤을 많이 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춤을 추지.

노광복: 여기서는 그게 빠졌더라고.

김철섭: 그게 빠졌어. 애원성은 한 번인가 두 번 불러. 한 집에서 하는 것이 한 사오십 분 되는 같애. 그러다가 흥겹고 이거 많이 나오면 한 시간 넘게 하고. 어떤 집은 삼십 분하고 나오는 집도 있고. 승무가 없고 여기서 만든 거고. 애원성에 가미가 된 게 아닌가. 애원하는 것이니까 절에서 많이 했으니까 여기 나와서 가미가 된 게 아닌가 하고. 곱추는 웃기느라고 중간중간 웃기느라고. 곱추가 어떤 때는 사자보다 더 장난도 많이 하고. 사람이 올라타잖아? 사자 위에 사람이 올라타잖아? 타기 싫으면 발로 막 차. 그럼 양반이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이집 손잔데 잘 좀 태우라”고 그래. 애원성하는 것은 참 애 처럽게 부르더라고. 애원성은 때로는 둘이 부를 때도 있고 셋이 부를 때도 있고. 애원성 춤도 남자춤, 여자춤, 구경꾼도 추고. 하여튼 일 년 내내 그거 볼 때만 기다려. 우리처럼 어린 애들은 그저 그거만 기다려.

조사자: 농악대는 있었나요?

김철섭: 우리 동네는 없었어. 사자놀이만 했어. 농사 많이 짓는 고산면이라고 외갓집있는데, 거기는 했지만. 사자놀음이 1947년까지는 있었어. 해방되고도. 그 이후는 없었어. 속초에서는 1953년에 휴전되지 않았소? 피란 갔다가 고향을 빨리 갈라고 여기 왔다가 휴전된거야. 그래 피난민이 여기 많은 거야. 금년 같까 내년 같까 이러다보니 제2의 고향이 되고 원주민이 된거야. 여기 산 것만 해도 55년 살았어. 북청사자놀음은 북청에서만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해. 뜻있는 분들이 돈을 거둬서. 열이면 여덟은 배타고 둘은 장사하고.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어. 바다 고기를 잡으면서리 경제가 좀 좋으면 거둬가지고. 옛날에 북청도청이라는 것이 금호동에 있었어. 거는 돈이 없

어가지고, 모든 돈을 가지고 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노광복: 전성우 속초읍장이 읍유지니까 내 놓고, 거기서 만들었다니까, 북청도청.

김철섭: 피란 나와서 동생만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북에서는 다 없어졌어. 할 사람도 없고 관심없고. 돈돌나리도 우리 나올 때 봉건주의 타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야. 요즘 여기서는 못 들었는데 동생말로는 돈돌날이 남아서 무대에 오르는데, 일본 왜놈들 할 직에 만든 건데 상당히 많이 한대. 사자 놀음이 어떻게 해서 남한에서 하게 된지 알아요? 우리 행정구역을 보면 거산면이라고 있어요. 김수석이라는 분이 해방되고 사자춤 추던 분이 월남했어요, 배타고.

조사자: 아까 북청사자놀음이 다르다는 거...

김철섭: 애원성에 쓰는 모자가 다르고, 다르게 쓰는 것도 있어요. 수건을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 머리가 뜨시다고 그거를 쓴 분들도 있었다고.

조사자: 북청사자놀이하실 때 돈돌나리도 같이 하셨나요?

김철섭: 우리 동네는 돈돌나리 없었어요. 사자놀이만 했어요. 내가 열네 살 때 6·25사변이 일어났어. 1·4후퇴 때 내려왔지. 속초는 1955년, 수복탑 짓는다고 벽돌 찍어놨더라고. 수복탑 앞에 있던 게 원래 7번국도야.

노광복: 수복탑이 내가 태어났던 자리야.

김철섭: 내가 여기 2월 12일에 왔거든, 배타고 주문진에서. 벽돌이 버쩍 얼었더라고. 그래 이거 뭐하는 거냐고 하니까 수복탑 세운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지리 잘 안다고. 그때는 들어와서 아침저녁 먹는 것밖에 몰라. 정착이 되면서 아, 고향가기는 틀렸구나. 휴전이 됐으니까 우리 고향에 사자놀음이 있는데 여기 북청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향생각 하면서리 하자 그래서 김수석 영감이 주동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했지. 도청은 56년도나 지었어. 땅은 시에서 시유지를 내줬고. 지금은 다 팔아먹었다고. 57년도에 사정을 해가지고 변경일 말로는 58년도에 처음 공연을 했다고 그래. 제일 극장에서 두 번 했는데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해. 난 본 기억이 안 나. 그 다음해에는 청호동에서 할 때 한참 따라 땀기면서 봤는데 그땐 인원이 별로 없었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한 여섯 명 됐어. 5·16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는 5·16나고 한 칠팔년 했지.

조사자: 거사춤은 예전에 보셨나요? 길잡이는?

김철섭: 거사춤은 본 기억이 나는데? 길잡이도 있었고, 양반이 있고, 꺾쇠하고 한 조야. 옛날에는 양반이 탈을 안 쓰고 건만 썼어. 꺾쇠는 삼각형같은 모자야. 두꺼운 종이로 만든 것같애. 길잡이같은 삼각형인데 똑같지 않았어. 다 구분되어 있더라고. 두 사람의 모자가 달랐어.

노광복: 건은 흰 게 아니고, 일층 이층 삼층 이렇게 생긴 검은 것이었어. 이렇게 흰 거는 줌...

조사자: 사당춤 추는 사람들은 머리에 꽃을 달았나요?

김철섭: 그때당시에는 꽃이 없었어. 이북에서도 없었어. 칼춤도 없었어. 칼춤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에는 없었지만 중앙에서 북청사자놀음 하는 거 볼 때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있었대요. 나는 이북에서는 못 봤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있었대요. 자꾸 세월이 지나니까 변한 것 같아요. 승무는 별도로 있었고. 녀두리춤이라는 것은 대목마다 동네 아줌마들이 구경하다가 같이 어울리는 거야.

조사자: 원숭이나 중국인이 나오는 것은 혹시 아시는지?

김철섭: 원숭이도 보지 못했어. 중국인이 나온다는 것도 못 들었어. 의사가 침 놓는 건 봤어. 복장은 좀 달라. 바지저고리는 좀 개화된 거를 입었어. 양반이 지시해야 온다고. “야, 저 사자 저놈아가 언쳤는지 배고파 그러는지 진맥해가지고 알아봐라.” 하면 “예”하고 침 통에서 침을 꺼내가지고 진맥하고.

조사자: 스님이 대사를 하나요? 염불이나...

김철섭: 스님의 대사는 본 기억이 안 나요. 염불도 없었어요.

조사자: 북청사자놀음이 속초에서 보존되어야 하는데요.

노광복: 경비도 그렇지만, 인원확보가 제일 시급한 문제야. 기능보유자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공연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할라 그래. 돈이 안 생기니 누가 할라 그래. 기본 인원은 되는데.

김철섭: 돈이 안 생기니 누가 할라 그래. 기본 인원은 되는데.

조사자: 연습 있을 때 가서서 고향에 있을 땐 이렇게 했었다, 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김철섭: 그게 쉽고도 어렵다고. 거기 지휘자 있을 거 아닌가. 내가 대본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노광복: 그게, 거기서 대본을 갖고 있어요. 대본을 한번 보고 지금 식하고 대조를 하고 예전엔 이렇게 했노라 하는 게 서로 얘기할 수는 있지.

[구술자료 4]

- 조사일시: 2010.11.30(화) 17:00~18:40
- 조사장소: 속초문화원
- 제보자: 동선본(남, 52세, 1960년생), 동선백(남, 54세, 1957년생)
- 조사자: 장정룡, 송성진, 김은경

동선본: 실제 연희의상이 서울과 속초가 비교가 됩니다. 1973년에서 74년도 망우리하고 구리시 교문리에서 활동했어요. 동주현 옹은 양반역을 했는데, 나는 그때부터 북청사자놀이를 접했습니다. 초등학생시절이었어요. 석간동 당시 70년대 후반이었습시다. 김수석 선생님과 같이. 배역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복색이나 연희인물도 많이 바뀌었어요. 70년대 초반인데. 월남 1세분들이 보유자로 등록됐어요. 사자나 음악을 놓고 봐도 변화된 것이 많습시다. 이사장, 사무국장이 바뀔 때마다 놀이의 흐름도 바뀌었어요.

속초 쪽은 김수석 선생님은 서울에 종종 올라오셨습니다. 중요 공연이 있다든가 할 때, 서울 연희 인원 짤 때 동태선 어르신 작고 후 김수석 어르신이 반주 맞추어 애원성이 있을 때 없을 때 대사 역을 했습니다. 1인 2역을 하셨는데 간혹 애원성을 하시고 대사는 꼭 그 분이 하셨어요. 90년도 후반, 97년 작고 무렵까지 서울에 종종 올라와 회의에 참가하셨고. 과묵하시고 조용하신 분이셨어요.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97년 여름 무렵에 작고하셨어요. 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중요 공연에 나오셨고, 94년에서 95년까지는 간혹 하셨어요. 김하륜 옹은 거의 안 올라오시고 서울에 오지 않으시고 속초에서만 계셨어요. 당시 서울에 통소모임이 있었고 김하륜 옹은 보유자로 지정되지 않으셨어요. 북청사자놀이 지정 시 통소활동은 하셨지만 지정되지 않으셨고 서울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10세 때 놀았을 때 초창기와 동일해요. 악사는 고깔 모두 쓰고. 복색을 보면 바리는 연두색, 저고리는 오렌지색이었어요. 당시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사복에 두루마기만 걸치고 탈 쓰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복색을 다른 것으로 하기에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겠지요.

어른들은 얇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짚신을 신고 고깔을 쓰시고 나가셨습니다. 각반도 있었어요. 고깔에 방울 달고 노란 띠 왼쪽 어깨에 이렇게 매고 빨간 띠를 가운데 허리에 하고 늘어뜨렸습니다. 사무국장 총무 주칠성 선생님이 오신 후 복색이 바뀌었어요. 70년대 후반 제가 군대 가기 전 녀두리 춤을 추었는데 북청에서는 머리쓰개를 하고 아래 위 흰 치마저고리를 입었어요. 주 선생님은 창경원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돈돌날이 올리고 관원놀이 올리고, 마지막으로 북청사자놀음을,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했어요. 봄이 되면 관객들 모여 놓고 삼 삼는 노래 해가며, 녀두리춤이 새롭게 합류되었고 이전에도 돈돌날이가 있었지만 애원성춤이 별도로 파트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북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잘 모르지만, 애원성춤은 처음에는 안 추었어요. 녀두리 춤이 빠지고 무동, 검무, 원숭이춤이 들어갔어요. 새끼사자도 그때 같이 놀았어요. 원숭이가 사자와 어울려서 무대에서 의자 놓고 재간 부렸어요. 동시업 어르신이 원숭이하고 동선본이 있어서 원숭이하고, 그 때 사자를 앞 뒤 하고, 원숭이를 놀렸던 마을이 있고 새끼 사자를 놀렸던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구에서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 원숭이나 새끼사자를 놀립니다. 사무실에 원숭이 모형이 있어요. 원숭이 탈 쓰고,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복색도 쫓아가는 식이에요. 의상이, 색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다음 패랭이는 상투하고 머리띠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처음엔 바지 저고리였는데 사무국장 바뀌면서 흰색 바지저고리로 바뀌었어요. 패랭이로 바뀌고 수년간 하다가 상투하고 머리띠한 것이 그 후고, 연두색 오렌지색 복색에 띠를 매는 게 현재 복색이에요.

어르신들 말에 의하면 농악에서는 다 들어간다고 해요. 통소는 꼭 들어가요. 통소는 저 아래까지 다 붙려졌는데 어느 순간 맥이 끊어져 사라졌어요. 북청지역 어느 지역에서나 통소가 있었어요. 장구, 피리, 쇠, 북은 하나씩 없는 경우가 있어요. 풍물이 빠지는 판놀이는 없습니다. 정월대보름 놀이라면 당연히 풍물이 있고, 현재 피리가 있는 것은 송석하 선생 때문인 듯합니다. 피리, 태평소가 있었다고요. 징, 팽과리, 북은 들어올 수 있으나 태평소할 때 통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북청지역은 대통소라고 해서 넓은 광장에서 유일한 악기가 통소였어요. 통소는 광장악이에요. 넓은 지역 정월대보름에

소리를 빵 터뜨릴 수 있는 악기는 통소였어요. 통소는 북청분, 홍원분, 이원분들이 하셨어요. 서울에서 연습하시면서 실력이 더 늘어갔지요.

광장악하고 방중악이 있는데 방중악은 방놀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 붙이는데요. 집안에 경사있을 때, 온가족이 방에 모여있는 명절날에, 집안 어르신 생신날에, 결혼식있을 때 해요. 집안 어르신이 시작하지요. 형이 북치면 동생은 춤추고, 그렇게 시작되면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방에는 가족들이 모여 노는 식이지요. 그 모임은 꼭 북청사자놀이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며느리가 새로 오면 며느리춤 보는 것이 어떠냐하면 아버지가 춤추게 하면 춤을 춰요, 선물도 주고.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도 하지요.

정월대보름 때 지신밟고 그런 행위 후에 북청사자놀음이 이루어집니다. 마당놀이가 지신밟기의 의미예요. 지신밟기가 매개행위의 의미가 있지요. 80년대 중반에는 서울에서 많이 내려와 저녁에 현지인들과 저녁하고 그 다음날의 공연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 전에 속초 지역인들이 모여 행위를 했겠지요. 내일 행위를 위해 역할을 나누어 연습했지요. 당시 사자놀이가 독자적으로 놀지 못했어요, 80년대 중반에는, 저도 봤지만 그분들 중 한 분이 여관업을 하셔서 꼭 거기에서 주무시고. 당시 여기 공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때 저는 청량리에 사는데 어렸고, 청량리 중심에도 그런 놀이 문화가 있었어요. 1960년대 중반 북청사자놀이 결집이 있었어요. 도에서 내려와 보유자 할 것이고 그래서 조하립 어르신이 결집하시고. 그분들이 청량리에 결집해서 살았어요. 동태선, 동성영, 신선식, 김용, 동시업, 그분들 중 세 분 동씨가 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당시 거기가 달동네예요.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통소도 불러주고 놀이도 하고. 동씨는 따지면 다 집안이지요. 북청군 이곡면에 동씨 집성촌이 있었고 그분들 중심으로 종친회가 운영되고 그래요. 전광석, 이근화선, 변영호, 윤영춘, 마희수 이분들이 보유자가 되었고요. 김영곤 선생도 청량리를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김수석 선생이 사자놀이 만들어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당시 서울에서 이루어졌는데 윤여춘, 동성영, 여재성 보유자가 있었지요. 김수석 선생님이 올라와서 활동하시다 보니 속초는 제대로 연희되었겠어요? 예전엔 김수석 선생님이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명절 등 그런 지역 활동이 흐지부지

되지 않았을까요? 서울에 오셔서 대접 받으니까 서울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속초지역은 제대로 안 된듯합니다. 당시 속초 상황을 아시던 분들이 모두 작고했어요.

동선백: 1969년부터 시작했어요. 원송이를 시작했어요. 70년대 중반부터 사자를 시작하고, 여러 보유자 네 분이 손을 놓고, 동성영, 여재성, 김영신 선생하고 한 분은 비활동으로 있었고, 정광석, 전철하 선생은 전수자로 되고 젊은 층이 들어와 활동했어요. 동성영 선생은 통소로 교체되고요. 중간 세대가 없어서 갑자기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었어요. 당시 보유자들은 칠 십 세 정도고, 전수자들도 비슷한 연배였어요. 김수석 선생님을 본 건 지금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원송이 쓴 사람도 새끼사자 쓴 사람도 지금은 나밖에 없고.

동선본: 79년에 놀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행위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시 내려오지 않아서 못 봤어요. 어떤 연희, 어떤 과정인지 자료가 없어요. 실제 연희 상황은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 결성은 월남분들 북청도청에서 만들어진 것은 좋았어요. 활동 시작한 것은 있지만 서울팀 내려와 함께 공연하고 설악제위원회에서 초청해서, 60년대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고 71년에 보유자가 되셨으니까 67년에 변영호 선생님이 활동하고 서울에 법인을 결성했어요. 이북5도청에서 실제 과장이란 분이 무형문화재관리법에 의해 만들려고 하는데 “함남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했더니 조서희 군민회장이 북청사자놀음을 말했다고 조하립 재무과장이 이어서 시작하셨어요. 조하립 선생이 생존해 계세요. 이분이 북청사자놀이를 갖추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청량리하고도 많이 관여하시고 그 분이 40대 때에 하셨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도 함남도민회, 북청군민회, 읍면민회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속초 부산에서도 듣고 와서 발탁되지 않았는가 싶고. 그 분은 80세 후반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 그 분은 돈돌날이 하시고, 사자놀이 결성하기 위해 직접 뛰신 분이세요. 지금 서울 북청사자놀이는 대사도 다 바뀌버리고 이미 교본에 다 올라간 것을 임의로 바꾸고, 복색, 대사의 톤도 바뀌고요. 조익 이사장 오면서 바뀌었어요. 초창기 70년대에는 함경도 사투리로 했어요. 어느 순간 서울말로 바뀌었어요. 이진원 전통예술원 교수가 속초녹음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보형 회장님은 통소녹음 CD가 있고, 이두현 박사는 대사

본을 가지고 있어요.

조사자: 등장인물 중에 중국인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동선본: 중국인은 점바치일 수 있겠어요. 사자가 죽으면 점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데.

동선백: 아니,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동선백: 우리 아버님은 사자놀이 도구 소품 만들고, 가끔 의원한 적도 있어요. 옷 뒤로 해서 머리에 길쭉한 거 쓰고... 머리에 쓰는 게 있었어요. 종이관모, 사각으로 된 거. 법사, 대사는 그런 거 쓰니까. 국립민속박물관 사자는 그물로 만들어졌어요. 김수석 선생님 작품이 아닌가 추정해요. 서울은 삼으로 엮은 사자이고 거의 얼굴이 납작한 사자예요. 박물관 거기도 납작해요. 그 후에 김수석 선생이 만든 사자는 서울에서 지금 쓰는 사자예요. 둥근사자형이고 털 눌러앉았어요. 납작하면 더 강해보이고 둥근 사자는 더 부드러워요. 서울에는 그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 사자 그제 속초에서 간 사자가 아닌가 그래요. 김수석 선생은 서울에서 탈을 만들지 않았어요. 60, 70년대에는 활발하게 만들어 썼을듯해요. 이후는 쇠퇴해가면서 안 만드신듯해요.

동선본: 신창탈놀이에 사자춤 중에 도깨비가 등장해요. 악의 사신이에요. 북청사자놀이에는 도깨비가 처음 등장해요. 전 교수가 “왜 탈놀이에 도깨비냐?”라고 해서 사장시켰어요. 그래서 북청사자놀이에 도깨비가 없어서 전수되고, 신창탈놀이는 아직도 문화재지정이 안 됐지요. 도깨비가 있어도 전수되던 대로 보여주는 건데, 교수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그쪽말만 듣고 사람들이 탈놀이하는 사람들 말은 안 믿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애원성 놀이에서 옛날에는 경복궁타령이 불렸어요. “경복궁 지어라 경복궁 지어라, 삼각산 아래다 경복궁 지어라” 동태선 선생이 경복궁타령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김수석 선생이 애원성 놀이도 하시고... 애원성춤도 등장했지요.

[부록2] 속초북청사자놀이 전승실태조사(1991)

(장정룡 저,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년 수록본)

본 조사는 북청사자놀이의 속초지역 연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자와 제보자, 연희상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일시 : 1991년 7월 16일 오후1시~6시
- 조사장소 : 속초시 영랑동 151,8통5반
- 제 보 자 : 속초시 영랑동 8통5반 김수석(1907년 7월19일생)
속초시 금호동 10통1반 김하륜(조사당시 76세)
- 조 사 자 : 장정룡(강릉대 교수)
- 참 가 자 : 최재도(속초 문화원 사무국장), 정인숙(강릉대 국문과4),
이교우(국문과3), 홍서경(국문과3)

조사개관

본 조사는 1991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상기 조사자들이 속초지역 민속극으로 연희되고 있는 북청사자놀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이 자료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84호로 지정된 김수석 옹과의 면담, 북청도청회장인 김하륜 옹과의 면담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현장론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58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사자탈의 원형사진과 함께 1959년 속초지역 북청동향친목계 계칙개요와 계원명단을 공개하여 당시 속초지역의 사자탈과 북청사자탈놀이 공연단 결성의 계기가 되는 동향인들의 움직임을 살피고자 한다.

제보자 지정자료

제84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본 적 : 함경남도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구18반

주민등록번호 : 140404~107507

성명 : 김수석 1907년 7월 19일생

위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사자앞머리)보유자로 인정함
1971. 2. 9

문화공보부장관 신 범 식

□ 북청동향친목계 계칙 및 계원명단(北靑同鄉親睦契 契則 및 契員名單)
(檀記 四二九二年(1959)五月二日)

상기 표지의 계칙 및 계원명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계칙은 전체 8장 23
조로 되있는 바

제1장/총칙에서는 北靑都廳(북청도청)을 만들어 사무실로 쓰고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협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장/조직에서 계원자격은 당시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으로 하고 계
원수는 36명으로 정했다. 뒤에서 명단을 밝힌다.

3장/권리와 의무로서 매월 20일에 월례회의를 갖는다고 하였다.

4장/役員에서 계장1, 부계장1, 총무1, 재무1, 서기1, 간사1, 의식부2, 연예
부2, 장의부2, 고문 약간 명인데 연예부에서 북청사자 놀음에 관한 공연 계
획을 주무로 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장/정기총회는 매년3월20일, 월례회는 매월20일로 정해 고령자순위로 자
택에서 소집했다.

6장/부조사업

7장/자금 및 운영

8장/상벌,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있다.

당시 계원명단의 나이 주소는 다음과 같다. 李貞基(63·북청읍 외서리), 吳
景昌(59·내리), 金南龍(54·남리), 金壽石(52·죽평리), 李昌熙(52·거산면 평리),
李浩永(51·북청읍 외서리), 金三默(49), 方鶴福(48·북청읍 서리), 朴鎭漢(48·
신북청년 신상리), 李在燮(47·신포면 육구), 崔舜在(47·하차서면 상신리), 李
옥泳(48·북청읍 상동리), 李完燮(46·남리), 朴成哲(46·서리), 方錫洪(45·서리),
梁桂乾(45·덕성면동압내리), 金河倫(45·신북청면 양가리), 魯允武(45·덕성
면동압내리), 朴庾亨(43·상차서면 방촌리), 劉弘烈(43·덕성면 주의동리), 李鍾
旭(43·상차서면 엄동리), 方錫在(43·북청읍 서리), 李鍾俊(42·상동리), 魚重龍

(42·날미), 馬房燮(41·가회면 봉의리), 金洪川(40·가회면 봉의리), 李鍾浩(40·북청읍 서리), 閔丙國(39·거산면 하입석리), 崔?濶(39·건자포), 金孝煥(38·신포면 신포리), 金先川(38·북청읍 상동리), 李奧燮(38·서리), 吳東述(36·죽평리), 申謙(36·죽평리), 馬裕得(34·가회면 봉중리), 朴龍泉(33·북청읍 북삼리)

이상의 개요로 볼 때 상당수 북청주민들이 속초에 정착하여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4년 통계로 당시 북청군민 총 28만 4천여명중 14만 명 정도가 월남했으며 속초에는 300~400가구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한다.

□ 북청사자놀이 전승조사

앞서 북청동향친목계에서도 나타났듯이 속초에는 함경도 피난민들이 정착함으로써 북청사자놀음이 자연적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조성되었다. 195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북청사자놀음이 참가하는데, 13세 때부터 사자춤을 추었고 19세에 애원성을 사람들 앞에서 잘 불렀던 죽평리의 김수석 옹이 속초에 살고 있었으므로 서울의 북청군민회에서는 김옹을 중심으로 출연단을 구성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북청사자놀음이 남쪽에서 재현되었으며, 속초에서도 북청사자놀음을 이곳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생기게 되었다. 구체적인 작업을 위해 우선 북청도청이라는 집회소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는데 친목계 36인이 당시의 사업에 참여하였다.

기금마련을 위해 1957년 정월대보름, 김수석 옹이 속초에 정착한 다음해 북청사자놀음이 속초에 모습을 나타냈다. 사자탈과 통소 복식 등을 새로 만들어서 사자춤을 추며 가가호호를 방문하였다. 당시 친목계원 중에서 김수석, 오동술, 김하륜, 이재섭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계원 중 재주가 있는 사람을 골라 다시 연습에 들어갔다. 북청사자놀음의 중심은 사자에 있으므로 앞채 사자에 김수석, 통소에는 김하륜이 중심이 되었으며 다른 배역들은 이들의 고향에서 추었거나 본 적이 있어서 재현에 성공하였다. 약10일 동안의 걸립에는 북청군민지역 독지가로부터 거둔 기금으로 1958년 속초읍장 전성우 씨로부터 금호동소재 읍 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북청도청을 건립하였다.

이 도청이 건립되기까지는 계원 36명이 손수 산허리를 깎는 작업을 해서 세운 것으로서 북청군민회지회 보다도 북청도청이라는 공동집회를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룬 성과에 의해 결집력이 강화되었다. 도청에서는 고향의 전통재현을 위해 북청사자놀음을 매년 정월보름에 망향제를 지내고 실시하였는데

북청현지와 다름없이 재현되었으며 북청인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 실향민과 속초의 주민들도 함께 공연을 감상하고 흥이 나면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속초에서 북청도청을 중심으로 사자놀음이 재현되자 이북5도청에서도 1960년 서울에 북청사자놀이보존회를 발족, 1964년부터 전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66년 10월 덕수궁에서 개최된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의 김수석, 오동술, 이재섭 등이 일원으로 참가하여 김수석 옹이 개인상을 받았으며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받았다. 그리하여 1970년 4월에 북청민속예술 보존회가 인가되고 김수석 옹이 기예능보유자 제84호로 지정받게 되었다. 1966년 당시 개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장) 개인상(민속놀이)김수석

우는 공보부와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공동주최로 개최한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중앙결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함.

1966.10.24

공보부장관 홍 종 철

1957년 초창기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에 연희자로 참가했던 사람은 다음과 같다.

사 자 : 김수석(앞채, 애원성)·(뒷채 ·오동술)

양 반 : 이종욱

꼭 쇠 : 양계건

사당춤 : 박씨

의 원 : 장남우

승 무 : 김봉수

총 각 : 김원사

곶 추 : 마유득

도깨비 : 김효환

중국인 : 이종호

악 사 : 변무성(통소), 박진환(통소), 이재섭(통소), 김하륜(통소), 마방섭(북), 이종준(징), 신겸(장구), 이 외에도 길잡이 놀이패 수 명 참가

이들은 1963년 속초가 양양읍 속초리에서 시로 승격되자 설악제등에 참가했으며 6대 김경산 시장이 적극 후원하여 활발하게 연희되었다. 그러나 1967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김수석 옹이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북청군민회하의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서 각종 대외 행사를 치르게 되고 속초에서 서울등지로 공연출장을 나가게 됨에 따라 속초에서의 북청사자놀음은 70년대 중반에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나 속초거주의 연희자들이 대부분 보유자로 지정이 되지 못했으며, 노령화되어 공연자체가 어렵고 후계자를 육성하지 못한 데서 주로 기인된다. 북청출신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지에 나가 있으므로 1982년에는 전문대학 학생들을 김수석 보유자가 지도하여 대학축제에 공연하였으나 북청도청에서 주관하여 '공연한 것은 1981년 9월 가을맞이 새마을대예술제 참가를 끝으로 전승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당시 연희자로, 사자에는 김수석(앞채), 김덕용(뒷채), 양반에 변경일, 꼭쇠 황남극, 총각 김원삼, 사당 박씨(여성), 의원 장남우, 승무 김봉수, 중국인 이종호, 악사로는 통소에 이재섭, 김하륜, 북은 백하규, 징은 유춘산 등이 담당하였다. 1991년 설악제 민속제시에는 가장행렬로 북청사자놀음이 나왔으며, 그 외에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이 공연될 때는 서울의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서 와서 공연하고 김수석 옹이 애원성을 불렀다. 김수석옹과 김하륜옹의 조사녹음 자료를 그대로 옮겨 내용 등을 살피기로 한다. 당시 조사자는 장정룡으로 이하 조사자로 표기한다.

조사자: 사자놀음 중에 무동춤, 사당,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이라 부르는지 아니면 첫째마당 둘째마당 그러니까?

김수석: 그러니까는 사당춤 뭐 칼춤, 뭐 폼새춤 그 다음에 애원성춤 그 다음에 거기 사자놀이마당....

조사자: 다 함께 추는 춤도 있겠지요?

김수석: 예, 그건 맨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맨 마지막 사자춤이 끝나고 그때 사자가 놀 때는 다른 사람은 안 들어 가거든요. 그러구 승무하고 그러니 세 사람이 들어가 놀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끝날 무렵에 한 이 십분 놔두고 다 들어간다이. 인원이 다 들어가서 한마당에 사자도 놀고 그 다음에 칼춤하나, 칼춤 추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 몸뚱이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꼭쇠, 양반 뭐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그래 그때는 한마당에 들어가서 전부 어울리게 복잡하게 놀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

와서, 나올 적에도 막 그리 쉽게 순서없이 나오는 게 아이라 이제
마지막에 한바퀴 돌아요. 외줄 서서 말이요. 한 줄로 서서 빙 돌거
든요. 그래 이제 돌고서, 거기 인제 존위라는 게 있어요,

조사자: 존위요?

김수석: 존위라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말이요, 옛날에 동네 부
락에서 제일나(나이)먹은 사람을 존위라고 하거든요. 존위, 그래 그
존위가 맨 마지막에 무슨 잡병 쫓구 있지요. 그래고 있지요.

조사자: 놀이가 끝나고 나서 마을의 어른인 분이 나와서 축문을 한다든지 해
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게 없습니까?

김수석: 그러니까 마지막엔 그렇지만 이북에 거기 놀 적에 거기 좀 안직(아
직)있었어요. 이북에서 할 적에 말이요. 이제 사자가 이북에서 정월
대보름날 놀게 아니요? 대보름날 달이 밝아 이제 노는데, 그때는 이
제 그 부락에 스무집, 집이 스물하고, 다 들어가요. 사자가 집안을
한 바퀴 돌고 나온다이. 그 돌고 나오는 뜻을 무슨 뜻이냐 하믄, 사
자가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그 일 년은 집안이 아주 재수있고, 아주
뭘 참 무사히 난다. 그래서 사자가 돌고 나온다이. 돌고 나오면 그
집에서 어떡허는고 허면 이제 쌀을 한 말 정도 주는 집이 있고, 그
때는 술 대병을 서너 되 받아서 주는 집도 있고 말이요, 그래 그놈
의 것을 며칠을 다녀서 그 부락을 다 마치고 나서 결산을 하지, 결
산을 하게 되면 "돈이 몇 만원이다" "쌀이 몇 섬이다"하게 되면 말이
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은 말이요, 쌀도 그때 몇
섬 두어 섬씩 주고 말이요 또 저기 가게집에 팔아 가지고 그때는 고
학생이 많았어요. 일본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뒷바
라지를 해주고 말이야, 이랬지 뭐. 그리고 또 원래 북청알지만는 북
청물지계가 유명하재이요. 이북이 교육열이 참 세지요. 이북에 들어
가면 말이요. 이북에 하여튼 들어가문 어떤 여자든 편지 못 쓰는 여
자가 없고 편지 못 보는 여자가 없다이.

조사자: 그 마을에서 행해질 때는 그곳에서도 북청마을, 북청도청에서 모여
가지고 놀았겠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돌고 와서요? 그때는 사
자만 집집마다 들어갈게 아니예요?

김수석: 아. 사자만 돌고 나오지요 그다음에.....

조사자: 그리고 마당에서 놀겠지요?

김수석: 아, 그렇지.

조사자: 정월 대보름날, 그러니까 15일날 밤에만 노는 거예요?

김수석: 아니며, 그때는 한 이 삼일씩 한다이.

조사자: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김수석: 그렇지, 한 이 삼일씩 한다이.

조사자: 그러니까 14일도 하고 16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언제부터 북청사자놀음을 하셨어요, 북청 현지에서는 언제부터 행해졌는지?

김수석: 현재 북청에는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요. 아까 내가 그랬지요. 하여튼 내가 열두살 때 부터 열두살에 서당에서 서당마당에서 사자놀음 한다 그래서 내려가니까 노는것 보니까 아무개 아무사람이 놀드라 그랬지요 언제부터인가 그건 잘 모르지.

조사자: 등장인물이 여럿 있잖습니까?

김수석: 악사가 신이 들려 악사가 치는 게 말이요, 사자가 저기 뭐야 초장, 중장, 말장이 그러지요, 초장이 치는 게 다르고 중장이 치는 게 다르고, 말장이 치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 악사는 꼭 치던 사람이 나와야 돼요.

조사자: 아까 통소를 부셨는데요, 그게 애원성 춤의 반주악기로 들어가죠. 통소악기가?

김수석: 아 그렇지요.

조사자: 그거 애원성에 맞추는 가락이랑 사자춤에서 맞추는 가락이랑 틀리겠죠?

김수석: 그럼, 다 틀리지요 칼춤 추는 것도 다 틀리고, 무동춤도 다 틀리고, 다 제 가락 쓴다이.

조사자: 연풍대라는 게 뭐죠?

김수석: 연풍대는 우리 고향에서 말이요. 하여튼 명절에 말이요, 한 삼백호나 이백호씩 사는데 한 부락에 말이요. 명절이면 하여간 서당이라는 데 그 저 한글을 배워주는데 그 서당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명절이면 오늘이 설날이다 하든 오늘 저녁(저녁)에 저녁 먹고서 짝 건너와서 서당에 모이거든. 서당에 모여 가지고 서당 마당이 여간 너르지 않지. 여간 너르지 않다이. 거기선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지, 사자가 그 마당에서 놓고 이제 그 사자가 끝나게 되든 전부 그 방안에 들어가서 방안을 짝 메운다이. 방안에 양쪽이리 갈라 앉아 말이여, 한쪽에서 악사들이 징을 치미(치며), 통소를 불미, 북을 치면서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술 먹이면서 내다 춤을 추킨다이.

조사자: 혹 지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때 추던 사자 앞 머리하시던 동작을 취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수석: 그러지, 무동, 무동있다이 아니 뒷사자하는 여기 이 무동한다이 거길, 앞을 든단 말이여. 나를 들거든, 뒷사자가 말이여.

조사자: 가장 기본되는 반주는 통소가락에서 모든 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수석: 그렇죠, 통소, 그러니까 북, 팽과리, 장구, 장구 고계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고계 맞아야 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쓰고선 아무것도 안 보는데서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거 장단이 조금 틀려도 말이여. 사자가 지 멋대로 못 논다이.

조사자: 저기 모두 탈을 쓰고 놉니까?

김수석: 꼽추가 탈이 있고 양반이 탈이 있고, 그 다음에 꼭쇠, 꼽추,....

조사자: 나머지는 맨 얼굴입니까?

김수석: 그 나머지는 그냥 맨 얼굴, 수건 쓰는 것도 있고, 고깔 쓰구(음악에 맞추어 앞 사자춤을 추었다)

조사자: 초장, 중장, 말장의 춤동작이 다 틀립니까?

김수석: 다 틀리지요.

조사자: 사자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여자들은 못 만진다는 그런 얘긴 없습니까?

김수석: 그런 것들은 없고 옛날 옛날에 자손이 귀한 집 애들은 이제 사자를 태우거든. 태우면 장수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자털이, 사자털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애기 기저귀에다 채우면 명이 길다 그래서 그런 건 많지요?

조사자: 사자털의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뭐 뭐 쓰입니까?

김수석: 빨강 것, 흰 것, 노른 것, 밤색, 검정색 다섯 가지지 여섯 가지지 그래요, (제보자는 계속하여 이북에서 북청의 공립 보통학교를 나왔으며 혼자 1.4후퇴 때 월남하였다고 함. 그는 7대 독자로서 이북에서는 14세에 장가를 갔으며 네 명의 자식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말함.)

조사자: 지금 후계자로 누굴 꼽고 있습니까?

김수석: 여기 속초에서 없지요.

조사자: 서울은 누구입니까?

김수석: 서울엔 지금 뭐 애들이 여럿이 있지요.

조사자: 저 이런 걸 가르쳐 주어야 할텐데 속초에도....

김수석: 그러게 말이오, 애들만 나오는 게 있으면 말야, 내가 지금 나이를 먹었지만 나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올 애들이 없다이, 여기 전문대 애들은 몇 해 전에 일주일씩 가르쳐 봤는데 잘해요. 잘하는데 애들이 말요 졸업하고 다 집으로 가버리니 소용이 없어요 여기 속초에 있는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조사자: 그러니까 사자놀이를 이제 속초에서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한다면 가르치실 수 있으니까?

김수석: 여기가 원래 사자놀이 본부인데 여기서 하여튼 서울 사람들에게 뵈겼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일단은 자본도 있어야지만 자본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허자면 돈을 만들어 나서야 되는데 그때는 또 여기서 알기를 우수이(우습게)알았던 말이야. 그때는 문화재를 아주 우수이 여겼단 말야. 그런데 서울사람들은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조사자: 앞 사자 할 경우에 춤사위 모양이 어떤 춤이다 어떤 춤이다 하는 명칭이 있습니까?

김수석: 명칭은 없어요.

조사자: 손은 앞에 입을 잡으시겠지만요 탈은 이제 어떤 형태가 있겠지요, 움직이는?

김수석: 그러니까 이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요.

조사자: 사자가 앉아 있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던데요?

김수석: 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타지 않죠. 그 안에서 서는 것도 있고 앉아서 골을 흔들 때도 있고 서서 흔들 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요.

조사자: 두 마리가 나오면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김수석: 싸우지는 않지만은 서로 놀고 관람자들을 아주 좋게 할려고 말이오

조사자: 보통 전체놀이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김수석: 놀이시간요? 오래 못 놀지요. 사자는 한 십분 하는 때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 도있고.

조사자: 전체는요?

김수석: 전체는 한 사십분 오십분, 자연적으로 음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인간문화재라는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 중장 말장까지 있재이. 그러니까 삼장이지, 사자는, 사자는 삼장에서 이제 노는 거지. 그게 애원성춤이다, 꿈새춤이다, 칼춤이다, 그게 다.

조사자: 저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탈놀음 잘하여서 뭐 대접을 잘 받으셨다는지?

김수석: 아이,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대접을 잘 받았었는데 뭐 실물이나 아니냐 확인을 하고 막 싸워가지고 여기 들어와 확인을 다 해 보시고 그랬어요.

조사자: 그 춤마당 있죠, 지금 아홉 마당으로 나뉘지고 있잖습니까?

김수석: 그기 두 마당 아홉 거리라 그랬지요,

조사자: 두 마당 아홉 거리가 확실한가요?

김수석: 그렇지. 다른 춤은 안 들어가요. 두 마당 아홉 거리라는 게 두 마당인데 아홉 가지가 나오는 기지.

조사자: 크게 마당으로 나뉘지는 것은 뭘니까?

김수석: 애원성 마당, 사자춤 마당.

조사자: 선생님이 만든 사자탈과 지금은 다른니까? 사자 머리 모양이....

김수석: 원래 여기서 만든 사자가 서울 올라가서, 서울서 올라오라 그래서 여기서 만든 사자를 올려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자 그 꼴을 모방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망글어 가지고 지금 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꼴을, 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 망근(만든)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친목회 김하륜이라고, 우리 회장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사자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아주 대가리가 참 보기도 좋아요.

조사자: 옛날 걸 만든 거예요?

김수석: 예, 제가 망근 기요, 거기 있습니다.

조사자: 사자탈은 피나무로 만들었습니까?

김수석: 아니 종이로, 종이를 붙인 거예요.

조사자: 꼭 해주시고 싶은 얘기 좀 해주세요?

김수석: 내가 지금 애원하는 거는 내가 하여튼 여생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고, 하여튼 나는 언제든지 속초에다가 이 사자를 좀 후배를 망글어 놓자 하는 이런 기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나오는 학생들만 모조리 해주면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말이요, 아즉까지는 건드리지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가르칠 수 있다이.

(제보자는 그동안 혼자서 지내다가 불과 몇 년 전에 통일될 희망이 멀어지고 나이도 자꾸 먹어서 할머니 한 분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분은 박금주 할

머니로 칠십세라고 함. 이어서 김하륜 북청도청 회장택으로 김수석 인간문화재와 함께 찾았다.)

이하의 제보자는 김하륜 옹을 말함.

조사자: 회장 맡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김하륜: 올해 야튼 뭐 십오년 한 십오년 계속...뭐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맞게 되니까,

조사자: 함경도에서 고향은 어디셨습니까?

김하륜: 북청읍 신천면이라는데 있어요, 1.4후퇴 때 나왔어요.

조사자: 북청동향친목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김하륜: 북청동향친목회는 36명이야. 그때나 이때나 이 형님(김수석씨를 지칭)이 제일 고령자시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요. 그래 가지고 사자를 저기 선조로 내려오는 공연문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거든. 저 바닷가에 가면 고기 그물을 썩어서 내버리는 것을 골라 가지고 씻어 가지고 바다에 씻어 가지고 삶아 가지고 물을 들여 사자를 만든 겁니다. 그때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나 이 형님이 사자를 만들고 그래서 사자 노는 걸 연습했지. 그래서 그 활동으로 모인 돈을 가지고 운영했지요. 우리는 정월 대보름날 야튼 음력설부터 보름날까지 계속 땡겨요. 그래 몇 날을 해가지고 우리 고향의 선조들은 정월 대보름날이라 정초에 사자놀이를 하게 되면 그 잡신들이 다 쫓겨나고 만수무강하라고 빌고 다 그래서 집집마다 쌀도 노뉘주고 돈도 노누는 집이 있고, 그때 돈으로 삼백원, 제일 잘사는 사람은 한 천원내고 그럼 그걸 함께 모아 재산을 만들었어요.

조사자: 그럼 그게 몇 연도입니까?

김하륜: 그러니까 그게 햇수로서 33년 됐지.

조사자: 선생님은 언제부터 북청사자놀음을 시작하셨습니까?

김하륜: 우린 고향서 고향민속이 그러니까 제일 우리 북청이, 북청군이 3개 읍이거든. 북청이 큼니다. 3개읍 17개면이거든. 그럼 각 면면이 달라요. 제일 저~저 무식한 말로 억세계 사자놀이 하는 데는 이 큰골이라는데 대골, 북청읍 죽평리, 거기서 제일 잘 놀고 우리 양가라는 데 양가는 신북청에서 북청을 넘는 중간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제일 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서 그때 그걸 몰랐지. 하야튼 왜정 때 그 일본 놈의 새끼들 하튼 개지랄 하는 것도 기어코 시내에서 보름에 밤새도록 놀았던 말이요.

조사자: 왜 못 놀게 했습니까? 일본사람들이?

김하륜: 그러니까 그 첫째 기초가 그 돈돌라리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나는 가 하니 저 삼월 한식날 각 저 다리 밑으로 가거든. 모래사장 거기서 처음에는 달래 캐러 간다. 한식 때니까, 그래서 집에서 바가지 꺼내 달래 캐러 간다 그래서 그 비밀이지. 그래가지고 어느 다리밑 어느 강가 모래장 거 까지..., 친구다리밑으로 이제 돈돌라리 부르면서 달래 캐러 간다 하지. 그 돈돌라리 부리는 의미가 거기서 우리 조선 조선이니까. 돈돌라리로 서로 암호로 연락하는 기야. "이 강산 철산에 해가 떨어진다" 그래해요.

조사자: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김하륜: 그때는 날 거기서 별루 무슨 역할을 아니, 난 어릴 때니까 가담을 못했지.

조사자: 여기 나오셔서 가담하신 역할이 있으신지요?

김하륜: 여기 와 주로 사자놀이 애쓰고 이 형님과 둘이 애쓰고 노력하고 밤 낮 앞으면 통소 불고 그래서 전문대학 학생들을 몇 해 길러 봤어요. 그래서 문화원장 김종록 씨 할 적에, 그 분이 계속하셨으면 어느 정도 발전이 됐을 거요. 내 지금도 통소 하루에 한 번씩 불어요. 난 아직 문화재는 못됐소.

조사자: 통소는 선생님이 만드실 겁니까?

김하륜: 이게 다 우리 손으로 만든거요. 지금도 망글어요. 만들기 힘이 들어요. 이게 질이 세가지고 구멍을 뚫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거 우리 여기선 무스할까 서울서 본부에서 만든 거.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삼 년, 삼년 전 일이야. 한 삼 년 놀았거든. 가서 저 사자 가지고 가서 그래서 서울 가서 한 삼 년 대냈어요. 그런데 서울서 가뜰 바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섭섭한 건 가을 10월에 오징어가 날 때거든. 바쁠 때 우릴 와서 모셔 올라가야지 가면 또 여관비 줘야지, 돈을 농가(나누어)줘야지, 그래 귀찮으니까 한 삼 년 다니고 등록 난 다음 자기네, 지금 노는 사자야. 틀이 지 틀이 맞지 싶어 칠한 거야 이게 본 사자 거채입니다. 그렇담 지금 서울 학생들이 지금 말하는 기 저 영감들이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

다는 기야. 지금 현재 영감들이, 그래도 우리 사자 저기 진짜지, 거 내 하도 무속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 그 원형도 변한단 말이요. 몸통이 새빨강지. 그리고 털이 질구(길고)털이 암만 질구 그 다음 음악도 판이 다릅니다. 지금.

조사자: 지금 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김하륜: 내 불긴 부는데 가사는 한 가지지. 내용은 한 가진데 음악은 저 옴프(음표)는 틀려요. (제보자는 5~6년 전 설악제때 녹음한 것이라며 들려주었다. 1985년 10월2일 설악제시에 입장곡, 애원성 타령, 사자놀이, 연풍대, 사자 춤 등을 녹음한 음악을 틀었다.) 통소를 녹음하는데 입장곡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이 김하륜하고 그리고 인간문화재 등록 난 할아버지가 변영호라, 지금 통소 못붙어요. 이게 김수석 할아버지가 애원성 타령 한거요.

"에~헤,에~헤 우수경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 님 말씀에 요내 가슴 풀린다. 에~헤, 해는 오늘 보면 내일 보는 것 임자는 오늘 보면 언제나 보는가. 에~헤 태산에 붙는 불은 만백성이 끄고 요내 가슴에 붙은 불은 어느 누가 끌까 에~헤." 이 가사가 의미가 있는기야. 그리구 사자놀이 "에구 내 딸 봉섬아"란 게 있어요. 그 봉 섬이란 아가씨가 그 아가씨가 예뻐던 모양이지.

조사자: 이 통소소리는 무엇입니까?(녹음된 통소소리를 들으며)

김하륜: 처음에 입장곡,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부르고 에구 내 딸 봉섬아 불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불렀던 게 연풍대라는 기요. 이번에는 칼춤 나와요. 칼춤 잘 춰요.

조사자: 에구 내 딸 봉섬아, 그게 사당춤니까?

김하륜: 그게 사당춤이요.

조사자: 연풍대라 게 따로 있습니까?

김하륜: 그 춤가락을 다르게 하는데 입장곡이 다르고, 모르는 사람은 다 한가지로 부르는 것 같애도 입장곡이 다르고, 애원성음악이 다르고 연풍대 음악이 다르고, 그 다음이 에구 내 딸, 아까 칼춤도 했잖소.

조사자: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김하륜: 처음에는 입장곡하고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그 다음에 에구 내 딸 봉섬아, 그때 사당춤 추거든, 그거 하면서 꿈새춤 추고 칼춤은 맨 마지막에 하는 기야. 그 다음에 또 연풍대 할 적에 그때두 추는데 여기도 춤추는 사람 서넛 있소. 우리 고향사람들이 옛날 할머니들이

이 옛날 머리 쓰게 머리 수건을 이렇게 살고 옛날 할머이들이 추는 겁니다.

조사자: 칼춤이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김하륜: 마지막 이 제 칼춤이 끝났소, 이제 사자놀이 하는데 초장, 중장, 말장이 있어요.

조사자: 초장, 중장, 말장이 어떻게 됩니까?

김하륜: 달라요. 이게 다 소리가 달라요. 음악이 달라요. 초장이 제일 늘지요. 뜨지요. 중장은 조금 더 빠르구, 그 다음 말장에 가선 아주 빠르다이.

조사자: 그러니까 빠르기에 따라서 초장, 중장, 말장이 됩니까?

김하륜: 그렇지. (김하륜옹이 통소를 불고 김수석 옹이 사자 앞채춤을 춤.) 사자놀이는 아홉곡이야.

조사자: 두 마당 아홉거리 아닙니까?

김하륜: 두 마당 아홉거리요? 아니여. 아홉굿거리 열 두 마당이야. 열 두 가지했거든. 열 두 마당, 여태까지 논게 꼽새춤이고 뭐구 아홉 굿거리 열 두 마당, 그거 알아야 돼. 음악은 아홉가지구 그 다음에 노는 건 열 두 가지로 노는 거란 말이지.

조사자: 그러니까 처음 등장해 가지고 인사하는 것 까지 다 들어갑니까?

김하륜: 그게 다 들어가서 그것까지 열 두 마당이야. 열 두 가지야.

조사자: 춤추는 순서는 늘 똑같이 합니까?

김하륜: 다 다르지. 열 두 마당 다르지 칼춤이 다르고, 꼽새춤이 다르구고, 사당춤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한마당 춤이 다르고.
(제보자는 서울에서 녹음해 온 돈돌라리 민요를 고향 민요라며 들려 주었다.)

조사자: 그럼 북청사자놀음에 악기는 뭐 뭐가 등장됩니까?

김하륜: 통소는 서이 일 때도 있고 너이 일 때도 있고, 북이 있고, 큰 북 둘, 작은 북 두개요, 그리고 장고 하나, 징, 팽과리 하나.

조사자: 그럼 통소가 제일 많군요?

김하륜: 그전엔 돌이 붙었지만 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들어가고 부는 사람이 적으면 돌 들어가고, 어떡허든 둘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맞지, 돌이 들어가야 소리를 맞추거든. 하난 들어가면 소리가 상당히 약하고....

조사자: 양반은 보니까 정자관 비슷하게 점잖은 탈을 쓰고 있던데요?

김하륜: 손에는 담뱃대하고 부채를 들고 옷은 도포 관복이지요.

조사자: 탈은 나무탈입니까? 종이탈입니까?

김하륜: 아, 종이로 한 거예요,

조사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꼭쇠지요? 꼭쇠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김하륜: 그게 양반의 하인이지요, 양반이 꼭쇠를 잡고 뭘을 시킨다든지 붙들어 매놓고는 뭐해라 뭐해라 뭐,

조사자: 양반은 수염이 긴데요?

김하륜: 수염이 근사해요, 수염이 길쭉하게 나오고요. 머리에는 흰색 관을 쓰고요,

조사자: 꼭쇠옷은 어떻습니까?

김하륜: 꼭쇠옷은 일색으로 하는 게 아이라 여기 저 무당옷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쪽엔 줄을 이렇게 매고 바지도 한쪽 가다리, 반팔을 빨건거나 검은 거 하고, 팔이때기 절반은 빨건거 하고, 이렇게 했던 말이여. 얼굴에는 탈을 써야 된다. 신발은 짚신, 행전치고.....머리에 고깔쓰고.

조사자: 승무도 나오고 사당춤은 들이지요?

김하륜: 사당춤 들이 나오고 스님이 나오지요. 사자가 거꾸러졌을 때 스님 나오고 그전에는 의사가 나왔는데 안 나오고 직접 형님(김수석옹)이 나오는 기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고 허니 사자가 허기증이 났다. 병이 났다, 그 다음에 토끼를 잡아 먹인다. 사슴을 잡아 먹인다 했는데 그걸 없애고 지금은 염불합니다. (김수석씨가 이 부분을 수정하여 대답함.)

김수석: 아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왜그래? 사자가 거꾸러지면 한창 놀다 거꾸러지믄 이제 토끼를 하나 가져다가 만든 토끼를 갖다 “거 허기증이 있으니 거꾸러졌다” 하면 이제 의원을 찾는다 말이요. 꼭쇠 양반이 의원을 찾아 모셔 오라고 말이요. 그래 의원이 와서 진맥하게 되면 이제 의원이 “뭘 먹였는가?”하면 그럼 양반이 있다 가서 “사자가 허기증이 나서 토끼를 먹였는데요”하면 의원이 “아 그럼 언쳤는데요” “그러거든, 그러면 “의원을 가 데려오라”한다. 말이여. 요 간맥하면 “언쳤다, 이거 침을 놔야 하겠다”그 다음에 침을 놓다 말야. 맨 마지막에 스님이 들어가서 염불하는기야.

조사자: 그러면 사자가 되살아납니까?

김수석: 그렇지요. 그럼 살아나거든.

조사자: 무동춤에 남녀가 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수석: 요즘엔 안 나와요. 본래 원숭이도 있었는데, 몇 해 전엔 있었는데 요즘엔 그거 없다이. 그게 있으면 아주 희극도 많이 되구 이런데 요즘은 안 해.

조사자: 그 이 장사 설화가 있잖습니까? 범을 잡은 삼사리 마을의 이 장사 이야기 있잖습니까?(다시 김하륜옹의 대답이다.)

김하륜: 어 그걸 형님이 아시겠나? 사자 색깔이 왜 호랑이 색깔과 같냐면 내가 말하면 알아들을 기요. 사자 색깔이 왜 범 색깔이냐? 어느 옛날에 장군이 이 장사가 부인이 예뻐대. 그러니까 일본아들이 뺏어 갈라구 해서 그래 산중인가 어디로 도피를 해서 갔대. 도망을 해서 갔는데 그 어떡허다 걸렸단 말야. 그래 그 일본아들 한테 부인을 뺏기고서 그 다음에 일본 아들이 굴 안에 집어넣거든. 굴 안에. 그래 원래 장군이니까 굴 안에 들어가면 죽을까 하고 무방심하고 있었지. 그런데 거기 살아 나갔단 말야. 그래 몇 해 이거 자기 부인을 빼내와야 하는데 할 새가 없어. 이웃 노인이가, 그래 이놈들은 남의 부인을 갖다 훔쳐 놓구선 앞에 사자를 먹이거든. (조사자:호랑이 새끼를 잘못 구연한 듯 함.) 사자를 길러. 사자새끼는 뭐가 들어오든 사람을 접근을 못하게 해. 사자의 이 앞다리가 대문 안에 놓이는데 아무 사람이 접근을 못하거든. 그때 이웃 노인이가 이 장사를 보고 "야 니가 거길 늘어갈려든 니 사자 형용을 해 들어가야 한다." 거 사자새끼 있거든 사람만 접근을 하자면 막 소리를 치고 물을라고 덤벼들거든. 그래 가만 물어서 그래서 사자색깔처럼 망근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자 색깔을 범처럼 하느냐 하니까 그래서 하는기라. 이 장군이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호랑이 색깔을 해가지고 호랑이처럼 망글어, 그래서 사자색깔이 호랑이, 범색깔이랑 똑같아. 내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

(참고로,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의 "범잡은 삼사리 마을 이 장사"전설을 옮긴다. 상기 제보자와 차이점을 보이기 위함에서 삼입함.)

누라치라는 되놈대장이 삼사리마을 성주를 거느리고 대덕골로 사냥을 갔다가 갓난 호랑이새끼를 잡아가지고 와서 관사 대문 옆에 우리를 만들고 키웠는데 호랑이새끼는 누라치한테는 강아지마냥 고분고분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대문 안에 들어서면 으르렁대

곤 해서 도무지 접근하지를 못했다.

누라치는 가즌 행패를 다 했는데 가끔 거리에 나갈 때는 쇠굴래로 시운 호랑이새끼를 끌고 다니면서 '내 영을 거슬리면 호랑이밥이 된다'고 백성들을 위협했다. 어느날 누라치는 백여 명을 거느리고 검덕재로 사냥을 나갔다가 인가촌에서 백리나 떨어진 외딴곳에서 단둘이 외로이 살고 있는 젊은 부부를 발견했는데 젊은 아낙네는 천하절색이었다.

그래서 누라치는 젊은 부부의 애절한 호소와 목숨을 건 반항도 뿌리치고 여인을 억지로 끌고 돌아와서 단꿈을 꾸고 있었다. 뒤를 쫓아온 젊은이는 관사 주위에서 사흘 동안이나 맴돌다가 누라치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담을 뛰어넘어 관사 뜰에 들어섰다. 그때 호랑이새끼가 으르렁대는 소리를 듣고 왈칵 몰려온 창검을 든 수 십 명의 병정들에게 젊은이는 결국 잡히고야 말았다.

젊은이의 목을 칠려고 칼을 빼내든 누라치앞에 잡혀가 있는 여인네는 무릎을 꿇고 "제발 남편의 목숨만은 살려주라"고 애걸복걸했다. 그래서 누라치는 곤장 삼백대를 때려서 반죽음이 된 것을 본 다음에야 병정을 시켜 개천가에 메어다 버리게 했다. 원래 그 젊은이는 키가 아홉자나 되고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그 혹독한 매질에도 목숨이 붙어났다. 정신을 잃었던 젊은이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그 다음날 점심 때였는데 머리맡에는 백발이 성성한 풍채 좋은 노인네가 자기를 시중해 주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 노인집에서 며칠 동안 따뜻한 치료를 받고 다시 원기를 회복한 젊은이는 복수심에 불타서 "할아버지, 첫째로 호랑이 새끼부터 죽이고 누라치놈도 죽이고 아내를 기어 이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을 수 없습니다."고 울부짖으며 칼을 갈고 있었다. 어떤 만류도 듣지 않을 것을 짐작한 노인은 젊은이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젊은이의 앞에 얼룩덜룩한 큰 짐승의 가죽을 내어놓았다. 그래서 세상구경이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젊은이는 "할아버지 저는 산속에서 나서 지금까지 산속에서 자라왔는데 이렇게 큰 호랑이도 세상에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면서 "이건 호랑이 가죽이 아니다 호랑이까지도 잡아먹는 짐승의 가죽이며 그것도 진짜 가죽은 아니고 사람 손으로 만든 사자놀이에 쓰는 가죽이다."라고 가르쳐주었다. 젊은이에게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노인은 말을 계속한다. "네가 천하장사인 누라치를 죽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죽일 수 있다 해도 그러다간 우리백성에게 큰 화가 미친다. 그러니 누라치를 죽일 생각은 하지 말고 누라치가 사냥 나가 외박하는 날 밤을 택해서 이걸 뒤집어 쓰고 담을 뛰어넘으면 호랑이 새끼가 겁을 집어먹고 쪽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때 호랑이 새끼를 찢러 죽이고 침실에 뛰어들어 네 아내를 둘러메고 도망쳐 나오면 설사 병정들에게 발각된다 해도 잠결에 어뜩뜩해서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쏠살같이 도망쳐서 내 집으로 오너라, 그러면 너희 부부의 은신처를 내가 마련해 주마."

젊은이는 그렇게 해서 아내와 죽은 호랑이까지 둘러메고 도망치는데 성공했고 그날 밤으로 노인을 따라 심산 중에 도망을 쳤는데 젊은 아낙네는 "내가 되놈한테 몸을 더럽히고도 그래 죽지 못한 것을 그놈을 내 손으로 죽인 다음에 자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밤 서방님한테 구출되고 말았으니 무슨 면목으로 서방님을 뒹뒹이 대하겠느냐"고 목을 놓아 통곡하는 것이었다. 노인은 "그것은 부인 허물이 아니

다. 약한 우리민족의 서름이니 부인을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젊은이에게 타일렀다. 젊은이도 아내를 찾은 것만으로도 더없이 기쁘다며 부인을 위로했다. 그러나 젊은 부인은 남편이 기다리는 침실에 들어가지 않고 이리 저리 핑계 끝에 소나무에 목을 매고 자결했다.

단꿈을 꾸던 여인과 호랑이 새끼까지 잃어버린 누라치는 이리 저리 화풀이만 하다가 얼마후에 쌍성으로 가버렸고 인가촌으로 내려온 젊은이는 원수같은 호랑이 새끼를 죽이고 되놈을 쫓아 버린 장사하고 해서 삽사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범 잡는 이장수"로 불리어 졌다. 그 후부터 사자가죽을 쓰고 춤추는 마을놀이가 더욱 성행하게 되었는데 삽사리 마을 사람들은 벗짚과 검은 천으로 만든 누라치의 인형과 호랑이 새끼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참 사자춤을 신나게 추다가는 그것을 차레로 갈기갈기 찢으며 잡아먹는 시늉을 하며 늙을 때까지 홀로 살고 있는 이장사를 위로하고 그 아내의 영혼을 위안했다고 한다.

조사자: 사자놀음에 대한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김하륜: 내 아까 할 적에 고향서 집에서 선조들이 하던 대로 했거든. 정월 대보름날 집집마다 댕기무서 이 사자놀이하믄 악도 떼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귀한 자식을 사자 등에 태워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귀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어떤 집은 오란 집도 있어요. 대부분 요청하지요 사자놀이 나왔다 하믄 "우리 집 와라"요청하지요 그래서 그거하믄 쌀 내놓고 또 축원해요. 우리네 가족 건강하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그런....

(제보자는 북청물장수 이야기를 하며 함경도민의 교육열을 말했다.)

조사자: 도청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김하륜: 도청(都廳)이라 하는 기 모두 도(都)자 도청이 있고 서뎃방(서당방)이라는 게 있어요. 한 동네 열 집이 살아도 그거는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기는 배를 굶고 먹을 것 못 먹고 그래도 산을 허물어서 도청을 지었단 말어요. 그래 사자놀이할 도청을 지으니 여기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먹을 것도 못 먹고 도청은 짓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공회당이라 그러거든. 거 무슨 회관이라 하지. 그래서 거기 있는데 이데 서뎃방, 여기 도청방, 그리고 노인들이 앉는 곳은 칸을 막아요. 미닫이를 해가지고, 그때 이 시내에 학교 댕기는 사람들이 서뎃방에서 공부를 하거든. 그 한문, 그럼 거기 특수한기 명절날 같은 때 놀거든. 그럼 이 서뎃방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앞으로 명절을 며칠 남겨두고 미리 휴가를 주면 거 노는데는 이런 걸 한단 말야. 사자놀이를 하는데 더 억세게 해야 이 동네 뉘 집 처녀나 며느리들이

우리 동네가 잘 못 놀고 남의 동네가면 희야거시 받게 되거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아주 잘하거든. 그때는 이 아래위에 문을 탁 터요. 거기서 씨름하는 식으로 특수해요. 거기서 뭐 서리(서로)승합적으로 어느 동네가 불리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자놀이가 더 역센 것 같아요.

조사자: 사자놀이에 여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하륜: 그럼 여자도 춤추지. 승무춤 때 들어가고 사당춤 출 때 두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또 지금은 할머니들이 뭐 서이고 너이고 옛날 머리쓰개를 두르고 그렇게 해서 춤을 춰요. 지금도 사자놀이해도 할머니들이 춤을 춰요.

조사자: 옛날에도 패랭이 쓰고 통소를 부셨습니까?(김수석씨가 대답함.)

김수석: 그렇지 옛날에도 다 패랭이 썼지. 고깔쓰고 패랭이 쓴 것도 있구. 지금은 저 대부분이 옛날 고깔쓰고 했거든. 우리 여기서 할 때 다 고깔 그랬어요. 색은 흰색에 양쪽에 다 꽃을 달지요. 근데 지금 달라졌어. 그게 고깔을 쓴 사람이 있고 또 악사들은 이제 저기 맹건쓰고 고 위에다 수건을 딱 매고, 지금은 쉬어졌어요

[참고문헌]

- 金在喆, 增補 朝鮮演劇史, 學藝社, 1936
- 윤세평, 이조문학의 사적발전과정과 제잔르에 대한 고찰, 국립출판사, 1954
- 金光洲·趙演鉉·韓戊淑, 피난민의 서글프다. 首都文化社, 1951
- 金宗文 編, 戰時韓國文學選 詩篇, 國防部政訓局, 1955
- 張虎崗, 抗戰의 祖國, 人間社, 1955
- 한효, 조선연극사개요, 국립출판사, 1956
- 金東鳴, 避難回想記(一)(二)(三) 思想界, 思想界社, 1957, 1~3월호
-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 과학원출판사, 1958
- 宋錫夏,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 沈基淵, 關北 第二輯, 咸鏡道民會(春川), 1962
- 조선의 민속놀이, 과학원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4
- 金東鳴文集刊行會, 金東鳴隨筆·手記集 모래위에 쓴 落書, 新雅社, 1965
- 권택무, 조선민간극, 조선문학예술동맹출판부, 1966
- 江原道, 接敵 및 收復地區實態調査報告書, 江原道內務局地方課, 1968
- 함경남도지, 함경남도지편찬위원회, 1968
- 張虎崗, 虎崗戰陣詩選, 亞成出版社, 1969
- 李杜鉉, 韓國假面劇, 文化財管理局, 1969
- 北靑郡誌, 北靑郡誌編纂委員會, 1970
- 재미나는 유희와 오락, 사로청출판사, 1974
- 홍중혁, 한국분단의 역사적 고찰, 인문출판사, 1974
- 民俗藝術事典,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79
-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성사, 1979
- 조규희, 북청사자놀이대본(확정판),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1979
-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출판부, 1982
- 王承禮, 渤海簡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
- 東草文化院, 東草文化 創刊號, 1984
- 김복조·정순화·천석근, 사회주의생활문화백과1, 조선음식, 근로단체출판사, 1985
- 최인학, 북한의 민속,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6
- 김내창·선희창, 조선의 민속,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서연호, 산대탈놀이, 열화당, 1987

- 구상·장호강, 분단상황의 문학적 특성, 한국잡지사인협회 제6회 문학심포지엄. 1987.7.25
- 李殿福孫玉良, 渤海國, 北京文物出版社, 1987
- 羅雄岩, 中國民間舞蹈文化, 北京舞蹈學院, 1988
- 張正龍, 江陵官奴假面劇研究, 集文堂, 1989
- 張紫晨, 中國民間小戲, 浙江教育出版社, 1989
- 김열규, 오늘의 북한민속 -동질성회복을 위한 진단, 조선일보사, 1989
- 조범하·오금순, 계절음식, 근로단체출판사, 1989
-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 중세편), 조선평양출판사, 1990
-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조선민족풍습,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최철·전경옥, 북한의 민속예술, 고려원, 1990
-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 실천, 1991
- 오창원, 우리나라 지리와 풍속, 금성청년출판사, 1991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문화부, 한국의 민속예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1992
- 한성겸, 재미있는 민속놀이, 금성청년출판사, 1994
- 조선의 민속전통5, 민속명절과 놀이, 과학백과종합출판사, 1994
- 최창호, 민속을 통해보는 시와 노래, 평양출판사, 1996
- 북청사자놀이 전수교본, 북청사자놀이보존회, 1996
- 朴益勳, 落穗集, 강원일보사 출판국, 1996
- 북한민속종합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7
- 장정룡, 속초시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 강원사회연구회편, 분단강원의 이해, -상황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1999
-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장정룡 외, 속초시거주 피난민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 이우영, 북한문화의 수용실태조사, 통일연구원, 2001
- 장정룡,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 리정순 외, 열두달 민속놀이, 근로단체출판사, 2002
- 장정룡 외, 북한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 집문당, 2003

- 조대일 외, 조선민속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2004
- 傅起鳳·傅騰龍, 中國雜技史, 上海人民出版社, 2004
- 藍先琳, 民間年畫, 中國輕工業出版社, 2005
- 김문흡·리길항, 민속명절료리,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5
- 림찬영, 조선의 특산료리, 평양출판사, 2005
- 장정룡, 강원도출신 독립운동가 및 강원도거주실향민 생애사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 정금철 외, 강원도 인문학기초자료 조사연구, 북스힐, 2005
-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 郭泮溪, 民間遊戲與競技, 中國社會出版社, 2006
- 장정룡, 속초지역 실향민구술조사보고서, 속초시·속초시박물관, 2007
- 장정룡, 속초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개발, 속초실향민문화콘텐츠학술세미나, 2007.12.15
- 강원지역이북도민 정착과정조사연구보고서, 통일연구원·이북5도위원회·강원도·속초시, 2009
- 장정룡 외, 강원지역이북도민정착사, 속초시·속초시립박물관, 2009
- 한태일, 사자탈춤, 조선예술 제10호, 평양문화예술출판사, 2009
- 羅斌·朱梅, 舞龍舞獅, 中國文聯出版社, 2009
- 肖麗·馬芳, 民間舞龍舞獅, 中國湖南美術出版社, 2010

전승실태 조사보고서
속초 북청사자놀이

인쇄일 2010년 12월 27일

발행일 2010년 12월 29일

발행 속초문화원

글 장정룡

인쇄 주식회사 더플러스

강릉시 포남동 1167-14

033-648-2819
